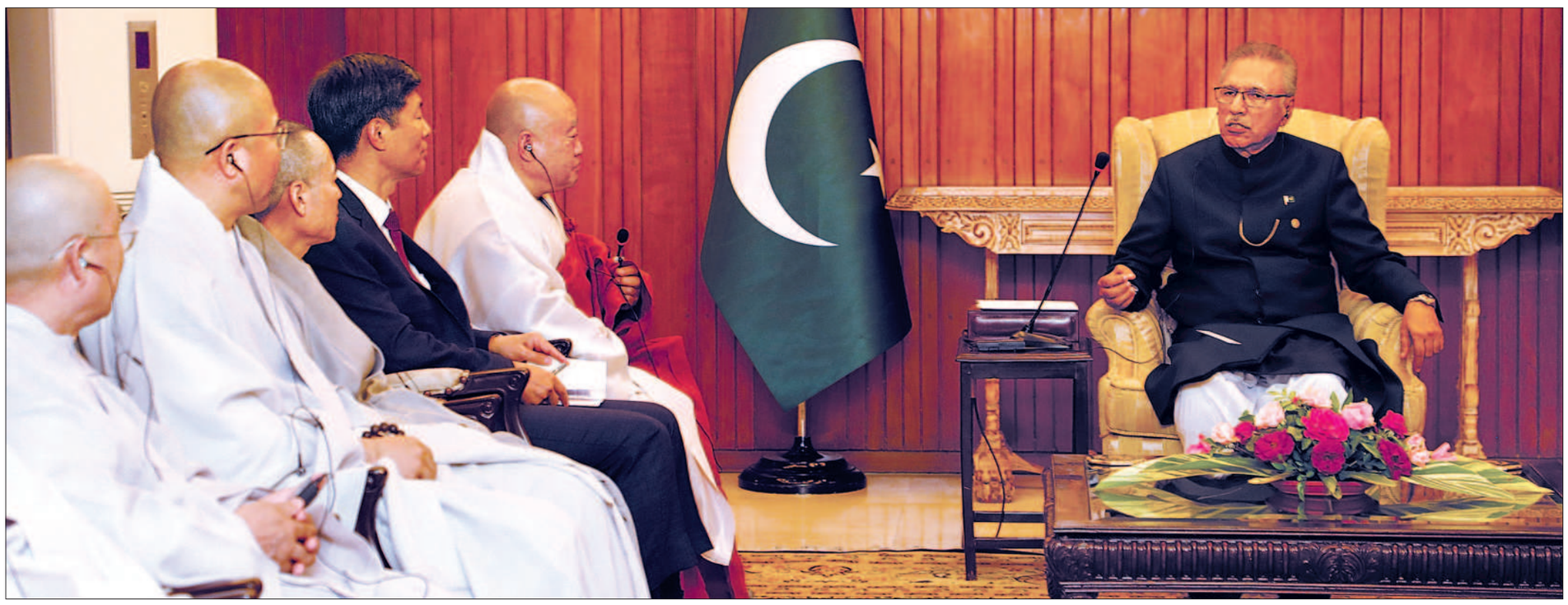
금주의 법구-〈화엄경〉
인간의 모든 욕망은 덧없고
허무하며 물거품과 같으며
물에 비친 달과도 같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70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음력 11월 1일) 2019년 11월 27일 수요일



아리프 알비 파키스탄 대통령(사진 오른쪽)이 조계종 대표단 스님들과 불교 유적 보존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 위부터 총무원장 원행 스님, 주파키스탄 한국대사,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 문화부장 오심 스님, 사회부장 덕조 스님 순.

싯다르타 고행상 韓전시 길 열리나

조계종 대표단, 11월 17~24일 파키스탄 국빈 방문

파키스탄=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파키스탄 라호르박물관 소장 고타마 싯다르타 고행상의 첫 한국 전시 가능성이 높아졌다. 라호르박물관이 소속된 펀자브주 주지사에 이어 국가행정수반인 임란 칸 총리 역시 고행상의 한국 전시에 대한 환영 입장을 내놨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대표단은 파키스탄 정부의 초청으로 11월 17일부터 24일까지 파키스탄을 국빈 방문했다. 조계종 사상 파키스탄 첫 국빈 방문에는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을 비롯한 종회의원 10여 명, 직영사찰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 보문사 주지 선조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 중앙종무기관 부장단 등 약 30여 명이 참여했다.

대표단은 11월 17일 고타마 싯다르타의 고행상으로 유명한 라호르박물관에서 입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했다.

11월 21일 현재 순례를 진행 중인 조계종 대표단 파키스탄 방문의 가장 큰 성과는 싯다르타 고행상의 첫 한국 전시의 길을 열었다는 것이다.

파키스탄 정부 초청을 받아 파키스탄 내 불교 유적을 순례 중인 조계종 대표단은 11월 20일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아리프 알비 대통령과 임란 칸 총리를 잇달아 예방하고, 라호르박물관의 고행상 한국 전시와 파키스탄 내 불교 포교당 건립 등의 가능성을 물었다. 이에 임란 칸 총리는 흔쾌히 "OK. Sure"라고 답했다. 앞서 11월 17일 만난 사르와 펀자브주 주지사 역시 조계종의 제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날 관저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총리 예방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파키스탄이 세계 종교 평화와 불교 유적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고맙다. 간다라 불상을 한국 불자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러자 임란 칸 총리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뒤 "우리 정부는 이런 종교유적에 재정을 투자하고 보존·개발할 것을 결정했다. 저 역시 불교에 관심이 많다"고 화답했다.

파키스탄에서 대통령이 사실상 명예직인 것을 감안하면 행정수반인 임란 칸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고행상의 한국 전시 가능성을 높인 대답으로 평가된다.

이에 앞서 초드리 모하마드 사르와 주지사 역시 조계종 측에 "파키스탄의 어떤 불교 유물도 외국에 대여할 수 있다. 전시 기간에 따라 협의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라호르에 불교유적이 많으니 양국이 원활하게 교류하도록 협력부서를 만들어도 좋을 것 같다"고 입장을 밝힌 것과 맥을 같이 한다.

파키스탄 고행상은 2017년 예술의전당이 간다라 미술전 '알렉산더 대왕이 만난 붓다'를 개최하면서 국내에 들여오려 했지만 실패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조계종 대표단이 임란 칸 총리와 사르와 펀자브주 주지사 등 핵심 정부관계자와의 만남을 통해 고행상의 한국 전시 가능성을 높인 만큼, 실무협의를 거치면 큰 어려움 없이 고행상이 국내서 전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계종 문화부장 오심 스님은 "고행상의 한국 전시 추진 방법은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단이 단독으로 할 수 없다면 국립박물관과 협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고행상이 한국에 들어온다면 불자들에게 더 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라호르박물관에 소장된 싯다르타 고행상.

라호르博 고행상 참배·입재 후
주지사에게 한국 전시 제안해
대통령·총리도 긍정 의사 밝혀

파키스탄 내 韓포교당 건립 등
불교 관련 활동에 정부 의지 커
교류 실무협의 부서 구성될 수도

학계 전문가들도 싯다르타 고행상의 한국 전시 가능성이 커진 데 대해 환영했다. 파키스탄 간다라 유적을 발굴했던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는 "간다라미술 양식의 고행상은 10여 점 내외인데 라호르박물관의 고행상은 그 중 가장 뛰어난 작품"이라며 "처절한 정진이 느껴지는 고행상은 현대의 불자들에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해야 할지 화두를 던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행상은 불교미술사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중요한 성보다. 이 같은 성보가 한국에 전시될 수 있다면 전시회는 환희심 넘치는 법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은 총리 예방에서 고행상 전시 외에 파키스탄 내 불교 포교당 건립에 대한 입장도 물었다. 그러자 임란 칸 총리는 거부감을 표하지 않고 좋다는 입장을 표했다. 임란 칸 총리는 "탁실라와 스와트, 길기트 등 지역은 불교와 관련이 깊고, 현재 스와트는 땅을 팔 때마다 불교 유물이 나오고 있어 불교 유적의 보고라 할 수 있다"며 재차 불교를 위해 노력하는 파키스탄의 입장을 강조했다.

원행 스님은 "마라난타 스님이 한국에 불교를 전해준 것에 은혜를 갚는 의미에서라도 파키스탄의 많은 곳을 순례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아리프 알비 대통령은 현재 파키스탄이 한국에서 여행 자제 지역으로 분류된 것을 해제할 수 있도록 조계종이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계종 대표단은 대통령과 총리 외에도 소하일 마흐무드 외교부 장관, 하크 카다리 종교부 장관을 만나 파키스탄의 불교 유적 보존 노력에 공감하고, 더 많은 한국인들이 파키스탄을 방문할 수 있도록 교류의 물꼬를 트자는 데 뜻을 모았다.

한편, 조계종 대표단은 간다라문명의 발상지인 탁실라, 페르시아, 탁트히바이 등을 돌며 불교유적을 참배했다. 이어 마라난타 스님의 출생지로 알려진 초타라호르에서 기념식수와 명판 제막식을 진행한 뒤 11월 24일 귀국했다.

〈관련기사 A5〉

불교방송 사장 후보 이선재·김종천 추천

진흥원 15일 최종 후보 의결
29일 불교방송 이사회서 선출



이선재



김종천

BBS불교방송 신임 사장 후보로 이선재 前 KBS 보도본부장과 김종천 BBS불교방송 경영기획국장이 추천됐다.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 이하 불교진흥원)는 11월 15일 1, 2차 서류심사에서 선정된 5명 후보자에 대한 면접 심사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선재 前 본부장과 김종천 국장을 최종 후보로 추천했다.

의결 직후 불교진흥원은 최종 추천 후보 2명을 (재)불교방송(이사장 종하)에 공문을 통해 통보했다.

복수 후보로 추천된 이선재 前 본부장은 1958년생으로 성균관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에서 언론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6년 KBS 보도국 기자를 시작으로 정치외교부장, 워싱턴 특파원,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KBS미디어 대표이사 등 KBS의 주요 요직에서 활약했다. 이 같은 공로로 한국방우회 바른말 보도상(1993년), 한국 참언론인 대상(2012년), 자랑스런 한양언론인상(2016년) 등을 수상했다. 현재는 서울대 언론정보대학원 산학협력교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시청자협의회 위원, 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 강사, 청주대 신문방송학과 객원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함께 추천된 김종천 국장은 1961년생으로 영남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불교방송에서 계속 봉직해온 내부 인사다. 1990년 불교방송 보도국 기자를 시작으로 부산불교방송 보도팀장, 대구불교방송 방송부장·총괄국장 등을 거쳐 불교방송 경영기획실장, 경영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불교방송 경영기획국장으로 재직 중이다. 제9회 보리방송문화상 불교방송부문 기획상(2009년)을 수상하기도 했다.

앞서 불교진흥원은 지난 6월 19일 불교방송 차기 사장으로 선상진 前 불교방송 사장과 최윤희 라디오제작국장을 복수추천했다. 하지만, 사장 추천 절차에 대한 공개 공모 여부가 논란이 됐고 결국 선 前 사장과 최 국장은 후보에서 사퇴했다.

이후 불교진흥원은 지난 8월 23일 이사회에서 차기 사장을 공개 공모하기로 결정하고, 공모를 진행해 16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불교방송을 이끌 차기 사장은 오는 11월 29일 불교방송 재단 이사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본사주지協 신임회장 정묵 스님

19일 회의서 만장일치로 종단 현안 등 보고 받아



덕숭총림 수덕사 주지 정묵 스님〈사진〉이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원경)는 11월 19일 해남 대흥사에서 제65차 회의를 열고 오는 12월 임기가 만료되는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의 후임으로 정묵 스님을 만장일치로 차기 회장에 선출했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신임 회장 정묵 스님은 법장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선본사, 호압사 주지와 제12·13·14·15대 중앙종회의원과 수석부의장을 역임했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1년이다.

이와 함께 조계종 집행부는 '승려복지법 개정'과 '승가교육 개편' 등을 협의회에 보고했다. 승려복지회는 지난 11월 6일 중앙종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승려복지법 개정안을 설명했다. 승려복지법 개정안은 승려복지 수혜대상이 되는 모든 스님들이 본인기본부담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미 국가복지제도나 이웃종교의 복지정책이 개인의 부담금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승려복지제도의 본인부담금은 앞서 여러 차례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내년 7월부터 구족계 수계 5년 이하인 스님에게는 월 5천원, 수계 6년 이상인 스님에게는 월 1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늘어나는 재원을 바탕으로 더 많은 스님들에게 양질의 복지혜택을 제공한다는 게 승려복지회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승려복지회는 기존 7인 이내로 구성하던 승려복지회를 11인 이내로 확대한다. 개정된 승려복지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교육원은 출가자 감소 등에 따른 기본교육기관 개편과 교과과정 개편 관련 여론 수렴 등 현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66차 회의는 내년 1월 21일 오후 1시 봉선사에서 열린다. 신성민 기자

승가교육 발전위해 머리 맞대다

조계종 교육원, 교육교역자 순회 간담회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사찰 승가대학을 기본교육기관으로 하고 동국대·중앙승가대·기본선원은 전문과정으로 변화했으면 합니다."

"현재 표준교육과정 34과목은 너무 많습니다. 명확한 기준을 선정해 과목 조정이 필요합니다."

조계종 승가교육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와 개선 방안에 대한 교역자 스님들의 제언들이 쏟아졌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진우)은 11월 13·15·18일 세 차례에 걸쳐 '교육기관 교육교역자 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권역별로 나눠 송광사, 봉녕사, 동화사에서 진행된 이번 순회 간담회는 제8대 교육원장 진우 스님의 첫 공식 행보로, "현장 의견을 수렴해 향후 승가교육 지표를 만들겠다"는 진우 스님의 운영 목표가 반영됐다.

세 차례에 걸친 간담회에서 승가대학·대학원 상주 교수들은 다양한 제언들을 내놨다. 교과목 부문에서는 교과목 수가 필요 이상으로 많으며, 6·7대 이후 조정된 교재의 한글화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13·15·18일 권역별로 진행
교육현장 목소리 수렴 목적
각양각색 비판·제언 쏟아져
의견 바탕해 교육 방향 설정

비구니 승가대학의 한 교수 스님은 "사찰 승가대학 과목이 34과목으로 정착된 것은 중앙승가대와 동국대의 커리큘럼을 따르다 보니 생긴 일로 알고 있다. 전통 강원에서는 전체 과목을 줄여나가고, 그에 맞는 시험제도가 뒤따라야 한다. 중앙승가대, 동국대는 기본 과정 부문에서는 별도로 생각해야 한다"면서 "한문은 없애야 될 것이 아니라 융합해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계종 교육원은 11월 13·15·18일 세 차례에 걸쳐 '교육기관 교육교역자 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조계종 교육원

조계종 승가교육 현안인 교육기관 조정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종단 기본교육기관을 사찰승가대학으로 단일화하고 중앙승가대·동국대·기본선원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교육 체계가 완전히 다른 전통 강원과 일반 4년제 대학을 하나로 묶은 것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도 나왔다.

한 비구니 교수 스님은 "중앙승가대를 졸업하면 학위와 자격증을 받는데 전통강원인 사찰승가대학을 졸업하면 아무것도 없다. 누가 고생하며 사찰승가대학에서 수학하겠는가"라며 "교육목표가 완전히 다른 전통강원과 중앙승가대, 동국대, 기본선원을 한 테두리 안에 가둬놨다는 것이 문제다. 교육원의 기본교육에 대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승가교육 내용과 기관 개편을 논의할 때에 '출가자 양성'이라는 특수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총림 승가대학의 교수 스님은 "승가교육 내용·기관 개편을 이야기할 때 보편성보다는 특수성에 무게를 뒀으면 한다. 승가교육기관은 단순히 교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출가자에게 가장 중요한 예법, 습의 등을 교육하고, 올바른 수행관을 심어주는 곳이기 때문"이라며 "기본교육기간은 수행자를 양성하는 최소한의 기간이라고 바라봤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교육교역자 정년제와 연구성과물 제도 폐지, 행정 서류 간소화 등의 의견들도 제기 됐다.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간담회 현장에서 기초 교리에 충실한 승가교육을 추진하고 바른 승가상 정립에 힘쓸 것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우 스님은 "종단의 승가상이 바로 서고, 스님들이 국민들에게 존경심을 받도록 위상을 갖춰간다면 출가자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며 "이는 교육원뿐만 아니라 전 종단이 함께 이뤄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한마음선원은 11월 17일 안양본원에서 2019합동수계식을 개최했다. 수계식에 참여한 어린이 불자가 연비를 받고 있다.

5000여 불자 한마음선원 신도로 거듭나

11월 17일 안양본원서 합동수계법회 봉행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은 11월 17일 안양본원에서 2019년 합동수계식을 봉행했다. 이번 수계식에는 안양본원을 비롯해 국내 15개 지원에서 대중들이 운집했으며, 4395명이 연비, 362명이 새로 계를 받는 등 5000여 명이 불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다짐했다.

이날 수계식에서 손은지 씨는 수계자를 대표해 "탐진치 삼독심을 녹이고 생사의 수레바퀴를 벗어나 자유인이 되기를 발원한다. 우리가 몸 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더불어 함께 진리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이사장 혜수 스님은 수계자들을 대표한 진주지원 정종수 씨에게 수계첩을 전달했다.

혜수 스님은 "해마다 계를 받지만 사실 이런 계행의 실천은 생활 속에 있다. 큰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늘 마음을 맡기고 생명을 존중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청정한 계행을 지켜나가자. 또한 항상 오계를 잘 지키는지 살펴 마음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오늘 연비를 받은 만큼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며 정진해가자"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진 대폭 교체

제324차 이사회서 이사 선임
돈관 스님·정충래 이사 유임
정문·현문·원명·성월 스님 선출
경주캠총추위 규정 개정 승인도


돈관 스님


정문 스님


현문 스님


원명 스님


성월 스님

동국대 신임 이사로 돈관·정문·현문·원명·성월 스님이 선출됐다. 개방형 이사로는 정충래 前 영석고 교장이 유임됐다.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법산)는 11월 20일 학내 로터스홀에서 제324차 이사회를 열고 △경주부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규정 개정 승인 △2019회계연도 동대부영석고 추가경정예산 승인 △임원 선임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이사회는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에서 복수추천돼 중앙종회의 동의를 거쳐 올라온 이사 후보에 대해 논의를 거쳐 선출했다. 오는 12월 7일 임기가 만료되는 돈관 스님의 후임으로는 돈관(은해사 주지) 스님이 유임됐다. 12월 19일 임기만료되는 성타 스님의 후임에는 정문(중앙종회의원) 스님이 선출됐다.

내년 2월 17일 임기가 만료되는 현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의 후임으로는 현문(통도사 주지) 스님이, 정념 스님의 후임에는 원명(봉은사 주지) 스님이, 성효 스님의 후임 이사 후보로는 성월(前 용주사 주지) 스님이 각각 선출됐다. 다만, 일관 스님의 후임은 이사 후보가 추천되지 않아 선출되지 못했다.

개방형 이사로는 정충래 前 영석고 교장이, 감사 호산 스님의 후임으로는 호산 스님이 각각 유임됐다.

이와 함께 동국대 이사회는 내년 2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대원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의 후임 선출 위한 총장추천위원회 규정 개정을 승인했다. 신성민 기자

태고종 중앙·지방종회의원 총선거 실시

태고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20일 제15대 중앙종회의원 및 지방종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거를 실시했다.

이날 총선거는 태고종 본산급 사찰을 포함한 교구종무원 30개 선거구와 5개 직능단체를 합친 전체 35개 선거구 중 31개 선거구에서 실시됐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21일 회의를 열고 각 후보자 자격심사를 거쳐 중앙종회의원 정족수 61석 중 중앙종회의원 50석과 각 선거구별 지방종회의원에 대한 당선 확정을 결정했다. 선거를 실시한 31개 선거구는 26개 교구와 5개 직능직단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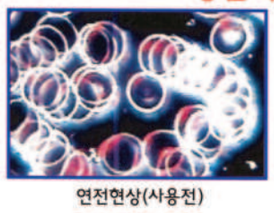
태고종 중앙선거관리위 측은 "제15대 총선거가 종료됨에 따라 종단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안정에 큰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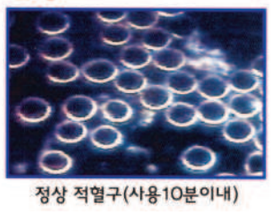
일상 속에서 조석으로 써야하는 필수생필품인 비누(BLOOD MATE®), 치약(ORAL MATE®)

원래의 세정목적 외에 별도의 추가 부담없이
대장균(식중독균), 포도상구균(화농성세균) 99.9% 정균 감소 가능과 탈취 75%,
음이온 134cc, 원적외선방사 90.2% 의 기능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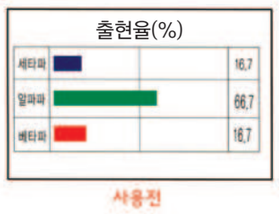
BLOOD MATE®(비누)는 아토피, 무좀, 비듬, 발뒷굼치각질, 체취 등 각종 피부질환을 없애주고, 특히 연전현상의 엉켜있는 적혈구가 정상화되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므로 허리, 목, 어깨의 통증을 개선하는 효과

생혈액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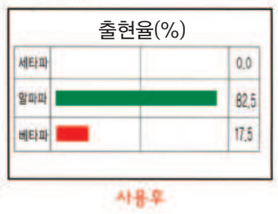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탈모예방


사용전

발모촉진


사용6개월 후

검버섯


사용전

제거 현상


사용6개월 후

BLOOD MATE® ●강비누:120g 개당 25,000원 ●순비누:120g 개당 10,000원

ORAL MATE®(치약)는 지구상에 살고있는 모든 사람들은 양치후 뱉어내고 구강건강을 위해 별도로 잇몸을 관리하고 있으나
ORAL MATE®(치약)는 양치후 뱉어내지 않고 먹으면 식중독, 배탈, 설사가 없으며
과식, 과음으로 속이 불편할때 양치후 먹으면 빨리 속이 편안해지고 술이 깨면서 정신이 맑아지며
특히 구강건강 (잇몸 붓는것, 피나는것, 아픈것, 이시린것 등) 은 기본이고 잇몸이 튼튼하고 치태가 끼지 않고 구취가 없으며 하루종일 입안이 개운합니다.

위와같이 BLOOD MATE®, ORAL MATE®가 별도의 추가 부담없이 공산품인 세정용 비누가 피부, 세포를 건강하게,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한다.
의약외품인 치약이 배탈, 설사, 식중독이 없어지고 구강건강을 지켜준다면
이는 식약처가 과대, 과잉광고로 단속을 하여 생산활동을 막을것이 아니라 진위를 확인하여 오히려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적극지원, 보호, 육성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요 국가 산업발전, 해외수출 등 국익에 도움이 되는 길일 것입니다.

ORAL MATE® 치약 120g 할인가 개당 15,000원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불광사 갈등에 일요법회도 멈췄다

광덕 스님 유지인 일요법회 갈등으로 45년 만에 중단

주지 진효 스님 중단의사 표명
일부 신도, 법회 방해 목탁 시위
신도간 고성 · 몸싸움까지도 발생
자체 법회 예고, 갈등 지속될 듯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11월 17일 불광사 일요법회서 주지 진효 스님이 법석에 오르자 목탁시위를 하는 일부 신도들의 모습. 제보영상 캡쳐.

불광사 불광법회가 혼란에 빠지며 광덕 스님이 선구적으로 개창한 불광사 일요법회가 45년 만에 중단돼 충격을 주고 있다.

불광사 주지 진효 스님은 11월 17일 일요법회서 "일부 신도들의 조직적인 법회 방해로 일요법회를 멈출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불광사는 최근 박홍우 신도회장을 비롯한 불광사 일부 신도들이 법회마다 고성과 목탁을 치는 시위를 벌여 정상적인 법회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외부 법사 초빙 법회에서도 목탁시위 등으로 법회가 중단됐다.

불광사 일요법회는 1974년 광덕 스님과 재가불자들의 원력이 모여 창립된 한국불교 신행운동의 상징이었다. 매주 일요일이면 1000여 명이 넘는 불자들이 찾고, 법문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행사 등도 함께 진행돼 호평을 받아왔다.

이런 불광사 일요법회는 불광사 갈등 촉발 이후 파행됐다. 일부 신도는 법사 스님이 법석에 오르면 '마하반야바라밀' 을 외치고 목탁을 치는가 하면 한켠에서는 법사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싶다는 피켓을 들었다.

법문을 거부하는 신도들과 법문을 듣고 싶다는 신도들의 고성이 시작됐고 몸싸움도 진행됐다.

주지 진효 스님은 불광사 일요법회 파행 후 11월 18일 신도들에게 전체 문자를 돌리며 "법회 위의 유지와 신도 안전을 위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분간 일요법회를 중단한다. 나머지 기도법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며 일요법회 정상화를 위해 마음을 모아 달라"고 공지했다.

불광사 정상화를 위한 비대위(위원장 한영욱, 이하 불광비대위)는 "불광사 일요법회 중단을 촉발한 법석 방해 목탁시위 등은 박홍우 법회장을 중심으로 한 일부 명등과 정법수회위원회 측에서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비대위는 이날 법회에서 특히 주지 진효 스님이 지난 10월 13일 광덕문도회에서 결정된 '명등회의 불광회칙 및 운영규정 개정 무효' 와 '지정 스님의 창건주 권한 유지' 를 밝히려 해 격렬한 법회 방해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지속적으로 정상적인 법회를 요구하는 신도들과 목탁시위를 벌이는 신도들의 충돌이 예상돼 사찰 측에서는 불가피하게 법회 중단을 선언할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불광비대위 측은 "수많은 신도들은 법회에 왔다가 실망과 분노를 안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며 "도심 포교 1번지였던 불광사 불광법회가 박홍우 신도회장의 야욕에 의한 파행으로 폐쇄되게 됐다"고 비판했다.

또 불광비대위 측은 "사찰 안정화를 위한 신도회장 퇴진운동도 전개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홍우 신도회장을 비롯한 정법수호위 측은 "재정투명화를 위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보시 거부, 법문 거부 등을 밝힌 상태"라며 "이미 법문은 광덕 스님 영상법문 대체를 밝힌 바 있다. 재정공개를 이행하지 않는 주지 스님 측에서 일요법회 중단을 선언해도 보광당에서 일요법회를 이어갈 것" 이라고 말했다.

"한국군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참회합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 14~17일 현장 방문 기도회

하미 · 퐁니 마을서 참회 기도
"진상규명 · 정부 사과 이뤄져야"



퐁니, 퐁넛 마을 추모비에서 이뤄진 베트남 전쟁 한국군에 의한 희생자 추모 기도회에서 사회노동위원 스님들이 피해 생존자에게 참회의 절을 올리고 있다.

한국불교계가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해 집단 희생된 마을 현장에서 참회기도회를 열고 집단 학살에 대한 참회와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는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한국군에 의해 집단 희생된 하미 · 퐁니 퐁넛 마을을 직접 방문해 참회와 극락왕생 발원 순례기도회를 봉행했다. 이번 순례기도회에는 위원장 혜찬 스님을 비롯해 위원 혜문 · 법상 · 대각 · 인우 · 현성 스님 등이 함께했다.

다낭 관음사에서의 기도회를 시작으로 사회노동위원회는 하미, 퐁니, 퐁넛 마을 학살 현장을 찾아 참회의 기도를 올렸다.

특히 퐁니, 퐁넛 마을 추모비 앞에서 이뤄진 기도회에서는 피해 여성인 응우옌티안 씨의 증언이 이뤄졌다.

당시 8살이었던 응우옌티안 씨는 "당시를 생생히 기억한다. 어머니, 언니, 동생과 친척이 모두 죽어서 남의 집 일을 도와주며 고아로 살았다"면서 "바라는 것은 학살을 인정하고 미안하다는 소리 한 마디만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전에는 한국 사람을 만나는 것이 무서웠다. 그래도 멀리서 찾아와 기도를 올려주는 스님들이 고맙고 감사하다. 한국정부가 이 같은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도록 스님들이 도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혜찬 스님은 "한국은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에 강력히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희생자에 대해서도 진상 규명과 진심어린 사죄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사회노동위원회는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희생 양민에 대한 추모와 정부의 진심어린 사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세살나눔 여든까지' 어린이 나눔 교육 눈길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원행)은 최근 재단운영 어린이집의 원아들이 직접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해서 완성한 나눔 저금통을 전달받았다. 원아들은 학부모들과 함께 수개월간 난치병 환아들과 소외계층 자녀들을 위해 용돈을 모았다. 이날 저금통에 담겨 전달된 모연금은 약 200만원이다.

뜻깊은 모연금을 전달받은 복지재단은 "하나하나만 보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작은 마음이 모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그만큼 우리 사회도 따뜻해지고 있다. 나누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일상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나눔에 함께한 어린이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복지재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눔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어린이들의 마음을 담은 동전은 난치병 어린이들을 위한 치료지원 등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불교적 자살예방' 어떻게 할까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종교별 지침서 발간해

자살예방 사상적 바탕 및 현장 예방프로그램 등 소개
전국사찰 배포, 비치 예정



불교상담개발원 등 불교계가 참여하는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한국종교인평화회의(대표회장 김희중)와 함께 11월 14일 한국 기독교회관에서 '종교계 자살예방 지침서' 〈사진〉 출간 기념식을 개최했다.

'종교계 자살예방 지침서' 는 생명존중정책 민관 협의회 종교계 부문 공동사업의 하나로 협의회는 복지부, 종교인평화회의와 협력하여 1월부터 종교계 자살예방 실천을 위한 지침서 발간을 준비해 왔다. 이번 지침서 발간에는 불교계를 비롯해 이웃종교계와 정부, 언론계, 재계, 노동계, 전문가, 협력기관 등 7개 부문 44개 기관이 참여했다.

불교계서는 이범수 동국대 불교대학원 생사문화산업학과 교수, 신성현 동국대 불교대학원장 등이 참여했다.

구체적으로 불교계 자살예방 지침서를 살펴보면 1장에서는 '왜 자살예방에 나서야 하는가' 에 대한 사상적 바탕을 담고 있으며 '불교 생명사상과 공업중생' , '불교에서 본 자살의 원인과 과보' 등을 설명한다.

2장에서는 불교계 자살예방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불교상담개발원과 산하 상담기관인 (사)자비의전화 사례를 중심으로 '자살예방 교육과정' 안내 및 불교계 활동을 소개한다. 불교계 단체들이 함께 펼친 '살사토크 콘서트' , '성주 자비생명숲길 조성' , '자살예방강좌' , '자살예방거점확대사업' , '자살예방종교인 선언대회' 등을 안내하고 참여 가능한 방법도 함께 전한다.

이와 함께 MBSR(마음챙김스트레스 감소법)과 같은 현장 자살예방 실무자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자살예방 프로그램도 안내한다.

아울러 3장에서는 MSC(자기자비명상)을 바탕으로 한 자살자 유가족 치유 프로그램도 소개하고 있다.

민관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불교상담개발원은 " '종교계 자살예방 지침서' 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며 "불교계 또한 이번 발간된 지침서를 조계종 총무원을 통해 전국 교구본사와 자살률이 높은 충남, 충북, 전북, 강원의 사찰을 우선으로 배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본지 '뉴미디어' 기획 불기협 기자상 기획해설부문 수상

선원빈상 BTN '포교, 꽃 피우다'
보도부문 법보 '세계유산관리법'
오는 12월 2일 불기협 밤서 시상



본지 뉴미디어 기획 기사 사진

본지 창간특집 기획 '불교언론 & 뉴미디어' 가 한국불교기자상 기획해설부문을 수상했다.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김현태)는 11월 18일 심사위원회(위원장 차차석) 회의를 열고 2019년 한국불교기사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한국불교기자상 기획해설부문에 본지 신성민 · 노덕현 기자의 '불교언론 & 뉴미디어' 를 선정했다.

대상인 선원빈기자상에는 BTN불교TV 정준호 기자의 '포교, 부처님 법 꽃을 피우다' 가, 취재보도부문에는 법보신문 최호승 기자의 '불교 자주성 박탈 세계유산관리법' 이 각각 수상했다.

불교계 언론의 뉴미디어 진출 현황과 모범 사례를 조사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살핀 '불교언론 & 뉴미디어' 는 불법 홍포를 위한 불교 미디어가 현재의 미디어 혁명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심사위원회는 "뉴미디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불교계 언론의 고민을 현장의 목소리로 잘 담아냈다"고 평가했다.

한편, 한국불교기자상 시상식과 혜총장학금 수여식은 오는 12월 2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종로 르메이에르 더부페에서 열린다.

박재완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20년도 남경 의대(중의학)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어학단기반

모집
•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WTO 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군입대 연기 가능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학자금 대출 가능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9년 11월 29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돈암동 83-2)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 (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 (돈암동 83-2)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2020 어린이청소년 포교 기상도 '맑음'

조계종 어린이 · 청소년위원회 11월 19일 회의서 계획 공개

5기 위원 위촉 함께 열려
미래포교 종책개발 박차
전국조직 네트워크 확대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이 어린이청소년 위원회와 일선 어린이청소년 포교단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인삿말을 하고 있다.

어린이청소년 포교단체들이 2020년 사업계획을 공개했다. 조계종 포교원은 11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종회분과회의실에서 5기 어린이청소년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0년 어린이 청소년 포교단체들의 신년 사업계획을 보고 받았다.

파라미타, '사찰 연계' 주력

먼저 불교계 대표 청소년단체인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는 사찰 연합활동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전국연합캠프를 비롯해 사찰연합법회, 청소년문화지킴이, 국제교류협력활동, 한일불교교류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단체들의 학교내 활동 규제를 골자로 한 교육정책에 대응해 간다는 계획이다.

전국연합캠프의 경우 17개 지역에서 800여 명을 유치하며, 서울경인에서 10곳 이상 사찰이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전국사경공모전과 청소년 음악놀이 페스티벌, 전국청소년전통등 공모전 등 전국 규모의 청소년 행사를 개최한다.

동련, '모바일 · 온라인' 활용

어린이단체인 '동련'은 어린이청소년 법회 교육자료 지원 및 지역포교를 위한 지도자 네트워크 강화에 나선다. 특히 모바일 시대를 맞아 연꽃지도안 동련지의 모바일 제작 및 밴드 활용 보급을 하며, 인욕 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를 통해 여름불교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어린이용 명상 프로그램 개발에도 나선다.

또 교육당국의 국제포상제 운영에 맞춰 자기도전, 국제포상 탐험활동을 전국 단위로 연합개최하고 포상담당관 교육도 연 2회 이상 진행한다. 아울러 대한불교교사대학의 온라인 운영을 통해 재입학생 10명을 증가시킨다는 계획이다.

불레협, '문화사업' 진행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는 문화사업을 통한 문화 포교를 진행한다. 6곡 이상 신곡 율동 개발 및 보급을 진행하며 율동리더 15인 이상을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도자를 15곳 이상에 파견하고 전국어린이등공모전을 통해 등 150점 이상을 공모 받는다.

불교레크리에이션 전문지도자 과정을 활성화해 전문지도자 연간 60명을 누적배출하고 찾아가는 강습회도 진행한다.

좋은벗풍경소리, 50집 기념활동

창작 찬불동요 제작단체인 좋은벗 풍경소리는 어린이 청소년 법회 및 연수회에서 풍경소리 음반 보시를 통한 찬불가 보급에 박차를 가한다. 먼저 그동안 펴낸 풍경소리가 50집을 맞음에 따라 이를 기념한 대중가수 위주 기념 불교음악회를 연내 개최할 예정이다. 그동안 펴낸 찬불가 중 인기가 많은 곡을 중심으로 베스트앨범을 낼 계획이다. 찬불가와 찬불교재는 CD뿐만 아니라 USB로 제작해 다른 불교계 어린이 청소년 포교단체와 협조해 배포할 계획이다.

스카우트불교연맹, 전국조직 확대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은 조직확장에 나선다. 15개 지구연합회를 조직하고 각 조직별 거점사찰을 지정한다. 특히 유능한 지도자를 개발하기 위해 학인 스님을 대상으로 지도자 훈련을 실시한다. 재가지도자의 경우 학부모와 종무원, 포교사, 국제포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대만, 홍콩 태국의 외국 참가자들과 지속적인 국제 우의를 다져갈 계획이다.

한편, 조계종 어린이청소년위원회는 어린이청소년 전법을 위한 종책 개발과 각급 어린이청소년 단체 지원 등을 총괄하는 위원회다. 어린이청소년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포교부장 가섭 스님, 파라미타협회장 지현 스님, 불교스카우트연맹장 성행 스님, 사단법인 동련 이사장 신공 스님,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회장 혜장 스님 등 어린이청소년단체장들과 중앙종회의원 정현, 인오 스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 전에는 위원장 가섭 스님과 사무처장 무일 스님을 비롯해 위원 지현, 정현, 성행, 신공, 인오, 혜장 스님 등 총 8명으로 5기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촉식도 개최됐다.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포교 현장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정으로 임해주는 분들에게 감사하다. 종책 개발과 지원을 위한 어린이청소년위원회 활동을 통해 보다 다양한 미래불교 포교와 전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음으로 하나 된 부산 '여덟 송이 노래 꽃 피었네'

불도 부산에서 아름다운 화음으로 부처님의 공덕과 가르침을 찬탄하는 합창단들이 한 자리에 모여 노래 꽃을 피웠다.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회장 정임숙)은 11월 18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2019 부산불교합창제 여덟 송이 노래 꽃이 피었네'를 개최했다.

합창제에는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경선 스님, 상임부회장 진광 스님, 상임부회장 자관 스님, 박미지 전국불교합창단연합회 회장, 정임숙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회장 등 사부대중 800여 명이 동참했다.

합창제는 1부 개회식에서 환영사, 치사, 격려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2부 공연에서는 혜원정사합창단, 금강암합창단, 내원정사합창단, 부산불교연합합창단, 대원선재 해련합창단, 대광명사합창단, 영주암합창단이 무대에서 찬불가와 자유곡으로 아름다운 화음을 선사했다. 또 불교TV BTN남성중창단이 멋진 공연을 보여줘 박수를 받았다.

정임숙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회장은 "이번 합창제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팔정도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불자들의 신심을 담아 부처님 전에 올리는 음성 공양이다"며 "저희 합창단은 찬불합창을 통해 널리 포교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경선 스님은 "여덟 송이 노래꽃을 주제로 우리에게 환희심을 줘 감사하다"며 "꽃다운 단원들이 무대를 장엄한 멋진 공연이 자랑스럽고 허공계를 장엄하는 거룩한 불사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11월 21일 불교작가 네트워크에 참여한 작가와 스님들이 '사바하'를 외치고 있다.

"'신과 함께' 같은 명 콘텐츠 함께 만들어요"

조계종 포교원, 불교작가 네트워크 구성 박차

"우리 함께 파이팅 해볼까요?" "파이팅 말고 우리 힘내자는 '사바하' 합시다. 사바하는 불교에서 파이팅과 같은 의미에요. 비록 영화제목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말이죠."

그동안 잘못 알려져 왔던 불교 상식을 작가들에게 전하고 새로운 불교 관련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한 자리가 열렸다. 조계종 포교원은 11월 21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모임공간 다락방구구에서 작가 네트워크 파티를 개최했다.

이번 네트워크 파티는 조계종 포교원이 2018년부터 진행해 온 작가 템플스테이와 뉴미디어 사업을 통해 관계 맺은 작가들과의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평일 오후 임에도 이날 자리에는 사전에 신청한 작가 6명이 참여해 함께 작품활동에 대한 이야기와 불교 소재에 대한 아이디어 공유 등을 진행했다.

행사에 참여한 노명희 여성만화가협회장은 "지난 작가 템플스테이에서 그동안 불교적 소재라고 알려진 많은 콘텐츠들이 사실 불교내용을 잘못 알리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 일반인들도 관심을 가질 만한 불교 소재를 개발해 독특한 작품활동을 펼쳐보고 싶다"고 기대를 표했다.

KBS드라마 작가로도 활동 중인 조용득 작가는 "신과 함께의 경우 불교내용을 가지고 흥미롭게 각색하여 큰 인기를 모았다. 현재 귀신과 관련된 소재를 모으고 있는데,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친밀감을 되살려 재미있으면서도 가슴에 남을 수 있는 작품을 쓰고 싶다. 스님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먼저 최근 힐링멘토로 떠오르고 있는 도연 스님 주도하에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통찰력을 키우는 마음챙김 명상이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됐으며, 이후 2부에서 현주스님의 진행 하에 2시간 가량 자유로운 대화로 '불교 신앙'에 대한 Q&A토크가 이어졌다.

노덕현 기자

군승의날 51주년 기념 법회 개최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11월 28일 용산 전쟁기념관서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선묵 혜자)는 11월 28일 오후 6시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에서 군승파송 51주년 군승의날 기념법회를 개최한다.

이날 기념법회서에는 조계종 주요 스님과 현역 및 예비역 군승 등 불자 1200여 명이 참석한다. 또 군포교에 공적이 있는 군승과 단체에 총무원장상과 포교원장상, 군종교구장상 등이 수여된다. 법회에 앞서 국방부 원광사에서는 군승포살과 순직군승 추모재, 군승회의 등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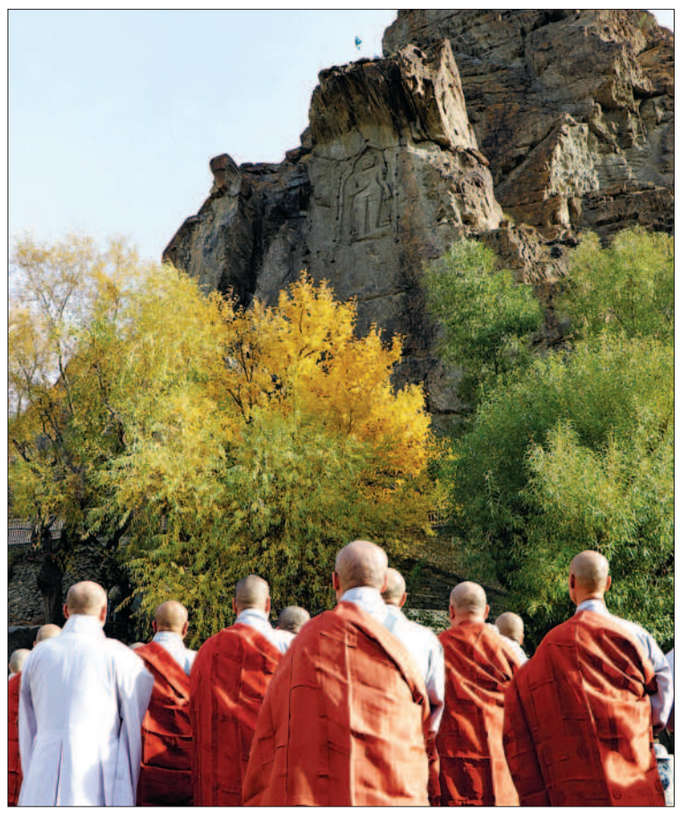
군종특별교구는 "추운 겨울 군부대에서 활약하는 군승법사들을 격려하고 새로운 포교의 기치를 세우는 자리다. 많은 불자들의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군종특별교구는 12월 5일 12시 국방부 원광사에서 장군진급 불자 고불식 및 축하 만찬을 개최한다. 군종특별교구는 매년 장군으로 진급한 이들에게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이 하사한 장군 지휘봉과 교구장 선묵 혜자 스님이 준비한 '평화의불 수놓다' 서적 등을 전달하며 활발한 군포교를 당부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대표단은 11월 17일 파키스탄 방문 첫 일정으로 라호르박물관을 방문 · 관람했다. 이곳에서 대표단은 간다라 미술의 결정체인 싯다르타 고행상을 참배하고 순례 입재식을 봉행했다.



길기트발티스탄주로 이동한 조계종 대표단은 8세기경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마애불 '카르가(Kargah) 붓다'를 참배했다.

"아! 부처님"… 고행상 앞 韓스님들 '환희'

조계종 대표단, 파키스탄 라호르 · 길기트 불교유적 순례

파키스탄=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파키스탄 라호르박물관 간다라갤러리에 한국 스님들의 감탄사가 울려 퍼졌다. "아… 부처님!" 고행상 앞에 선 스님들은 벅차오르는 심정을 외마디로 대신했다. 더 이상 말이 필요치 않은 자리. 선종의 '염화미소'를 빌려 표현하자면, 고행상 싯다르타가 2500여 년이 지나 자신을 찾아온 제자들에게 용맹정진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는 느낌이다.

파키스탄 정부 초청을 받아 라호르에 도착한 조계종 대표단은 11월 17일 가장 먼저 라호르박물관을 찾았다. 이곳에는 고타마 싯다르타가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으로 거듭나기 전, 6년간의 고행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고행상'이 소장돼 있다.

고행상은 간다라미술을 대표하는 걸작이자 불교사와 불교미술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성보로 여겨진다. 특히 2세기경 쿠샨왕조의 전성기인 카니슈카왕 때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행상은 그리스의 헬레니즘이 융합된, 사실주의에 입각한 불상이어서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고행상이 높게 평가받는 이유는 현존하는 불상 중 가장 오래된 것이자 최초의 불상으로 여겨진다는 것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훼손도 없이 오롯하게 보존되고 있어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간다라미술이 발달하기 전, 부처님을 향한 대중의 신심은 인간 형상의 불상이 아닌 족적(足跡)과 탑 등으로 표현됐다. 우상숭배를 우려한 부처님이 열반하면서 자신을 형상화한 조각을 만들지 말라고 강조한 것을 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향한 대중의 열망은 간다라지역에서 헬레니즘이 만나며 인간 형상의 불상으로 나타났다. 이런 고행상은 간다라 지역에서 주로 조성됐으며, 인도의 전통이 짙은 중인도나 남인도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고행상 앞에 선 조계종 대표단.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는 싯다르타의 6년 고행이 눈앞에 펼쳐졌다. 하루에 깨 한 톨을 먹어가며 깨달음을 얻고자 온갖 고통을 참아낸 그 모습이다. 뱃가죽은 등가죽에 달라붙어 모든 갈비뼈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쇄골은 깊이 파여 목을 지탱하는 척추뼈까지 보인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수행자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비친다. 비록 먹지 못해 두 눈두덩이는 움푹 들어가 해골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안광이 빛나는 듯하다. 크진 않지만 굳게 닫은 입술이 깨달음을 향한 처절한 사투를 대변한다.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어진 고행상. 싯다르타는 이렇게 극한의 상황에서도 쓰러지지 않으며 진리를 탐구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격을 뒤로하고, 스님들은 가사 장삼을 수한 채 파키스탄 순례 입재식을 봉행했다. 입재식은 삼귀의와 반야심경 독송, 축원 등 길지 않게 진행됐다. 입재식을 마치고도 스님들은 고행상 앞을 쉬이 떠나지 못했다. 분명 간다라갤러리에는 고행상 외에도 수많은 간다라 불상이 있었지만 두 눈은 오로지 고행상으로 향했다. 감격에 겨워 눈물을 훔치는 스님, 두 눈을 꼭 감고 합장한 채 초발심을 되새기는 스님까지. 라호르박물관에 수행자들의 불심(佛心)이 가득 찼다.



길기트 마을 원로와 조계종 스님들의 만남. 스님들이 쓴 것은 '도비'라는 전통모자다.

라호르박물관 고행상서 입재
조계종 스님들 감탄사 연발
'피골상접'한 간다라 부처님
2500년 뒤 찾아온 제자에게
용맹정진 표상 보여주는 듯

길기트서 '카르가 붓다' 참배
8C경 티베트 왕국 조성 추정
"韓 · 파키스탄 교류 물꼬 트길"



라호르박물관 간다라갤러리의 모습. 이곳은 싯다르타 고행상이 전시돼 있어 유명하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2000년대 초 조계사 순례단과 파키스탄에 한 번 왔었다. 당시에도 고행상을 보고 감명이 깊었다"며 "오랜만에 다시 찾아오니 새삼 경이롭고 감탄스럽다. 간다라미술은 헬레니즘과 불교가 만난 고귀한 문화유산"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하지만 이처럼 불자들에게 소중한 라호르박물관에도 아쉬운 점은 있었다. 바로 유물에 대한 설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간다라갤러리에는 수백여 점의 불교조각이 전시돼 있지만 자세한 설명이 붙은 유물은 소수에 불과하다. 유물이 대략 몇 세기경에 조성됐는지, 크기는 얼마인지 등 최소한의 정보도 적히지 않아 불교유물 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이슬람문화권을 실감케 했다.

라호르박물관 탐방을 마친 대표단은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로 이동, 비행기를 타고 북부 길기트발티스탄주로 건너갔다. 이곳에는 8세기경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마애불 '카르가(Kargah) 붓다'가 있다. 카르가 붓다는 길기트 마을에서 서쪽으로 9.7㎞ 떨어진 2개의 계곡 '카르가'와 '수코가'의 교차점에 위치한다. 이 마애불은 1920년대 영국의 정치학자에 의해 발견돼 세상에 알려졌다. 길기트에는 카르가 붓다 외에도 멀베라닥 지역에서 비슷한 형상의 마애불이 추가로 발견됐다.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넓적한 얼굴과 귀, 큰 입, 투박한 신체 표현 등으로 볼 때 7~9세기 티베트왕국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마애불 주위에는 불상의 보존을 위해 조성한 닫집 흔적이 남아있다.

한동안 마애불을 바라본 원행 스님은 "마라난타 스님을 따라 동양으로 불교 교류가 이어지면서 내세불인 미륵불을 표현한 것 같다"며 "이를 통해 대승불교가 점차 퍼져나갔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표단은 라호르박물관에서와 마찬가지로 카르가 붓다 앞에서도 불교 의례를 올렸다.

우스만 아마드 길기트발티스탄주 관계자는 대표단의 방문을 환영하면서 "원래 마애불 주변은 정리되지 않아 사람들의 출입이 불편했다. 하지만 최근 주변을 정비하면서 관광객들의 편의를 높였다"며 "향후 한국인들이 이곳에 순례를 온다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길기트 지역언론은 이날 대표단의 마애불 참배에 맞춰 동방에서 온 수행자들의 행적을 카메라에 담았다. 이어 스님들을 인터뷰하며 마애불이 갖는 의미와 한국-파키스탄의 교류 가능성 등을 물었다.

이에 원행 스님은 "한국과 파키스탄의 외교가 공고해지고, 불교 교류를 통해 양국이 세계평화에 이바지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문화부장 오심 스님은 "길기트발티스탄주에는 한국에서 볼 수 없는 만년설산이 있기 때문에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좋은 여행지가 될 것 같다"며 "종교적으로도 마애불이 있어 불자들에게 소중한 지역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현회, 제23회 한마음장애인 체육대회


부산 보현회는 11월 16일 광안리 수변공원에서 '제 23회 한마음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23년 동안 장애인을 위해 체육대회를 꾸준하게 열어오고 있는 보현회가 올해는 부산 광안리를 방문하고 걷기대회로 나눔을 실천했다.

부산 보현회(회장 안성이)는 11월 16일 광안리 수변공원에서 '제 23회 한마음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한마음체육대회는 장애인들의 건강을 도모하고 후원으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매년 진행되고 있다. 올해 체육대회는 걷기대회로 진행됐으며 안성이 보현회 회장을 비롯해 회원들과 교사 및 평화의 집, 성우원, 가정이 있는 장애인 등 70여 명이 동참했다.

매년 체육대회를 열어온 보현회는 국가 복지정책에 따라 새로운 방향으로 장애인들과 우정을 쌓고 최초 보현회 설립 목적인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걷기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안성이 회장은 "20년 전에는 체육대회를 통해 장애인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선물을 선사하는 게 서로를 위한 큰 기쁨이었지만 지금은 복지정책으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풍요로워진 것도 사실이다"며 "그래도 나눔과 만남을 멈추기 보단 보현회의 정신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장애인들의 행복을 기원해주고자 오늘 이렇게 걷기대회를 열고 함께 산책을 한다"고 말했다.

보현회는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걷기대회를 위해 점심 공양을 비롯해 후원금 300여 만원을 전달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동곡당 일타 대종사 20주기 추모재



영천 은해사(주지 돈관)는 동곡당 일타 대종사 열반 20주기 다례재를 경내 육화원에서 봉행했다.〈사진〉

이날 다례재에는 동곡문도회 문장 혜국 스님과 은해사 회주 법타 스님, 주지 돈관 스님,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 前 비구니회 회장 육문 스님, 은해사 대중 스님, 이연화 신도회장, 이봉오 선화여고 교장 등 500여 대중이 동참했다.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으로 시작된 다례재에서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은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뀌는 동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신 스님과 신도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큰 스님의 가르침과 수행원력으로 포교와 교육, 가람수호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동곡문도회장 혜국 스님은 "20여 년 동안 해마다 여법하게 마련해준 본사 대중 스님들께 감사하고 은사 스님의 뜻을 받들어 더욱 열심히 수행정진하겠다"고 인사했다.

이어 대중들은 일타 대종사의 생전육성 법문을 경청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보디야나 선원, 제2회 집중명상 수행 성료



보디야나선원(선원장 혜안)은 11월 15~17일 경주 황룡원에서 제2회 집중명상 수련회를 개최했다.〈사진〉

참가자들은 황룡원에 도착하자 '묵언'이란 단어가 적힌 명찰을 받으며 핸드폰을 운영진에게 맡겼다. 운영진들은 숙소에 있는 TV 리모콘을 모두 거뒀으며 외부 자극에서 벗어나 오롯이 명상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했다.

선원장 혜안 스님은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 마음의 한거를 이룰 때 섬세한 호흡에 집중하고 깊은 명상을 경험할 수 있어 외부 모든 자극을 차단하려고 했다"며 "오로지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마음의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디야나선원 집중명상은 예불과 법문, 그룹명상, 걷기명상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80여명이 동참했다. 051)959-0108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범어사 신중도 '환지본처' 하다

신중도 환수봉안식 봉행

제막식 후 헌향 및 헌다 예경
27일까지 보제루서 일반 공개
문화재 지정 신청해 가치 인정
"문화재 환수 위해 적극 노력"



부산 범어사는 11월 20일 경내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범어사 신중도 환수 봉안식'을 봉행했다. 내빈들이 제막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해외로 반출됐던 범어사 극락암 신중도가 본래 자리로 돌아왔다. 내빈들이 가려 둔 하얀 제막 천을 걷어내자 신중도가 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냈고 불자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신중도에 헌다와 헌향으로 공경하며 예경했다.

부산 범어사(주지 경선)는 11월 20일 경내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범어사 신중도 환수 봉안식'을 봉행했다. 환수봉안식에는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을 비롯해 각 국장 소임 스님들과 박수관 범어사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다.

봉안식은 △삼귀의 △반야심경 △경과보고 △인사말씀 △축사 △축가 순으로 진행됐으며 보제루로 자리를 옮긴 대중들은 신중도 제막을 지켜보며 합장했다. 이어 제막 후 범어사 마하다회가 육법공양으로 예경을 올렸으며 주지 경선 스님과 박수관 범어사 신도회장이 본지환처한 신중도에 헌향하고 헌다했다.

범어사 신중도는 11월 27일까지 불자와 일반인이 참배할 수 있도록 보제루에서 공개되며 이후 성보박물관에 봉안된다. 앞으로 범어사는 신중도의 문화재 지정 신청을 진행하고 문화재 지정 후 보존 처리를 거쳐 현재 신축 중인 성보박물관에서 전시 할 예정이다.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은 "범어사는 이번 극락암 신중도 환수를 계기로 현재 도난 되거나 유출 된 범어사와 교구말사 성보들을 온전하게 제 위치로 모셔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관 범어사 신도회장은 "신중도를 범어사에 다시 모시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경외의 대상을 넘어 한국 전통 문화의 보물로 그 가치를 소중히 하고 앞으로도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를 되찾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범어사는 "신중도 환수는 짧은 기간 긴박하게 이뤄졌고 범어사와 조계종 총무원 그리고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긴밀하게 협력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10월 1일 국외 소재 문화재 검토 중 미국 LA 경매시장에 조선후기 신중도 1점이 출품 된 것을 발견, 범어사 극락암 신중도임을 확인했다.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이 해외에 있는 성보를 범어사로 환수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 범어사,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환수추진단을 구성했다. 10월 6일 경매에 참가해 환수했으며 10월 30일 이운을 완료해 11월 5일 환수 공개식을 총무원에서 진행했다.

범어사 신중도는 1891년 화승인 민규 스님이 비단에 조성한 것으로 가로 144.8cm, 세로 146.1cm 크기이다.

신중도는 예적금강과 마리지천, 위태천이 중심에 위치하며 좌우에 천부와 팔부중 호법신을 배치해 안정감이 높고 104위 신중도 형식을 계승한 보기 드문 수작으로 평가 받고 있다. 또 19세기 후반 불화의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는다.

통도사, 문화와 함께하는 화엄세계

입재 11월 27일, 12월 25일까지
결집불사 · 피아노 공연도 진행


양산 통도사는 11월 27일~12월 25일 설법전서 제49회 통도사 화엄산림대법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화엄산림대법회 회향 모습.

국내 최대 화엄산림법회가 열리는 통도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법회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화엄산림 기간에는 문화와 함께하는 시간으로 백건우 피아니스트 초청공연도 진행된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는 11월 27일부터 12월 25일까지 설법전에서 제49회 통도사 화엄산림대법회를 연다.

법회는 오전 11시와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한 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방장 성파 스님의 입재법문으로 시작해 혜남, 용학, 수진, 광우, 법산, 각성, 보광, 동훈, 선행, 산옹, 덕민, 정우, 자광, 돈관, 지현, 반산, 심산, 성우, 양관, 도일, 우진, 인해, 범해, 수불, 종범, 지안, 정념, 선지 스님의 법문 순으로 진행된다. 마지막 회향일에는 오전 10시에 방장 성파 스님의 법문으로 회향된다.

이번 화엄산림법회에는 특별한 순서가 마련된다. 우선 12월 8일 오전 10시에 조계종에서 진행하는 백만원력결집불사에 동참하고 12월 15일 오후에는 백건우 피아니스트의 공연이 이어진다.

백건우 피아니스트는 한국을 대표하는 음악가로 아시아 뿐 아니라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중 한 명이다.

화엄산림법회는 1925년 극락암 경봉스님이 어려운 노인들을 보살피기 위해 만일염불회를 개설한데 이어 1927년 보우 스님, 해담 스님과 함께 극락암 무량수각에서 삼칠일간 법문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경봉 스님은 젊은 날 '종일토록 남의 보배를 세어 봐야 자신의 몫은 반 푼 어치도 없다.'는 〈화엄경〉 구절을 읽고 발심해 참선 수행에 매진했다. 근대 선지식으로 참선 수행을 하며 〈화엄경〉을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인용했고 '화엄'(華嚴)이라는 두 글자를 쓰며 "내 평생 공부가 여기에 담겨있다"라 할 정도로 〈화엄경〉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었다.

경봉 스님은 통도사 백련암, 김해 연화사, 반야사, 밀양 무봉사 등에서 화엄산림과 함께 법화경 산림, 유마경 산림을 개설하고 법회를 진행했지만 현재 화엄산림 법회만 전해지고 있다.

화엄산림법회는 매년 1만여 명의 불자들이 동참하는 법회이며 법회 기간 동안 매주 토요일 저녁 예불 후 이어지는 법성게는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천도의식으로 유명하다. 일요일에는 천도재를 봉행하고 회향일에는 소대의식도 진행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보련기획 BORYEON
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부처님오신날 도량장엄등 설치 • 유지관리

연등 자동승강장치

고정식 연등설치

천불전

인 등

위 패

법당용 연등

공단연등

아크릴한지등
부처님오신날 장엄등

사찰명인쇄 주문접수 중
전선, 전구등 공사자재

www.boryeon.com
010-5381-9355 /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

대장경과 일연 그리고 남해

일연, 고려대장경 조성 핵심적 역할

고려대장경판각성지보존회(회장 김정렬)는 11월 8일 남해 유배문학관 다목적 강당서 '대장경과 일연 그리고 남해'를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학술심포지엄에서는 김봉윤 남해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이 '고려대장경 판각과 일연선사'를 발표하고 일연 선사의 행장을 통해 고려 대장경조성사업의 연관관계를 조명했다. 본지는 학술심포지엄서 발표된 김봉윤 위원의 논문을 발췌·게재한다.

〈편집자 주〉

주제 : 고려대장경 판각과 일연선사

김봉윤 남해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



김봉윤 위원은… 1963년 경남 남해에서 태어나 마산고와 동국대서 수학했으며, 해동불교신문과 남해신문에서 일했다. 그 후 여론조사기관과 정치광고기획사를 운영하였고, 남해군청과 산림청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했다. 현재 고려대장경판각성지보존회 부회장과 남해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 남해안역사문화연구소장으로 지역사 연구와 고려대장경 판각지 복원을 위한 일에 매진하고 있다. 저서로 〈불교로 가는 길〉과 〈팔만대장경과 남해〉가 있다.

일연 선사와 남해

일연 선사(1206~1289)는 경북 장산(경산)에서 출생해 9세에 해양(광주)의 무량사로 가서 수학하다가 14세에 강원도 양양 진전사로 출가해 21세까지 머물렀으며, 22세에서 43세까지 포산(비슬산)의 보당암과 묘문암, 무주암에서 수행한 후 44세부터 56세까지 남해 정림사와 길상암에 주석했다. 56세에 남해를 떠나 강화 선월사, 영일 오어사, 달성 인흥사, 청도 운문사 등에 머물다 78세에 국사(國師)에 책봉되었으며, 79세에 군위 인각사에 주석하다가 그곳에서 84세에 입적했다.

일연 선사는 21년간 비슬산에서 수행, 득도한 후 연이어 12년을 남해에서 활동한다. 이후 강화와 개성 등지에도 잠시 머물지만 대부분 경북 일대에서 수행한다.

어린 시절 수학과 출가 직후 진전사에서의 수행기간을 빼고는 경북 일대에만 머문 일연 선사가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남해에 주석한 사정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주목해야 할 점은 비문의 기록에서 보듯이 당대의 권력실세 중의 한 사람인 정안이 대장경 판각현장으로 초청했다는 사실이다. 그의 생애 중 남해시절이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이 바로 대장경 조성사업과 〈중편조동오위〉의 편찬에 있다.

한민족 문화의 원류를 밝히는 최고의 사서로 추앙받는 〈삼국유사(三國遺事)〉는 '인각사보각국사비문'을 비롯한 어디에도 일연의 저작이라는 기록이 없으며 제5권 신주편의 첫머리에 '국존조계종가지산하인각사주지원경충조대선사일연찬(國尊曹溪宗迦智山下麟角寺住持圓徑冲照大禪師一然撰)'이라는 구절이 있어 일연이 편찬했음을 알 수가 있었다.

'보각국사비문'에는 선사가 100여 권의 저술이 있다고 전하나 실전되어 남아있는 것은 한 권도 없다. 유일하게 일본에서 재간한 〈중편조동오위〉가 발견되어 대사상가 일연의 면모를 좀 더 가깝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 **정안이 일연 남해 판각현장 초청**
> **남해 정림사 · 길상암서 12년 주석**
> **일연과 가지산문 문도 판각 동참**
> **감수 · 인경 · 제책 · 보판 등 담당**

일연 저술 〈중편조동오위〉

〈중편조동오위〉는 일연이 1256년 남해 길상암에서 썼지만 원본이 실전되었고 일본에서 재간한 책의 서문에 편수자의 이름이 회연으로 적혀있어 일연의 저작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게 되었다.

'보각국사비문'에 "국존(國尊)의 휘는 견명(見明)이요, 자는 회연(晦然)이었으나, 뒤에 일연(一然)으로 바꾸었다"고 역명(易名)을 밝혀 놓았다. 일연이 남해에 주석하고 있을 때 남해를 '윤산'으로, 일연을 '회연'으로 불렀다.

〈중편조동오위〉는 혜하가 편집하고, 광휘가 해석을 붙인 〈중집동산편정오위조산간어〉를 보법선사 노겸이 소산(疏山)·말산(末山) 2가(家)의 어결(語訣)을 합편하여 중간하였다. 오자와 탈자가 많아 일연이 재차 간행한 것으로 책명만 전하였다.

〈중편조동오위〉는 1260년 남해에서 출판되어 다음해 일연선사와 함께 강화경(江華京)으로 갔을 것이다. 그 후 〈중편조동오위〉를 포함한 일연 선사의 모든 저술은 사라져 버렸다. 비문의 목록으로만 남아있던 이 서책이 7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난 뒤 교토대학 도서관에서 〈조동오위현결〉이라는 3권의 책으로 발견됐다.

이 책은 견성사(見性寺) 연용(淵龍)의 발미(跋尾)가 있는 1680년 일본 간본으로 원본의 행방은 알 길이 없다. 일본에서 재간되어 일본 조동종의 사상서로 유통되었으나 편수자가 옛 이름인 회연으로 되어있어 일연의 저술임을 몰랐던 것이다.

일본에서 이 책을 구입한 제주도 정방사 혜일 스님의 회고에 따르면 일본 다이쇼대학 유학시절인 1988년 도쿄의 한 고서점에 들렀는데 이 고서점의 주인이 한국 스님의 책이라며 소개했다고 한다. 책의 서문에 "파도가 해동에 미쳤다(波及海東), 그러나 신라에는(然有新羅), 청구에 행한 분들로(行于靑丘者)"라는 구절이 있다. 해동, 신라, 청구 등 우리나라를 뜻하는 내용이 있어 회연이라는 편수자가 한국스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혜일 스님은 1992년에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서울로 가져왔으며 1997년 고향인 제주도로 오면서 〈중편조동오위〉도 함께 오게 되었다.

현재 이 책을 관리하고 있는 제주 반야사 수상 스님은 문화재로 지정받으려 노력했으나 외국에서 출판된 서적이라 지정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 일본에서 간행되었지만 희귀본이고 일연선사의 저술이며 국내 유일본인 이 책의 보존관리를 위해서 조속히 문화재로 지정되기를 바란다.

남해 판각 〈중편조동오위〉

〈중편조동오위〉는 '보각국사비문'에 기록된 저술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책으로, 서문을 보면 이 책의 집필과 출판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감동적인 일연의 육필로 만날 수 있다.

서문을 살펴보면 일연 선사는 평소에 마음먹고 있었지만 어려운 세상을 만나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1256년 여름 윤산 길상암에 머물며 한가로운 여가가 있어서 구본을 정리해 두 권의 책으로 집필하였다. 동료 승려가 원고가 없어질까 걱정하여 나무에 새기자는 간곡한 청이 있어 판각하였으며, 1260년 책을 출판하면서 12월 8일에 봉소헌에서 서문을 썼다.

〈중편조동오위〉는 일연이 서문을 쓴 1260년에 목판으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일연이 남해 정림사에 초청받아 대장경 간행의 막바지 작업에 관여하였으므로 〈중편조동오위〉는 남해분사도감에서 간행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이 때 "대장경 조성은 마무리되었으나 조판시설을 이용한 보유판 판각은 계속되고 있었다"는 주장에서와 같이 일연이 남해에 있던 시기이면서 대장경 조성이 끝난 이후인 1254년에 남해분사도감에서 〈종문척영집〉 〈중첨족본선원청규〉 〈주심부〉 등의 서적을 판각했다.

1260년 분사남해대장도감의 판각 기능을 이용하여 〈중편조동오위〉를 판각하였다는 것은 대장경 판각이 끝난 후 10여 년이 지나도록 남해에서 판각활동을 지속하고 있었다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일연 문도 대장경 판각 참여

대장경 판각사업에 개태사의 승통(僧統) 수기(守其)가 교감책임자로 참여하고 대사(大師)와 같이 승계가 높은 승려들을 포함한 비구(比丘), 사미(沙彌), 산인(山人), 화상(和尙), 도인(道人) 등 승려들의 명칭이 경판에 판각되어 있다. 국가적인 대사업에 화엄종의 균여계열과 의천계열, 수선사계통의 선종, 천태종의 백련사계열, 남해의 정림사와 가지산문의 일연계열을 비롯한 지방 군소사원의 승려들까지 포괄되는 불교계 전반이 체계적으로 참여했다고 한다.

일연선사가 판각사업의 추진 시기에 정안의 원찰인 정림사에 주석하고 있었던 점과 '보각국사비문'에 나오는 인흥사의 선린(禪麟)이 스승인 일연을 따라 남해분사도감에서 판하본 경전을 필사한 인물로 추정된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일연과 가지산문의 문도들이 판각사업에 참여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인각사보각국사비문'의 뒷면에 대선사(大禪師), 선사(禪師), 수좌(首座), 산림(山林), 삼중(三重), 대선(大選), 입선(入選), 참학(參學) 등 법계(法階)순으로 새겨진 일연선사의 문도들과 대장경 경판에 새겨진 각수명단을 대조한 결과 혜여惠如), 조남(祖南), 유장(由莊), 인정(仁正), 양지(良之), 도한(道閑), 지현(智玄), 가홍(可弘), 효대(孝大), 득심(得心), 법기(法奇), 현조(玄照) 등 12명의 승려가 대장경 판각에 각수로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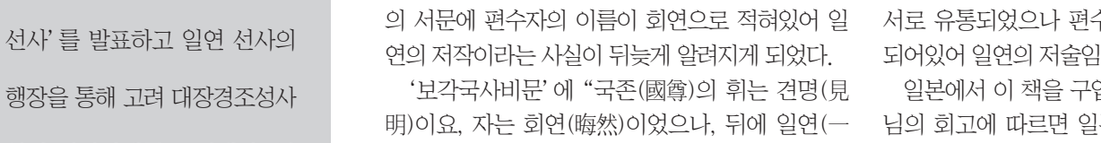
비문의 음기에는 "항상 국존을 따르고 친부(親附)하여 가르침을 얻거나 골수(骨髓)를 얻었거나, 불법을 도운 모든 스님과, 실무를 담당하였던 제자, 아울러 스님의 법유(法乳)를 받은 경(卿)과 사대부 등의 이름을 갖추어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며 164명의 승려들과 39명의 관직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대장경을 판각하던 동시대를 살았던 승려로 대장경 판각지 남해에서 12년을 주석한 일연 선사의 비문에 이름을 올린 문도들이 상당수 대장경 판각사업에 각수로 직접 참여하였음이 확인됨으로써 정안이 일연을 남해로 초대한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

대부분의 각수가 1243년부터 1245년 사이에 판각에 참여하고 있으며, 대장도감판과 분사대장도감판을 함께 판각하였다. 효대는 1238년부터 1248년까지 11년간 306장의 경판을 판각했으며, 득심이 87장, 혜여가 86장, 도한이 61장을 판각하는 등 12명의 일연 문도가 590장의 경판을 판각했다.

일연 선사는 대장경 조성의 마무리 시점에 판각의 현장인 남해로 와서 판각한 경판의 감수, 인경, 제책, 대장경에 빠진 경전의 입장, 보판작업의 진행 등 고려대장경 조성사업에 핵심적 소임을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후기의 뛰어난 학승이자 선승, 걸출한 사상가 일연이 남해에서 12년간이나 머물렀다. 그의 행적을 추적하면 고려대장경 판각의 비밀이 조금씩 벗겨질 것이다.

제 56회 골굴사 청소년 화랑수련회 겨울캠프

원효스님의 열반 성지! 신라 화랑들의 기상이 담긴 선무도 총본산 골굴사에서
청소년들의 인성교육과 심신수련을 위한 제56회 화랑수련회 겨울캠프를 개최합니다.
21세기 새로운 리더를 양성하는 신화랑 캠프!
자연 속에서 공동체 수행생활을 체험하며, 호연지기를 기르고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청소년 화랑수련회와 함께 하세요.



■ **기 간** : **1**월 **5**일(일) ~ **1**월 **18**일(토) 2주 (각 1주간 또는 총 2주간 신청 가능)
■ **대 상** : 초등학생 및 중학생 (각 주차별 60명)
■ **수련회비** : **1주 – 42만원 / 2주 – 84만원 (교재비 포함이며 수련비를 입금하셔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 **계좌안내** : 국민은행 823301-01-476572 (예금주: 대한불교조계종 골굴사)
■ **홈페이지** : www.sunmudo.com
■ **화랑수련회 다음카페** : http://cafe.daum.net/sunmudoschool
■ **예약 및 문의** : **054-775-1689, 744-1689**

2020년 동해 해맞이 템플스테이 접수

호연지기와 인성 함양 프로그램	원어민과 함께하는 캠프	문화 유적지 답사를 통한 현장학습	다양한 놀이 및 체험 학습
· 선무도 수련과 힐링 명상, 승마/국궁 · 나를 찾는 108배, 예절교육(다도 등) · 불교 강의와 발우공양 지도	· 원어민 영어 회화 수업 · 영어로 배우는 선무도 수련 (원어민 사범지도)	· 동경주 유적답사 : 기림사. 감은사지. 문무왕릉. 주상절리	· 전통 과자 및 먹거리 만들기 · 놀이를 통한 마음나누기 · 효도 마사지. 호신술 배우기

본 프로그램은 종교를 초월한 청소년 인성교육을 목표로 합니다

1500년 전통사찰 · 외국인 7천명 이상이 참여하는 템플스테이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골굴사 · 선무도 화랑학교

제 103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중급과정 (6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칭, 관음시식, 구병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개강일** : 2020년 1월 7일
◈ **강의일시** :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5시 ~ 6시 30분(90분) 담임교수 원장직강**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번길 45(낙원동 243-3) 탑공공원 뒷편 ☎ (02)741-0495~6

무문관 수행이 사찰 중흥 이끌다



김경집의
사찰 속 숨은 이야기
㉒ 도봉산 천축사





도봉산 천축사 전경(사진 왼쪽). 무문관 결사 후 중창불사로 현재 모습을 띄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1964년 육영수 여사의 보시로 건립된 무문관의 모습.

큰 절 폐사를 가슴에 품은 천축사

불교인의 영원한 고향은 인도다. 부처님의 탄생과 성도 그리고 교화의 자취가 있기 때문이다. 예전 중국인들은 인도를 천축으로 불렀다. 한국의 스님들 역시 인도를 마음의 고향으로 여겼다. 늘 그곳으로 구법을 가고자 했으나 길이 멀고 험해 생각으로 끝났다. 마음에 연민처럼 아련한 천축! 그곳에 갈 수 없다면 이곳에 세우려 하였다.

도봉산 천축사! 글자 그대로 인도를 상징하고 불교를 상징하는 사찰이다. 천축사의 창건은 신라시대로 추정되지만 사찰의 연혁이 확실하지 않아 사실대로 믿기는 어렵다. 천축사란 이름이 정해진 것은 고려 말로 생각된다. 해동으로 법을 전하러 온 지공은 많은 제자를 두었다. 그 법을 이은 것이 나옹과 무학이다. 세 분의 수행이 청정했던 관계로 지금도 한국불교의 불사에 세 화상을 증명법사로 모시고 있다. 이곳을 둘러본 지공이 나옹에게 인도의 영축산과 비슷하다 하여 그렇게 불렀다 한다. 구전이지만 나름 타당성이 돋보인다.

천축사의 존재가 확실하게 부각된 것은 밑에 있던 큰 절 영국사의 폐사 이후로 보인다. 배불의 압박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했다. 조정에서 반대하는 신앙을 소신을 지켜가며 믿을 대중은 없었다. 사원경제가 몰수되면서 한양 주변의 사찰들은 하나씩 폐사되었다. 영국사도 그 흐름을 비켜갈 수 없었다. 사원의 존재가 유명무실해질 무렵인 이곳에 도봉서원이 세워졌다.

1953년 양주 목사로 부임한 남언경이 평소 흠모하던 조광조를 기리기 위해 서원 건립을 계획하였다. 1574년 9월 부제학 유희춘 등이 서원의 사액을 청하였다. 선조는 도성과 가깝고 다른 곳과 중첩되는 것을 이유로 허락하지 않았으나 사림들의 요구를 물리칠 수 없었다. 마침내 '도봉'이라는 사액이 내려졌고 영국사의 땅과 호남의 면세지 100여 결이 지급되었다.

서원 건립의 과정을 지켜본 사부대중들은 가능한 영국사의 유물을 천축사로 옮겼다. 큰 절 목재로 쇠락해진 천축사 당우를 보수하며 불가의 도량이 유가의 서원으로 바뀌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승가의 수행처, 왕실의 기도처

도봉산 천축사는 풍광이 좋아 문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숙종 때 문인인 우암 남구명(1661-1719)이 남긴 문집에 자신이 천축사에 올라 하루를 묵으며 느낀 소회를 표현하였다. 조선 후기 학자인 이승원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847년 편집한 우산고시초에서 천축사의 아름다운 경치와 절의 한적한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다. 그 뒤 활동한 이건창(1852-1898) 역시 천축사에 올라 풍광과 감상을 표현한 시를 그의 문집 명미당집에 전하고 있다.

천축사의 풍광이 좋아 문인들의 호평이 잇따르고 있지만 이곳 역시 수행도량이다. 산이 높고 골이 깊어 일찍부터 많은 수행자가 찾아들었다. 그 가운데 한 인물이 혜능(1562-1636)이다. 남씨 집안에서 출생한 스님은 12세 때 응철에게 사미계를 받으며 출가하였다. 8년 동안 내외경전을 두루 배운 뒤 천조를 찾아가 의문점을 물었고, 처구의 지도로 깨달음을 얻은 뒤 전국의 명산대찰을 순례하며 보임을 닦았다. 만년에 문득 지나가는 기러기를 보고 도는 근본으로 돌아가고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감을 깨닫고 천축사로 돌아왔다. 이곳에서 엄정한 지계와 보시의 행을 닦다 입적하였다.

천축사는 왕실의 안녕을 위한 기도처였다. 도성과 가까웠던 탓에 왕실의 귀의가 남달랐다. 문정왕후가 '화류수목조룡상(樺榴樹木彫龍床)'을 헌납한 사실로 볼 때 왕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도도량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고종 때 명성왕후는 왕실을 위해 경산 각 사찰에 많은 시주를 하였다. 이곳 역시 왕실의 안녕을 위한 기도처였다. 1891년 상궁 박씨와 김씨는 명성황후를 위해 기도하며 불화를 시주하였다. 그것이 '비로자나삼신불도'(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92호)이다. 이 불화는 응석이 편수를 맡아 환감, 혜조, 경림, 탄인, 창오 등이 제작하였다.

이곳은 경산지역 화승들의 활동을 엿볼 수 있는 곳이다. 이곳에 '비로자나삼신괘불도'(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93호)가 있다. 1858년 하운당 유경이 창엽, 종지, 봉조, 총륜과 함께 제작한 불화이다. 화면에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그리고 석가모니불이 꽉 차게 그려진 괘불이다. 이런 양식은 19세기 서울, 경기 지방에서 유행한 불화로 비슷한 불화로는 흥천사 괘불(1832년), 청계사 괘불(1862년), 불암사 괘불(1895년)이 있다.

현대불교 수행결사를 계승한 무문관

천축사를 현대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도량으로 만든 이는 정영(1924~2007)이다. 1924년 경상남도 창원에서 태어난 그는 일본에서 수학하다 1940년 해인사에서 출가하였다. 1953년 정화운동이 일어나자 동산, 효봉, 청담과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1964년 천축사 주지 소임을 맡은 그는 이곳을 현대불교의 수행결사를 계승한 도량으로 일구고 싶었다.

조선 사원경제 몰락 영향
영국사 폐사되며 부각돼
12년 무문관 수행, 새 기치

그는 일제 강점기 한국불교의 쇠락을 회복하려는 선사들의 결사를 지켜보았다. 광복 후에도 한국불교 상황은 녹녹치 않았다. 3년간 실시된 군정기간 동안 한국불교계는 미국을 통한 서양문물의 유입과 기독교 선교라는 새로운 변화와 함께 친일불교의 척결이라는 이중고를 해결하여야 하였다.

독립운동 경력을 가졌던 불교계 인물들은 교정혁신을 위해 기존 종단의 간부들을 해임시키고 8인의 위원으로 '조선불교혁신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어 남한의 승려 60여 명이 참여한 대위원회를 개최하여 새집행부를 구성하였다. 이들은 일제의 잔재를 없애기 위해 31본산제를 폐지하는 한편 13도에 교구를 두고 교무원을 신설하였다.

새로운 집행부가 된 교무원은 1946년 8월 모범총림을 시설하여 선, 교, 의식 등으로 도제를 양성하려 하였다. 이 안은 중앙종회의 결의되어 1946년 10월 합천 해인사에 재단법인 가야총림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11월 6일 송광사에 주석하고 있던 효봉을 조실화상으로 위촉하였다.

송광사 회주로 있던 효봉은 이미 1946년 7월 15일 하안거 해제일에 삼일선원에서 '若未發明大事 면 誓不下山' 이란 발원과 함께 洞口不出, 午後不食, 長坐不臥, 默言의 청규를 정하여 삼년 결사에 정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보단 한국불교 전체를 생각하고 송광사에서 해인사 퇴설당으로 옮겨왔다. 그의 수행력을 익히 알고 있던 인곡, 순호, 구산, 법흥, 석호, 금담, 혜진 등 사방의 수행자가 모여 대회상을 이루었다. 이후 해인사에서는 사유 토지를 분할하여 재단법인을 만들어 한국불교의 혜명상속과 우리 승단의 청규호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납자들이 운집하자 총림의 규약을 제정하면서 결사는 한층 더 공고히 진행되었다.

이런 총림과 달리 성철은 개인적인 결사를 주도하였다. 1947년 문경 희양산 봉암사에서 선종 본래의 종풍을 회복하고 옛 총림의 법도를 이 땅에 되살리고자 결사를 주도하였다. 이곳에 뜻을 같이하는 도반과 젊은 수좌들이 운집하였다. 그들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참여한 인물들을 살펴보면 청담, 향곡, 자운, 월산, 혜암, 법전 등으로 그들은 해방 후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교단의 초석을 세웠다. 이들에 의해 교학연찬, 참선수행, 대중포교라고 하는 근본적 의미를 상실한 교단과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한 기복적 형식의 의례 그리고 한국불교 속에 스며든 일본불교의 수행풍토가 시정될 수 있었다.

효봉과 성철의 수행 모두 6·25 전쟁 때문에 불가피하게 무산되었다. 그렇지만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결사운동이었다. 지금까지의 승가생활을 크게 변화시켜 한국불교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현대불교의 수행결사를 지켜본 천축사 주지 정영은 아쉽게 막을 내린 수행결사를 복원하고 싶었다. 그런 마음으로 세워진 것이 천축사 무문관이었다. 이곳은 1964년 육영수 여사의 보시로 건립되기 시작하였다. 다음해 12월 27일 낙성된 무문관에 제선, 홍근, 혜원, 관응 등 모두 22명의 납자가 6년 결사에 참여하였다.

모두가 부처님과 같이 6년을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고자 하였다. 시작은 쉬웠으나 마지막까지 남기는 어려웠다.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이 자신의 의식을 옥죄었다. 예전에는 그냥 흘려버린 바람과 빗방울 소리 하나가 정답게 느껴졌다. 모든 인연으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수행이었지만 단절은 또 다른 번뇌를 만든다. 세상과 담을 쌓으면 평상시 관심 없던 일들도 스멀스멀 머릿속에서 빠져나와 번민의 씨앗이 되었다. 강제로 시킨 것이 아니어서 원하지 않으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자신만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싸움에서 패배한 수행자는 하나 둘 그곳을 나갔다. 72년 6년 일념정진을 끝낸 관응 석영현구 세 스님과 회향했다.

1972년 4월 28일 6년 결사를 마치고 회향한 수행자는 관응, 현구, 석영이었으며, 뒤에 합류해 4년을 마친 지효 경산 등 5명이었다. 중도에서 그만둔 17명의 수행자의 근기가 약한 것이 아니라 5명의 수행자 근기가 높았던 것이다. 세상과 등지고 6년이란 시간 동안 자신을 성찰한다는 것은 평범한 근기로는 할 수 없는 일임이 증명되었다.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그해 11월 16일 시작된 제2차 결사는 성운, 무불, 원공 등 5명의 납자가 입제하였다. 제1차 결사를 통해 무문관 수행의 어려움이 알려졌기 때문에 참여자가 적었다. 그래서 정예의 수행자만이 온 탓일까 이들은 1978년 11월 10일 6년의 수행을 마치고 회향하였다. 이들을 끝으로 그 후 3차 결사는 이어지지 않았다. 결국 1979년 천축사 무문관은 폐쇄되었다.

두 번 12년에 걸쳐 행해진 무문관 수행은 인원의 많고 적음을 떠나 한국 현대불교사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일제강점기 이후 한국불교의 변질에도 지속된 수행전통과 광복 이후 승풍을 회복하려는 움직임과 사상적 맥락이 같기 때문이다.

이곳이 2011년 10월 폐관 30여 년 만에 복원되었다. 예전과 달리 비록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치열한 수행의 이미지는 아니지만 현대 불교수행의 상징성이 복원된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동산불교대학 사찰역사문화연구회 지도교수〉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라이브 방송
페이스북 | 매주 수요일 밤 10-11시

우리몸 막힌혈관을 뻥!뻥!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루 2회 공복에
막힌 혈관을 뻥!뻥! 뚫어 젊어지고 건강해지는 혈관관리
혈통으로
맑은물에 희석해서 마십니다
혈관나이를 젊게하여 100세 건강실현
피가 깨끗해지면 정신도 깨어납니다
010-9003-6767 농협 : 010-9003-6767-29

“삶의 허무 이기려면 자유의지 필요”



남혜경의
Buddhist Coaching

㉒ 세 친구의 새로운 길



그림 · 박구원

지난 회의 죽음을 생각하는 삶을 읽고 몇 몇 지인이 소감을 보내왔다.

죽음을 적극 생각하니 하루하루의 삶이 더 소중해진다는 성찰과, 아직 죽음을 생각하기는 이르다는 엇갈린 감상이 섞여 있었다. 노년의 시간을 앞두고 커지는 생의 공허를 달래기가 더 급하다고 했다. 스러져가는 삶의 허무를 이기려면 지속하는 열정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자세와 결론은 같다고 말하고 싶다.

삶의 허무를 정면으로 맞서서 정신의 성숙을 바라보고 나아가려면 자유의지의 태도가 필요하다. 거창한 목표를 세울 필요는 없다. 노년으로 가는 두려움을 자유의지의 충만함으로 채우기 위해 작은 도전을 하고 있는 60대 지인들의 세 가지 사례를 나눔 한다.

1. 교사 은퇴 후 동네 글쓰기 선생님이 된 우경씨

3년 전 30년간의 교사직에서 명예퇴직 했다. 딸아이 둘은 독립하고 강아지를 키우며 연금으로 생활하는 느긋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 수십 년의 고단한 직장생활의 대가라고 생각하고 한동안 해외여행 패키지를 돌아다녔지만, 2년이 지나자 그도 시들해졌다. 친구들은 연아(연금 타는 아줌마)라며 부러워하지만 매일 즐거움만 추구하는 생활에 슬슬 무기력해지기 시작했다. 60세 환갑 나이를 지나자 해가 질 때마다 우울감이 마음속에 피어 올랐다. 삶의 건강한 의지가 없이 고목처럼 시들고 있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다.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자신을 두고 사치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비교하지 않는 자신만의 충만한 삶이 필요하다.

그녀의 자기성찰을 정리해보면 이렇다.

- 매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이 허전하다. 그저 그런 하루를 무사하게 지내는 데 감사하는 일이 시들해졌다.

- 책임 있게 하는 일을 만들고 싶다. 단기간의 작은 목표와 생활에 리듬을 주는 노동이 필요하다.

- 그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더 좋겠다. 작은 재능이라도 쓰임새가 있다면 보람이 있을 것 같다.

국어 교사였던 그녀는 동네 엄마들의 도움말에 귀 기울여 글쓰기 공방을 만들었다. 아파트 단지에 알림 전단을 붙여서 초등과 중등학생 그룹을 만들어 주 2회 책을 읽고 글쓰기 공부를 한다. 동화책을 읽고 독후감을 나누고 일기 쓰기도 함께 한다.

대단하지는 않지만 미래세대를 위해 무엇인가를 한다는 느낌이 뿌듯하다고 그녀는 말한다.

“수업 준비로 책을 고르고 읽으면서 스스로도 공부가 많이 된다. 사설 학원에 비해 낮은 비용의 참가비를 받고 있는데 거기서 생기는 수익을 모으고 있는 것도 즐겁다. 연말이 되면 학생들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 나눌 생각입니다.”

2. 항구 할머니 보고 떠올린 생선꾸러미 택배장사

50대 후반의 성자씨는 도시를 떠나 남도의 작은 마을에서 소박한 집을 짓고 살고 있다. 그 지역에서 혼자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을 찾고 있었다. 시간은 많고 쓸 돈은 모자라니 큰 욕심 내지 않고 생활비에 보탬이 되는 수준의 일이면 되었다.

그녀와 1년 전 함께 떠난 여행에서 수다처럼 비즈니스 코칭이 시작되었다. 우선 그녀의 조건을 따져보았다.

- 자녀들은 독립했고 온전하게 자신의 시간을 쓸 수 있다

- 사진작가의 이력으로 차량 운전과 몸 쓰는 일에 익숙하다, 건강한 체력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도전을 즐긴다.

- 시골집은 마당이 넓고 햇볕이 잘 들고 뒷산에서 불어오는 맑은 바람으로 늘 청량감을 준다.

이런 환경을 활용하는 일이 없을까 찾던 중에 항구 판장에서 말린 생선을 팔고 있는 할머니를 보면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도시의 젊은 주부들은 생선을 손질해서 요리하는 일에 부담을 느낀다. 신선한 생선을 고르는 일도 익숙하지 않다. 저런 생선을 구해다가 서울의 주부들에게 팔아보면 어떨까 생각한 우리는 할머니에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았다.

아침에 경매로 받아온 싱싱한 생선을 햇볕이 좋은 날에는 건물 옥상에서 말리고 흐린 날은 건조기에서 말려서 판다고 했다.

생애주기의 끝무렵 설계
의미 되새기는 삶 도전을
자유 의지로 새 꿈 찾아야

그 후 주기적인 코칭 대화를 통해 그날 떠오른 생각을 발전시켜 나갔다.

- 어판장 싱싱한 생선 구하려면 누굴 찾나?

- 생선을 손질하고 말리는 작업은 어디에서 하는 게 단가가 싸게 먹힐까

- 구매대상의 취향에 맞추려면 어떤 생선을 구해서 어느 정도의 가격에 어떤 방식으로 파는 게 합리적일까

- 이 일을 시작하는데 걸림돌은 무엇이며 해결책은 뭔가

하나씩 답하면서 현장 취재와 경험을 하고 인맥을 쌓고 마음의 결심을 굳히는 데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해볼만 하다고 결심한 그녀는 찬바람이 끝나기 전 2월 말부터 3월 초에 시범으로 몇 차례 생선꾸러미 장사를 해보았다. 결과는 기대 이상의 호응이었다.

친화력 있는 그녀는 새로운 사람과 사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저돌적인 그녀의 성격은 현실감각 있는 추진력으로 이어졌다. 생선 경매인과 손질하는 판장 할머니들과의 인맥을 구축한 그녀는 이제 영업 등록을 하고 제대로 된 사업으로 확대시켜보려고 고민 중이다.

3. 은퇴 후 2년, 옛 꿈을 찾아가다

길동씨는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이 되니 부쩍 외롭다고 느낀다.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오르느라 늘 쫓기고 살았던 그는 은퇴하고 시간이 많아지면 가족들과 다정하게 편안한 나날을 보내리라 기대하고 있었지만 2년이 되어가는 지금 생각과는 많이 다른 일상에 당혹해하고 있다.

대학생과 직장인인 아이들은 주말에도 식사 한 번 같이 하기가 힘들 정도로 바쁘다. 아내는 처음 몇 개월간은 그동안 가장 노릇하느라 수고했다며 여행도 같이 가고 영화관이나 연주회장도 같이 다녔지만 점차 늘 같이 행동하려는 남편을 부담스러워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길동씨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본 질문

- 지금은 인생의 어디쯤일까

-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며, 그 일은 어떤 의미가 있나

- 10년 뒤 자신의 모습을 상상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나무라면 어떤 향기를 가진 나무가 되고 싶은가.

- 그 모습을 상상할 때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마음의 소리는 이런 대답을 내놓았다.

- 지금 인생의 3/4 지점에 와 있다. 가족부양의 책임을 끝냈고, 노후의 경제대책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

- 순간순간 몰입으로 일상에 윤기를 주고, 눈으로 보이는 뭔가를 생산하는 일을 하고 싶다. 그 일은 늙어가면서도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자존감을 줄 것 같다.

- 10년 뒤라면 70대 중반이다. 그때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지혜로운 노인이 되어 있고 싶다. 나무로 치자면, 동네 공원에서 무성한 이파리로 그늘을 드리워 많은 사람들을 쉬게 해주는 그런 느티나무이고 싶다.

- 그런 미래를 위해서 정말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우선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일, 꿈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길동씨는 이 질문과 답을 통해 지금이, 대가와 상관없이 진정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아늑한 황혼기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 자신이 가졌던 꿈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가장 의미 있는 발견이었다.

추억의 책장에서 고등학교 시절에 만든 문집을 찾았는데, 거기에 자신의 습작시가 있는 것을 보고 가슴에 통증 같은 아련한 그리움을 느꼈다.

“정말, 나는 시인이 되고 싶었어!”

요즘도 서점에 가면 시집 코너 앞에서 멈칫거리게 되고, 방송에서 시 낭송을 하는 소리를 들으면 귀가 쫑긋해지는 자신을 기억해냈다.

길동씨는 자신의 꿈을 다시 찾는 것으로 은퇴 후 새로운 길의 첫 발자국을 내딛었다.

자유의지로 이어가는 생

불교철학은 절대자가 만든 숙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연기와 유심사상은 인간의 의지를 중요하게 여긴다. 하지만 우리는 늙고 싶지 않아도 늙어야 하고 죽고 싶지 않아도 죽어야 하는 한계로 자유의지를 성취하기가 쉽지 않다. 자유의지를 제대로 펼치기 위해서라도 불법의 깨달음이 필요하다. 유심사상에 따르면 인간은 각자의 마음으로 자유롭게 세상을 인식하고 객관화한다. 미망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세계를 터득하고 실천할 때 자유의지의 생을 이어갈 수 있다.

중생은 미숙한 부처이고 부처는 원숙한 중생일 뿐이다.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면 중생의 의지와 부처의 의지를 따로 나눌 필요는 없다, 중생 속에 이미 부처의 의지가 들어 있으니 중생에게 부처가 누리는 자유의지가 있는 셈이다.

– 지명스님 〈한 권으로 읽는 불교 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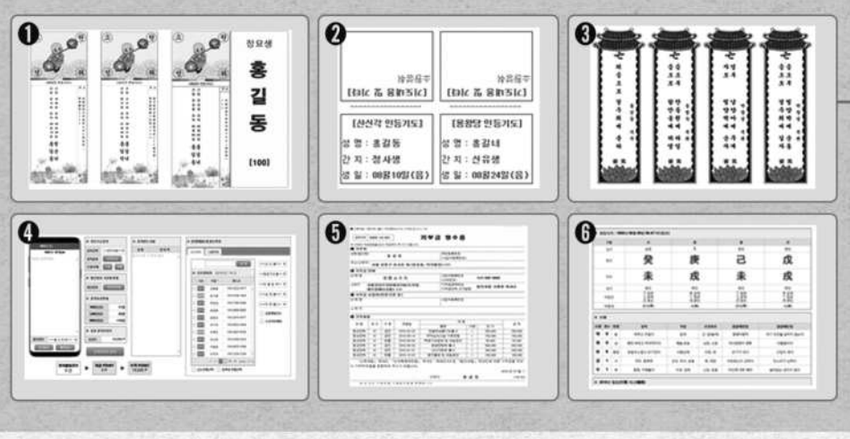
〈한국코치협회 전문코치〉

GmSoft since 2015 사찰신도 관리 프로그램

동종업계 최저가격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기본 19,800원 | 설치비 · 세팅비 전액무료



프로그램 주요 기능
❶ 연등표 출력
❷ 인등표 출력
❸ 위패출력
❹ 문자발송
❺ 기부금 영수증
❻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지엠소프트 [지엠소프트]를 검색하세요

대표전화 070-7633-2525, 010-8588-2525
상담문의 평일 09:30 ~ 17: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www.gmst.co.kr

나이가 들어가며 염불이 !

점점 힘이드는 분도 마이크와 2m멀리서 작은 소리에도 선명하게 들리고 법문시는 성우 음성이 되어 듣는 보살들이 극찬하는 특수염불시스템

(본 품은 시중에 없음! 있을시는 1천만원 포상! 지금 이 글은 법적증서)

특수염불 전문 시스템 구경 :
현재 전국을 돌며 시설중이며, 호출이 오면 부근 사찰 시설시에 방문! ... 소리 구경값 한잔

요즘 보살들의 시대흐름 : 세상 시설 수십억의 음향에 귀가 열려 열악한 사찰음향의 적응에 힘이 들어 말없이 가버리는 시대!

원톱시스템이란?! : 한국의 사찰들이 서투른 지역시설에 맡긴 후 염불스트레스와 땜질보수 속에 이중고를 겪으시는데 원톱시스템에 맡겨 한 번에 최고 시설만이 하자가 없어 수 천번 반복되는 염불인생에게는 오히려 큰 절약이라는 뜻입니다.

특장점! (1) 영남권 20년 1천여 시설에도 단 한번도 A/S가 없었음 (A/S 기간 10년)
(2) 초간편 간단 시설로 앰프다루기 1초
(3) 중견사찰 기존 음향시설비의 1/3정도지만 염불소리는 비교시 놀라운 차이

▣ 사찰 전체음향 시설비는 일백구십만원~삼백구십만원

▣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USB, 무선마이크 종류별로 4개, 유선마이크 1개(스탠드 포함) 완벽시설까지 390만원이면 명산대찰 억대의 시설보다 염불소리 하나만은 확실하게 월등함.

※ 스피커 계속 연결시는 비용추가 ▣ 각종 마이크, 방송장비 및 방생용 구경!

HITEC 하이텍 미디어 하이텍사운드전자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

부처가 되려면 변화하라



김성규의
緣起 이야기

㉒ 육신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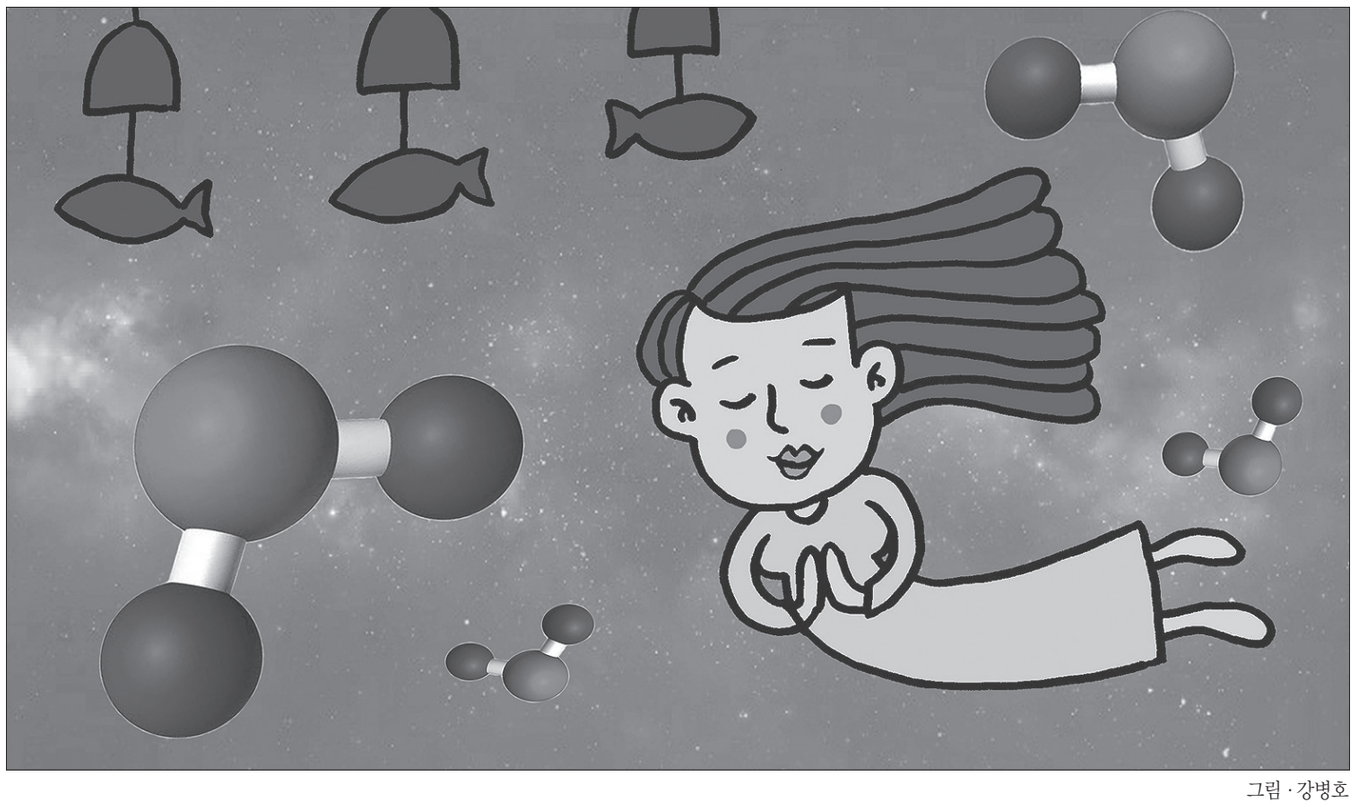


그림 · 강병호

무아와 무상을 연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연기적인 세계가 이루어지고, 또 실상적인 관점에서는 생멸의 세계가 결국 불생불멸의 세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기론은 존재하는 현실세계를 이해할 때 생멸의 세계는 허망하다 혹은 허상이라고 이야기 한다.

"자성은 없다. 그래서 공이라고 한다" 〈금강경〉〈반야경〉 계통은 모두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존재하고 있는 세계, 연기로 이해하는 것은 무아와 무상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생멸이 이어지는 세계이다. 이러한 세계를 무상하다, 허망하다고 이야기하고, 결국 본질은 공이라고 한다.

이 구조에서 A법과 B법은 어떻게 되었는가? 변화에 의해 5시를 기점으로 술이 식초로 변했다. 실상론적 구조 속에서 A법과 B법은 그대로 존재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식초도 존재하고 술도 존재한다. 술과 식초를 서로 떼어놓고 한번 생각해보자. 식초도 있고 술도 있는 것이다. 떼어놓고 있다 없다 관계 속에서 인식할 때는 '존재한다' 고 한다.

무아에 대한 설명

물은 화학식으로 'H2O' 다. 수소 분자 두 개와 산소 분자 한 개가 붙어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수소(H)와 산소(O)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수소는 수소로 있게 되고 산소는 산소로 있게 된다. 관계하고 있을 때는 물이 되었는데 관계를 끊어 버리면 물은 없어지고 수소와 산소만 남게 된다. 물(H2O)로 관계하고 있었을 때는 물이 되었다가 관계를 끊어버리면 수소는 수소, 산소는 산소일 뿐이다. 관계하고 있을 때는 존재로 인식할 수 있는데, 관계가 끊어질 때는 있다 없다로 인식한다. 그래서 A법과 B법은 이런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법과 B법은 잠재된 세상을 기준으로 볼 때 밑의 부분은 잠재된 세상이고, 위로 올라온 것은 드러난 세상인 것이다.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A법과 B법 밖에 없는가? 옆에 보니 C법도 있고, D법도 있고, E법도 있고, F법도 있다. 똑같은 법들이 계속 연관되어 존재한다. 무아는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어 나라고 주장할 만한 실체는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A가 B로 변하고 나니까 B는 스스로 자신은 변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기 자신은 영원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아야 한다고 집착한다. 즉 위에 올라왔으니까 다시는 내려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살아있는 것은 언젠가는 죽는데,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옆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본인은 안 죽는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을 이루고 있는 근본적인 바탕은 자기는 항상 생하고 있다고 집착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육신이 만들어지는 원리

자신의 현재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안 바뀌려고 하는 것은 본성이고 그것에 집착이 생기고 자신을 중심으로 한 아집이 생기게 된다. 잘못된 자신을 끊임없이 자기라고 인식하는 아집에서 모든 것이 전도되어 번뇌망상이 생기는 것이다.

아집이 생기고 난 뒤 A법에서 B법으로 바뀌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생하고 나면 나는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변하지만 본인은 변하지 않는다고 고집하는 아집이 생기는 것이다. 변화하는 것의 기본적인 속성은 불안이다. 끊임없이 변한다는 자체에서 기본적으로 생기는 사고의 인식은 불안인 것이다. A법에서 B법으로 변하고, B법에서 A법으로 변화하는 속성은 바로 불안이다. 내가 인식하든 못하든 간에 내 속에는 끊임없이 불안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몸뚱이가 만들어지는 것은 인연이 되는 조건에 의해 생기는 것이며 조건이 소멸하면 멸하는 것이며, 무자성인 무아이다.

존재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해가는 무상인 것이다.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에 대해서 불안이라는 것이 내 속에 자연적으로 생긴다. 불안하기 때문에 집착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아집이 생기는 것이다.

인간의 몸뚱이, 오취온

다이어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적게 먹는다고 다이어트가 되는 것이 아니고 생각자체가

> **업 1mm 못 바꾸는 게 우리네 삶**
> **조금만 바꿔도 변화 전환점 맞아**
> **조그마한 변화가 곧 혁명이 된다**

아집에서 벗어나면 다이어트가 되는 것이다. 이 몸뚱이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업에 의해서 끊임없이 갖다 붙인 결과이다. 내 업만큼 갖다 붙인 것이 이 몸뚱이인 것이다.

날씬한 몸매를 만들려면 업을 바르게 가져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날씬하지 않으려 해도 날씬해지고, 자연히 오래 살게 된다.

인간의 몸뚱이를 '오취온' 이라고 한다. 오온을 축적시켜 만든 것이 몸뚱이이다. 오온의 색수상행식을 살펴보자. 6경과 6근과 6식은 몸뚱이에 의해 인식할 수 있는 능력체가 생기고 난 후의 문제이다. 그런데 색수상행식이라는 것은 인식할 수 있는 뿌리가 하나도 없다. 오온은 좀 더 본질적인 문제임을 알 수 있다.

회양선사가 육조 혜능을 찾아 갔을 때 회양에게 "어떤 물건이 왔는가"라고 혜능이 묻는다. 어떤 한 물건이 왔느냐 했을 때, 어떤 한 물건은 '부모미생전(父母未生前)', 부모에게 이 몸 받기 전에 나는 누구였던가를 말한다. 이것은 생명의 본질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6근 · 6경 · 6식을 이야기 할 때는 몸뚱이가 생기고 난 후가 되며, 몸뚱이가 생기고 난 후에 오온에 대한 인식이 고의 존재인 것이다.

이 몸뚱이가 생긴 이유는 불안에 의해 자꾸 자기 것으로 업만큼 갖다 붙인 결과인 것이다. 자기의 업만큼 갖다 붙여 몸뚱이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본질적인 불안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불안이다. A법에서 B법으로 변했기 때문에 A는 멸했고, B가 존재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는 C법도 있고, D법도 있다. 또 E법도 있고 F법도 있다. A법과 B법이 변화했듯이 C법, D법, E법. F법도 끊임없이 변한다. 변하니 생멸도 반복된다. 이처럼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끊임없이 생하고 멸함을 되풀이 하고 있다. 생하고 멸하고 바뀌는 변화를 보면 불안해지는 자신을 발견한다.

이 같은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이 자기화하는 것이다. 주위를 자신에게 붙여 자신과 하나로 만듦으로써 변화를 극복해 가는 것이다.

아집과 집착에 의해서 자기자신을 자꾸 더 불안하게 한다. 옆에서 일어나는 변하는 상황을 보니까 더 불안해 진다. 결국은 자기 자신이 편안해지려면 바뀌는 것을 보고, 자기도 바뀐다고 인식을 하면 된다. 그런데 자기는 바뀌지 않는다고 집착하고 아집을 부린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은 바뀌지 않고 옆의 것도 안 바뀌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자신에게 붙이는 것이다. 바뀌는 옆의 것을 자신에게로 붙여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자기는 안 바뀐다고 집착하고 있으니까 옆에 것도 변하지 않는 것이 된다. 옆에 것을 자기에게 붙여서 자기 것이 되려면 변하지 않는다고 집착하는 것이다.

제7식에서의 오온중 색수상행식의 색이 바로 아집, 집착이다. 오온의 작용에 의해서 끊임없이 자기한테 갖다 붙이는 것이다. 자신의 업만큼 갖다 붙인다. 우리 몸뚱이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 오온의 작용을 끊임없이 되풀이 하여 내가 가진 업만큼 갖다 붙여 자기 자신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오온은 이 몸뚱이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에 대한 해답인 것이다.

색, 루파, 아집

색은 산스크리트어로 '루파(Rupa)' 인데 아집이다. 아집이 생기는 근본 원인은 변화하는 것을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생멸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 생멸의 뿌리에는 불안이 있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감정은 불안과 공포이다. 멸할 때 공포를 가장 크게 느낀다. 생과 멸의 변화는 생명이 태어날 때 잘 나타난다.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 혹은 동물이 새끼를 낳을 때도 그 공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낳게 된다. 죽을 때 즉 멸할 때는 내가 평생 살았던 그 가치만큼, 그 능력만큼의 잠재능력을 가지고 죽게 된다.

태어날 때의 불안과 공포는 부모가 어느 정도 최소화 해주지만, 생명이 지속 되다가 멸할 때는 자신이 평생 살았던 그 댓가만큼 불안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면서 그 불안을 가지고 간다. 다음 생에 몸 받았을 때 갖고 있던 불안을 그대로 갖고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우리 몸의 형태는 끊임없이 바뀌는 것 같지만, 자신이 있는 기본적인 업의 덩어리는 계속 내 것일 뿐이다. 오온을 제대로 이해하고 12연기를 이해하고,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이고, 착한 일 했을 때 착한 과보를 받게 되고, 나쁜 일을 했을 때 나쁜 과보를 받게 되는 것은 삼세윤회설에서 설명된다.

악한 일을 했을 때는 악한 과보를 받고, 착한 일을 했을 때는 착한 과보를 받는다는 것은 정확하다. 윤회를 100% 믿게 되고 인과를 100% 믿게 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보다 훨씬 더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한생을 살아가는 것은 별것이 아니다. 수억 겁의 삶속에서 100년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인간의 몸을 받았을 때 1mm의 방향만 바꾸어 놓아도 1mm의 바뀐 방향이 결국 나로 하여금 성불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삶의 덩어리는 수억 겁 동안 살면서 만든 내 업이다. 한 생 동안 바꾸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무엇이 바뀌겠는가? 그런데도 우리는 부처라고 큰소리치면서 살고 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바뀔 것 같은 '나' 이지만 아침에 일어나 내가 부처라고 생각하고 참선하면 묘하게도 자신이 부처로 만들어진다.

100년도 안 되는 삶에서 업의 덩어리를 1mm도 못 바꾸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방향을 1mm만 바꾸어 놓아도 이것이 다음 생으로 굴러가면서 자신의 삶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한 점의 위치에서 아주 조금 바뀌는 것이 혁명이고 변화이고 나아가 모든 것이 그것 때문에 바뀌게 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부처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도를 구하겠다는 마음이 하늘에 이르면 그냥 부처가 되는 것이다. 〈영남대 의대 교수〉

동국대학교 미래융합 대학
정행스님의 융합명상 가족세우기
– 불교의 새로운 상담기법과 실천법 –
각 사찰에서 신도분들과 운영할 수 있고 정확하게 작동하는 융합명상 치유상담기법

융합명상 가족세우기 특강
교육내용 · 부모 자녀 관계 회복
· 부부 관계 회복
· 가족 관계 회복 상담치료
강의기간 12월 21일(토) ~ 2020년 1월 18일 (5주)
강의시간 오전 10시 ~ 오후 5시까지 (8시간)
강 사 가족세우기 15년, 상담 30년 정행스님
접 수 동국대 미래융합대학 학술관 010-8634-7851

■ 대 상 : 누구나 관심있는 분
■ 장 소 : 서울 동국대 미래융합 대학 학술관 279호
■ 시 간 : 지도자 과정 – 매주 화요일 19시 ~ 21시
집중수업 – 매월 둘째 일요일 10시 ~ 17시
(내담자 접수순 참여)
■ 문 의 : 010-8034-7851 (정행스님)

융합명상 아카데미 동대구
– 매월 둘째 금요일 시간 미정 –
주소 대구시 동구 안심로251 (서호동)
(지하철 반야월역 1번출구 할리스 커피 옆건물 2층)
접수 010-9568-7447

융합명상 아카데미 부산수영
◈ 가족세우기 속성반 1년과정 (수시모집) ◈
개강 11월 24일 오전10시 ~ 오후 5시까지 (매월 넷째주 일요일)
주소 부산시 수영구 남천서로19번길 14 학마을 명상선원
(지하철 남천역 2번, 4번 출구 남천초등학교 앞)
접수 010-8634-7851

융합명상 아카데미(학마을) 정행 합장

KBS 과학카페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無明은 반야지혜 걸림돌



新 불교사자성어

㊷ 무명장야(無明長夜)

중생(인간)은 매우 똑똑하고 현명하다. 혹자는 어리석다고 하지만 선과 악, 의(義)와 불의가 있음을 발견한 것도 중생이고, 진리와 번뇌, 극락과 지옥, 부처와 중생의 세계가 있음을 발견한 것도 중생이다. 그래서 대승기신론에서는 우리 인간(중생)의 마음속에는 선악이 공존하고 있고 부처가 될 수 있는 바탕인 진여문(진여, 진리로 가는 길)과 중생으로 전전하게 되는 생멸문이 공존하고 있다고 했다. 어느 길로 갈 것인지는 당사자의 마음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편적인 중생은 악(惡)과 무지(無知), 탐욕과 어리석음에 싸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싸여 있지만 싸여 있는 줄도 모른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무지와 무명,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라, 그곳으로부터 해탈하라"고 했다. 무지, 무명은 탐(貪, 탐욕), 진(瞋, 분노 · 증오), 치(痴, 어리석음 · 무명 · 무지) 삼독 가운데 치(痴)와 같은 뜻이다. 어리석다는 것은 다름 아닌 무지, 무명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무명은 불교에서 가장 싫어하는 존재 중에서도 첫 번째로 손꼽힌다. 그 이유는 무명이 깨달음과 반야지혜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인데, 불교에서 수행이란 다름 아닌 이 무명을 제거, 추방하는 작업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무명은 마음이 사견(邪見, 잘못된 생각)이나 망집(妄執, 집착)에 싸여서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어두운 긴긴 밤에 비유하여 무명장야(無明長夜)라고 한 것이다. 미혹에 가려서 지혜 광명을 보지 못하고 끝없이 생사고해 속을 헤매고 있으므로 긴긴 어두운 밤에 비유한 것이다. 〈법구경〉에서는 그 상황을 다음과 같은 시구로 설하고 있다.

"잠 못 이루는 사람에게 밤은 길어라. 피곤한 사람에게 길은 멀어라. 바른 법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에게 생사의 밤길은 길고도 멀어라."

필자가 어렸을 때 살았던 강원도 산골은 겨울이 무척 길었다. 산이 높아서 오후 4시가 되면 어둡기 시작하여 6시 경에는 칠흑 같은 밤이 되었다. 무명장야. 다음날 9시나 되어야 햇빛을 볼 수 있었다. 두메산골의 겨울은 12월이면 눈이 쌓이기 시작하여 이듬해 3월이 되어야 녹았다. 산골의 겨울은 곧 무명장야였다.

무명은 진리에 어두운 것을 뜻한다. 진리에 어두워서 돈, 명예, 이성, 증오심, 분노 등 갖가지 욕망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중생들의 삶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평이하게 말하면 현명하지 못함, 지식적 바탕이 없는 것, 지혜가 없는 것(無智) 등을 가리킨다. 동의어로는 생사장야(生死長夜)라고 한다. 태어나고 죽는 육도윤회의 기나긴 밤이라는 뜻이다.

또 무명은 한 인간의 행복이나 삶을 망치게 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잡아함경〉 제334경(有因有緣有縛法經)'에는, "비구들이여, 바르지 못한 생각으로 인하여 무명(無明)이 시작되고 무명으로 인하여 갈애(愛, 집착과 애욕)가 시작된다."고 하였는데, 이 갈애(집착과 애욕과 탐욕)로 인하여 결국엔 업을 짓고 그 업(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으로 인하여 불행한 삶이 시작된다.

불교의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12연기가 있다. 12연기는 생노병사의 윤회가 시작되는 과정을 12단계로 설명한 것인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무명이다. 다시 말하면 무명, 무지,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나쁜 업을 짓게 되고, 그 업(業)이 원동력이 되어 12연기의 윤회가 시작되는 것이다. 조폭이나 범죄의 악순환에 한번 엮이면 쉽게 빠져 나오기 힘들듯, 한번 윤회의 고리에 엮여 들어가면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래서 인도인들은 윤회를 가장 싫어한다고 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지만 동시에 무명과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무명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8정도를 실천하면 된다. 바른 견해, 생각, 말, 행동, 생활 등을 실천하는 한편, 나쁜 업을 쌓지 말아야 한다. 나쁜 업이란 신구의(身口意)로 짓는 나쁜 행동, 말, 생각 등인데, 결국 이것 때문에 악업을 짓는다. 바르지 못한 언행을 반복하게 되면 그것이 곧 업이 된다. 우리의 삶도 좋지 못한 행동을 반복하게 되면 그것이 습관화되고 곧 업이 된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밀려나자마자 선상 엎었다면…



격절록 강설

㊷ 보수개당 4

[評唱 4]

後到洞山聰和尚處 又參大愚芝. 芝嗣汾陽昭 雲峰悅承嗣芝. 悅與雪竇游從最久 久參臨濟正法眼藏宗旨 雪竇最得芝和尚提誨. 所以雪竇會臨濟宗風.

(설두는) 뒤에 동산 총(洞山 聰) 화상의 처소에 갔고, 또 대우 지(大愚 芝)를 참례했다. 지(芝)는 분양선소(汾陽 昭)의 법을 이었고, 운봉 열(雲峰 悅)은 지 스님의 법을 이었다.

운봉 열과 설두가 가장 오래 동안 (지 스님을) 따라 다니며 임제(臨濟) 정법안장(正法眼藏)의 종지(宗旨)를 오래도록 참구했는데, 설두가 지 화상의 가르침을 가장 잘(깊이) 얻었다.

그래서 설두가 임제 종풍을 알았던 것이다.

雲峯悅知雪竇不嗣芝 一日與游山 特去勘他 問云 "入荒田不揀 信手拈來草 觸目未嘗無 臨機何不道" 雪竇拈起一莖禾示之. 悅不肯 云 "夢也未夢見在" 雪竇云 "你不肯即休" 雪竇知臨濟下宗風. 所以如此.

운봉 열이 설두가 지 화상의 법을 잇지 않은 것을 알고, 하루는 함께 산을 거닐다가 특별히 그를 감변하려 했다.

(운봉이) 물었다.

"거친 밭에 들어가 가리지 않고 손 가는 대로 풀을 집어 드니 눈 닿는 대로 일찍이 없던 것이 아니거늘, 때가 되었는데도 어째서 말하지 않습니까?"

설두가 벼 한 줄기(一莖禾)를 들어 보였다.

운봉 열이 긍정하지 않고, 말했다.

"꿈속에서도 보지 못했군요."

설두가 말했다.

"너는 바로 쉬는 것을 긍정하지 않는구먼."

설두는 임제 문하의 종풍을 알았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拈因這緣道 "保壽三聖 雖發明臨濟正法眼藏 要且只解無佛處稱尊. 當時這僧若是箇漢 纔被推出 便與推倒禪牀. 直饒保壽全機大用 也較三千里" 敢問諸人. 只如保壽打這僧 是全機 不是全機.

이런 인연으로 염해서 말하기를 "보수와 삼성이 비록 임제의 정법안장을 드러내 밝혔을지라도, 다만 무불처(無佛處)만 알고 이를 최고로 여긴 것이다. 당시에 이 스님이 만약 이런 사람(是箇漢, 본색 납자)이였다면 밀려나자마자 바로 선상을 엎어버렸을 것이다. (그랬더라면) 설사 보수의 전기대용일지라도 삼천리나 차이가 났을 것이다"고 하였던 것이다.

외람되지만 여러분에게 묻겠다. 그렇다면 보수가 이 스님을 친 것은 전기(全機, 전기대용=대기대용)인가, 전기가 아닌가?

只如雪竇道 "這僧當時若是箇漢 纔被推出 便與掀倒禪牀" 當時若便掀倒禪牀 被保壽劈脊便棒時 又作麼生. 到這裏須是頂門具眼 方可見得他. 若未能如此 也須退步體究看. 是箇什麼道理. 敢問諸人.

다만 설두는 말하기를 "당시에 이 스님이 만약 이런 사람(是箇漢, 본색 납자)이였다면 밀려나자마자 바로 선상을 엎어버렸을 것이다"고 했다. (그런데 이 스님이) 당시에 만약 바로 선상을 엎어버리고 저 보수의 등판때기를 후려갈겼다면 또 어땠을까? 여기에 이르러서는 모름지기 정수리에 안목을 갖춰야 (頂門具眼) 그것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이 할 수 없다면 모름지기 뒤로 물러나 몸소 참구해봐야 한다. 이것은 무슨 도리인가? 감히 대중에게 묻노라!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㊷ 이해의 길 22

대승불교는 이단인가?

일본의 저명한 불교학자인 마스타니 후미오(增谷文雄)는 불교사를 가리켜 이단을 포용하는 역사라고 하였다. 대승불교에 이르면 근본불교와는 성격이 다른 정토신앙이나 선불교 등이 등장하는데, 이를 내친 것이 아니라 포용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는 순수성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이단을 추방했던 서양의 종교사와는 분명 다른 모습이다. 그는 오히려 '이단에서 불교의 새로운 생명이 샘솟았음' 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이단(異端)이란 다른(異)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범주가 다르다. 사과와 배는 서로 다른 것이며, 지구가 네모라는 주장은 틀린 것이다. 그런데 같은 종교 안에서 자신의 신앙과 다른 입장을 보이면, 이단이란 이름으로 틀렸다고 단정하면서 적대시하는 경향이 있다. 종교적 독선과 배타성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단의 사전적 의미도 '정통(正統)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교의나 교파를 적대하여 이르는 말' 이라고 되어있다. 이단은 분명 정통과는 다른 견해를 제시한다. 초창기와는 시대나 사회, 문화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기존의 입장과 다르다고 해서 상대를 해치거나, 심지어 종교 전쟁까지 일으키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이단을 포용하는 불교의 역사에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근본불교 입장에서 보면 대승불교는 이단이 맞다. 대승불교는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 붓다의 연기를 재해석한 공(空)사상으로부터 불성과 여래장, 유식불교, 밀교, 정토사상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힘들게 전승한 붓다의 말씀인 경전을 마음 '심(心)' 한 글자로 압축하고 '불립문자 교외별전(不立文字 敎外別傳)' 을 강조한 선불교도 등장한다. 그야말로 다양성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다름에도 정도가 있기 마련이다. 예컨대 정삼각형과 직각삼각형은 서로 다르지만 각이 셋이며 세 각의 합이 180도라는 본질은 같다. 즉 그 차이가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삼각형인 것이다. 근본불교가 정삼각형이라면, 대승불교는 직각삼각형에 비유할 수 있다. 이 둘은 '불교' 라는 본질을 공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차이는 본질적이 아니라 지엽적인 것이다.

그런데 그 차이가 본질을 넘어서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정삼각형과 직각삼각형은 아무리 크기나 모양이 다양하더라도 본질이 같지만, 삼각형과 사각형은 본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즉 불교라는 본질을 벗어나면 '불교' 라고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대승불교는 불교라고 이름붙일 수 없는 신앙까지 포용하기도 한다. 예컨대 우리나라 사찰에 있는 산신각이나 칠성각은 불교가 아닌데도 불자들은 대웅전에 들러 붓다께 예배하고 자연스럽게 산신각에 참배한다. 이런 비불교적인 요소까지 사찰에 두는 것은 포용성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본질적 차이마저 포용하는 대승불교의 논리는 어디에 있을까? 바로 방편설이다. 방편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흔히 비유되는 것처럼 달을 보는 것이 목적이라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標月之指)은 방편이다. 달을 보는 것은 불교의 본질인 깨침을 의미한다. 달을 보기 위해 근본불교에서는 손가락이라는 방편을 제시했지만, 대승에서는 손가락뿐만 아니라 볼펜이나 분필, 지팡이 등 다양한 수단들을 동원하였다. 그만큼 사회, 문화적으로 사람들의 요구가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대승은 다양한 능력과 소질을 가진 수많은 중생들을 큰(大) 배(乘)에 모두 태운 것이다.

근본불교 시선에서 보면 대승불교는 매우 이질적이면서도 파격적이다. 귤과 천혜향의 차이가 아니라 귤과 사과의 차이라 할 만큼의 넓은 간극도 존재한다. '대승은 붓다의 말씀이 아니다(大乘非佛說)' 는 주장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승은 중생들의 다양한 처지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 다양성을 포용하면서 대승은 불교라는 이름의 새로운 사상과 문화, 예술을 창출하였다.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실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 합니다.

HOT

☎ 문의 : 민성기업 (구,대진기업)
010-2628-9944

• 친환경적
• 단열효과 탁월
• 구조변경 용이
• 시공비 대폭절감
• 습기에 강함
• 내구성 우수





동국대 발전 기금 기부 잇달아

혜거 스님, 대원상 상금 2000만원 전액 기부
덕문 스님, 법인 발전 위해 3000만원 쾌척

동국대 발전을 위해 스님들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이사장 혜거 스님은 11월 19일 동국대에 발전기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

스님은 지난 11월 15일 제16회 대원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 이번 전달식을 통해 상금 전액을 기부했다.

혜거 스님은 "부처님의 뜻을 전파하며 받은 상인만큼, 불교정신으로 인재를 키워내는 동국대에 상금 전액을 기부하게 됐다"며 "동국대가 '명상 대회' 등으로 수행 불교를 널리 알리고 있어 이에 일조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에 윤성이 총장은 "불자 교육과 포교에 헌신하신 공로로 받은 귀중한 상금을 이렇게 학교에 희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기부금은 불교 인재 양성에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이 동국대 법인 발전을 위한 기금 3000만원을 쾌척했다.

덕문 스님은 11월 20일 동국대 본관 4층 로터스홀에서 열린 학교법인 동국대 제324차 이사회에 앞서 법인 발전기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덕문 스님은 "학교법인 동국대의 모든 산하기관과 법인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석전 스님, 부산미술대전 대상

사군자 중 대나무 주제로 출품



수덕사 석전 스님이 제45회 부산미술대전에서 문인화 부분 대상을 수상했다.

석전 스님은 문인화 사군자 가운데 대나무를 주제로 출품했으며 지난 11월 19일 대상을 수상했다.

석전 스님은 "사찰의 풍광과 삶을 담아내기에 문인화가 적합하고 어울려 그 정취를 담기 위해 노력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석전 스님은 우담 오동수 선생에게 사사했으며 구례 화엄사에서 출가해 화엄사 교수사, 수덕사 교수사로 후학을 지도하고 있다. 석전 스님은 한국미술공모대상전 문인화 특선, 대한민국 미술대전 문인화부문에서 입선, 부경서도대전 특선, 부산서예전람회 특선 등 수상을 통해 실력을 인정받아 왔다.

부산미술대전은 부산미술협회에서 주관하는 전국 최대 규모 지역 공모전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대중에 받은 사랑, 나눔으로 회향할 것"

Interview

20년 장학금 전달한 김흥국 이사장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11월 30일 20회 장학금 전달
어려울 때에도 기부 쉬지 않아
20년 간 1억 3천여 만원 도와
"다문화 가정에도 관심 지속"

"1989년 '호랑나비'로 유명해지고 그간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죠. 이를 바탕으로 조금씩이라도 나눔을 실천하자고 시작한 장학금 전달이 20년을 맞았습니다. 앞으로도 나눔은 계속될 것입니다."

불교를 대표하는 가수이자 방송인 김흥국 씨가 이끄는 '김흥국장학재단'이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이를 맞아 김흥국 이사장은 "11월 30일 오후2시 BTN불교TV 무상선원에서 제20회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한다"고 11월 15일 밝혔다.

김흥국장학재단은 어린 시절 고생하며 자란 김 이사장이 사회환원을 위해 2000년 2월 창립했다. 그해 11월 1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한 이래 매년 11월 추천을 받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해 왔다.

"나름 연예인으로 유명세를 타니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낙산사 홍련암에서 철야 기도를 하는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렵게 유년 시절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주고 싶다고."

그렇게 시작한 장학재단 설립과 장학금 전달은 오로지 김 이사장 사재로 진행돼 왔다.

그간 초등학생 228명과 원로가수 15명 등 총 243명에게 1억3000여 만원의 기금이 전달됐다. 개인적 부침이 있어도 나눔은 쉬지 않았다. 지난 2011년 MBC라디오에서 일방적으로 하차 통보를 받고 1인 시위를 할 때도, 최근 무혐의로 결론난 성폭행 논란에도 김 이사장은 장학금 수여는 직접 챙겨 진행했다. 오로지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자라나주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저는 장학금을 받은 아이들이 감사편지를 하거나 인사를 온다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감사받고자 시작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학금을 받은 아이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이를 계기로 나아가는 인재가 된다면 바랄 나위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커서 사회에 필요한 인재가 된다면 그게 저에 대한 보답일 겁니다."

사재로 운영되는 장학재단이여서 언제까지 장학금을 줄 수 있을지는 김 이사장 자신도 장담 못한다. 그래도 20주년을 맞는 올해 수여식에는 인원을 늘려 2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한다. 베트남 · 캄보디아 등 다문화가정 아이도 처음 포함됐다.

나누기 위해서라도 그는 본업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냐'를 통해 방송 복귀를 알렸고, 유튜브 채널 '김흥국TV'를 개설하기도 했다.

"'호랑나비'로 유명해지고 그 동안 부처님 가피로 잘 살아왔습니다. 어려움도 잘 이겨낼 수 있었고요. 앞으로도 제가 힘닿을 때까지 장학재단을 운영할 겁니다.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된다고 했듯이 제가 받은 사랑은 나눔으로 회향하겠습니다."

"결핵 봉사 30년 도반에 감사를"

미소원, 11월 21일 결핵협회서 제31회 복십자 봉사부문 대상 수상
1989년 11월부터 환자 후원
밑반찬 봉사 등 매월 지원
지속적인 활동 다짐 계기



"30년 동안 결핵 환자 위해 함께 해준 미소원 봉사 도반들이 상을 받아 너무나 기쁩니다. 아픈 사람들이 힘겨운 시간을 이겨 낼 수 있도록 저희 미소원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함께 웃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단법인 미소원(이사장 장유정 · 사진)이 30년 동안 결핵 환자를 위해 봉사 후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11월 2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 5층에서 열린 대한결핵협회 66주년 기념식에서 복십자 봉사부분 대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미소원은 1989년 11월부터 30년 간 국립마산병원에서 결핵으로 입원한 환자를 위한 후원금 및 밑반찬 등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가족과 사회에서 소외되고 격리된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다.

장유정 이사장은 "매월 정기 봉사 뿐 아니라 김장 김치와 건강을 위한 수육 등 건강식을 환자들에게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자비원 봉사 때부터 미소원 창립 후에도 지속적으로 함께 해준 도반들이 상을 받아 기쁘다"고 말했다.

대한결핵협회는 미소원의 봉사 활동으로 환자들이 따뜻한 사회임을 알고 투병의지를 가지며 적극적인 치료 자세를 갖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밝혔다.

장유정 이사장은 "다음 달에 또 김장 김치와 수육을 만들어 환자분들을 만나러 간다"며 "앞으로 함께 웃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사회 곳곳에 저희 미소원의 활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의지를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 어르신 위한 만발공양

견강암, 11월 20일 고동바위공원서 개최



부산 백양산 견강암(주지 향공)은 11월 20일 모라 고동바위공원에서 어르신을 위한 만발공양을 진행하고 지역 내 독거어르신과 다문화가정 및 조손가정을 위한 쌀 500kg과 장학금을 사상구청에 전달했다.

주지 향공 스님은 "봉사에 함께해주신 신도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산신점안 대재 및 경로잔치

대구 감은사, 11월 17일 개최



대구 감은사(주지 만경)는 11월 17일 산신점안대재 및 경로잔치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만경 스님의 집전으로 진행된 산신점안 탱화봉안식에는 도반 대중 스님과 김대근 감은사 신도회장, 신행단체인 죽림회(거사림회) 총불자회, 불교대학, 108순례단 등에서 200여 명이 참석했다. 예불, 축원 점안의식 후 진도북춤, 풍악과 함께 참석한 지역 주민과 풍요롭고 흥겨운 한마당 잔치가 열렸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제26회 불교문화한마당'

진주불교회관, 11월 16일 경남과기대서 진행



사단법인 진주불교회관(이사장 홍수승)은 11월16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본관2층 강당에서 제 26회 불교문화 한마당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보선 스님, 철현 스님 등 대중 스님과 홍수승 이사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불교문화 한마당은 연화사합창단, 보리울림어린이합창단의 음성공양 등으로 이어졌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영가 찾는법

연결카페 : 백암역리원
http://cafe.naver.com/baikamsa

영가는 본인과 관련된 영가를 천도해야 영험이 있다. 매사에 장애, 신경성, 우울증, 공부가 안되는 학생, 결혼이 안되거나 가정의 풍파, 병명이 안나올 때는 영가의 작용으로 볼 수 있다.

대 상
명리 및 육효초보반, 영가특강반

백암역리원
02)597-1101
2,4호선 사당역 8,9번 출구 먹자거리 골목 안 200m

승가전통 건강활력
마가목(원액)



허산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 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재 분량, 한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KBS1,2 TV 건강하게삽시다, 무엇이든물어보세요, 내고향 스페셜, MBC TV 고향이 좋다. 방영
■ 2019.10.31.(목) KBS1 저녁7시40분 한국인의 밥상 설악산 「마가목」 방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마 가 목(원액)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시주하시는 불자님의 요청에만 보시합니다.

문의 010-9049-2848 (공휴일·야간전화 사절)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270호 | A13 | 전면광고

노여움과 인색함에서 떠난 사람, 좋다 싫다를
모두 버린 사람,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숫타니파타》에서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질병, 간암, 묘터, 유산낙태 조상영가, 교통사고, 이혼수, 직장 승진운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 **출장 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명리구성학, 육임학, 성명학

010-4014-8822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 찰 행 사 전 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튜브」에서 **대명스님**을 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허리병 고치는 법 받을분 배울분

저서 |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 내 몸에 맞는 체조로 허리병 고친다

중풍예방. 디스크. 협착증. 불면증.
성인병 등 **각종 질병**
한번만 오시면 퇴치 가능

2대째 이어온 운동법 **발명 특허 획득**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검색
50년 전통 상담

010-3829-7582

수강생 모집

- **기문둔갑**, 실전해단풀이 특강
- 속성 5개월 과정 • **한문 몰라도 됨**
- 원하시는 시간에 무료 청강 가능
- **스님 환영합니다**

수강료(5개월) 기문둔갑 150만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용지로95
스님 010-7589-5950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책-검색★

①**인생최고의 깨달음**(참불교)
②**천기소설 예언자**(현존불)
③**기도와 명상**(최상수행법)
④**천등산**(신통해탈기도비법)
⑤**출세의 기술**(성공출세술)
⑥**운타이밍재테크**(평생부자)

위 책이름검색 / 1권 구입해보세요

문의 010-5105-5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3263-6544
010-5270-8260

불 교 용 품

고 가 매 입 전 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사찰화재 보험

•목조건축물 OK!!•

전국 최다 사찰 가입

010-7344-1881

재의식 속성 지도도량

49재 천도재 속성지도합니다.

사찰 포교원 암자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없이 염불소리로 재의식을 여법하게 진행할수 있게 속성으로 지도합니다. 관심있는분 연락바람.

매주 금요일 오후 2시~4시까지 (4주완성)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204
중앙시장내 법공스님
010-4382-3448

충북 감곡 봉은사 공양주 모십니다

60세이상 가족같이 지내실분

봉은사에서는 스님분들 염불, 음치교정, 전통가요, 민요, 관음시식, 체계적으로 강의

문의 010-5883-2255
010-5893-3705

• • • 부 전 스 님 모 십 니 다 • • •

010-2078-9595

• • • 사찰처사 (운전가능)님모십니다 숙식 필수 (60세 이상, 경기도) • • •

010-9157-2276

상담사 무료 양성교육

※상담사 양성 교육대상※
종교인, 장애인, 극빈자, 부부문제상담

한의학과 질병치유 심리학, 신경성 질환 치유법(세계최고 권위자신)

암과 우울증은 싸워 이길수 있다.

3일간씩 순회강의하며 비용발생시는 지불요

출장전문 무료상담사 양성인 정한
010-4078-7810

신 통 력

손에 쥐는 방법을 스님에게만 전수합니다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1-741-0867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후공부100%(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함

문의: 054-753-8228, 010-8852-0075

단원 정통 명리학

- 교육 : 수시접수 | 초급, 중급, 연구(격국)반 접수 | 1년 과정 — 수강료 : 360만원
- 단원 정통 명리학 : 실증철학 정규과정 수강생 접수 — 단원역리학협회 법인 자격증 제도
-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 학문

지현명리연구원 : 역학전문교육처 志睍 : 韓 基子(恩炅)
명리학 / 작명학 / 육효학 / 간지체성론과 육십갑자론(특허)

주 소 서울시 종로구 명륜4가 54-1 3층 웹사이트 cafe.daum.net/3332han cafe.naver.com/3332han

단원역리학협회 010-4470-6314

수강생 모집(그림)

- **수업 : 산수화, 풍속화, 달마도 ,동자승** • **장소 : 서울 인사동 미술 교육관**
- **매주 화요일, 수요일 주 2일 [월 8일]** • **수강료 : 월10만원**

그림에 소질이 없어도 관심있는 분 이라면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연락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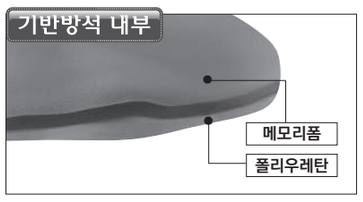
청곡 이한동 화백

02)2004-8216 / 010-3747-8692

세 계 최 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샵 TEL 02)2004-8216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국제 붓다 평화봉사단

국내외 활동 자원 봉사자 환영합니다

지구촌 그늘진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온 여성 불자 봉사단 입단의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02-733-5665



매듭으로 뭘 만들까요?

모던하고 멋있는 장신구는 물론, **108염주**, 인테리어 소품, 단주, 묵주도 만듭니다.

매듭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드립니다.

지도 성낙윤 010-5282-8431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 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 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의 한 종류로,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 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희담석 108염주 세트 40,800원(무료배송) | **구성** : 108염주 + 합장주 | **크기** : 직경 10mm

계좌 안내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02)2004-8216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구입 문의 | 02-2004-8216

입금 계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명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 때 꼭 필요해요.



다보명차 (유기농 야생녹차)

최고의 향, 맛, 빛깔, 효능으로 머리 시원, 몸 따뜻
수행 짱! 아랫배 단전에 기운 모여 손발 따뜻!
우수한 제조 비법 100℃ 물에 차잎 생생~ 떫은 맛 NO!



氣 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 힐링베개 스스로 딱 맞게 조절하는 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삼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 장단지, 허벅지, 엉덩이, 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 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2019년 11월 27일 수요일 | 불기 2563년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7㎝: 7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270호 | A14 | 전면광고

남의 허물을 보면 입을 다물라.
자기에게 나쁜 점이 있으면 응당
들추어내야 한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법원주림》에서

삼보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 대지 : 8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20평
◎ 가액 : 2억 8천

◎ 위치 : 인천
◎ 대지 : 101평
◎ 법당 : 34평
◎ 요사 : 34평
◎ 가액 : 12억

◎ 위치 : 부산
◎ 대지 : 196평
◎ 법당 : 30평
◎ 요사 : 35평
◎ 가액 : 6억 8천

❖ 오랜 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 사찰, 포교원을 찾는 스님이 많이 이용하시여 뜻을 이루시고 나날이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절대 비밀보장 ●
전국사찰 급히 구합니다.

문의전화 010-6722-2211

포교원 전세 안내

-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루원시티(인천전철2호선 5분거리, 서울7호선 연말개통)교통편리
- 주변재래시장 인근 유동인구 최다, 20년 운영중인 포교원
- 3층건물 : 반지하 1층 요사채(방2개, 공양간, 야외화장실), 2층 주지실, 상담실겸 서재, 거실. 3층 법당, 제반시설 완벽하고(삼존불, 신중탱화, 칠성, 산신, 소불, 인등)
- 주차장 및 도시가스 시설 완벽, 몸만 오세요
- 전세 사신 후 저렴하게 양도가능, 투자가치 확실
- 전세보증금 : 2억(절충가능)

문의전화 010-5002-7392

강남건물 안내

- 가액 : 39억 5천만원
- 위치 : 서울 서초구 논현역 1분, 신사역 5분
- 대지 : 78평(3층) 연면적 : 165평
- 규모 : 지상1층 ~ 5층 2009년식, 승강기

010-5334-9814

광진불사

◎ 위치 : 서울
◎ 대지 : 200평
◎ 법당 : 50평
◎ 요사 : 60평 외
◎ 매가 : 27억 5천

◎ 위치 : 강원도
◎ 부지 : 7000평
◎ 법당 : 30평,외
◎ 요사 : 60평,외풍광보장
◎ 매가 : 20억 5천만원정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채권 채무상담 받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급)안내

스님건강상 이유로 급매합니다

- 대지216평, 건평60평, 2층건물 ●6억5천만원 가격절충 ●경산지식경제사업지구(2022년완공)내 공원 유원지앞 사찰 ●인근 팔공산 갓바위 주변위치 ●진입로6m도로 고속도로5분거리 ●경제사업지구완공시 투자가치200프로

010-7317-8866

사찰 임대합니다

-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근처에 있는 사찰
- 대지 700평 : 대웅전. 지장전. 관음전. 산신각. 요사채
- 전세 5천만원 / 월 50만원
- 공양주가 있어야 함

010-3636-6477

사찰(급)안내

- 위치 :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만수소방소 건너편)
- 평수 : 단독건물, 지하1층, 지상3층, 건평 110여평
- 건물 : 지하1층-창고형,1층-공양간(방3개,화장실), 2층-방3,화장실, 3층-법당,3존불,지장불상,칠성,산신
- 가액 : 3억3천5백(사찰연력:40여년)
- 답사 하실분만 연락요망

010-8360-8259

사찰 안내

-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평수 : 470평
- 가액 : 6억(절충가능) ●조건: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기타) ●주변 주차시설 양호함 ●도시가스, 상수도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쪽

010-3128-2399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나주 동강면
- 대지 230평(임대)
- 법당 20평. 산신각 10평
- 요사채 2동. 범종각
- 영산강 전망이 좋음
- 가액 : 3500만원

010-7637-1250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시내 대단지 아파트 뒤 산속. 차량 진입 불가
- 3만평 중 5천평 지분 등기가능
- 가액 : 4억 6천(조정 가능)
- 무허가 건물 ●종무소.삼성각. 용왕전. 다실. 창고 각각 한동
- 1층 화장실(해우소)/2층 공양간 /3층 법당(큰법당)

011-9394-8511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 납골당 5000개 가능
- 가액 : 12억 5천(가격절충가능)

010-5421-153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 대지 194평. 건평 43평
- 법당. 칠성. 산신. 용왕. 나반. 방 친견실. 공양간. 샤워실. 화장실
- 외부시설 : 용왕연못. 탑. 남여화장실 등
- 시설일체. 최고입지요건 갖춘 암자
- 가액 : 2억 3천만원(급양도)
- 사전 전화요망

010-5427-3699

사찰 안내

- 위치: 경남 산청군
- 대지: 600평, 주차 30대 가능
- 주건물: 대웅전(53평), 요사채, 선방, 화장실, 부속건물: 삼성각, 용왕각, 선방, 요사채, 삼층사리탑, 일주문, 창고, 화장실, 기타
- 가액: 답사 상담후 결정 (인연있는 스님께 크게 내려 양도)

010-8957-8089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 시내
- 대지 : 200평
- 법당 : 20평
- 요사채 : 40평
- 산신각 : 10평
- 몽땅 : 1억 1천만원

010-3323-7000

사찰 안내

- 위치 : 구미근교(북삼읍)
- 대지 : 약 178평
- 건물 : 1층 약 100평 실내골프장 (월세 120만원 나옴) 2층 : 법당 및 요사채(약100평)
- 가액 : 6억 5천 (대출3억2천 포함, 조정가능)

010-8008-6781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포교원 안내

- 위치 : 시흥시 정왕동. 정왕역 차로10분,안산20분 ●총110평정도 4층 전체 및 옥상 전체 사용 ●삼존불(상단),신중단(홍탱화),산신탱화,약사전(약사관음,후불탱화), 영단(목단상조성) 법당 약 70평 이상 ●사찰소임으로 급히 결정되어 부득이 ●몸만오셔서 즉시법회가능 ●큰방3(에어컨),사무실1.다용도실1.공양실.법당.앰프시설,에어컨2대 ●보증금:1000만원.월150만원(보증금에따라 월임대료 조절가능) ●총시설비 6500만원. 현포교원개원13년이상. ●월곶,배곧신도시아파트대단지,서울대학교,이마트,대부도,오이도 근교

010-8599-9468

포교당 안내

- 위치 : 충남 공주 계룡
- 평수 : 약 50평. 큰방. 거실. 중간방 2개. 마당. 기름보일러 별채 : 큰방1. 거실1. 화장실1
- 독채 전세. 위치 좋음
- 역학이나 무속신앙 하시는 분도 가능
- 가액 : 3500만원

010-3293-1705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 4층 건물에 3층, 40평
- 법당, 상담실, 방2, 주방, 화장실, 주차장, 옥상에 창고사용, 도시가스
- 보증금 1500만원 / 월세 50만원 (시설비 협의)

010-8695-6537

사찰(급)안내

- 위치 : 원주 미륵산 명당터. 경관좋음.
- 대지 : 1239평. 주차 약 30대 앞에큰도로. 버스정류장 약 300m
- 1층 요사. 2층 법당.삼성각 약 20km. 원주시청.충주시청.문막읍
- 가액 : 6억 5천
- 답사 하실분만 전화요망

011-371-5567

토굴(급)안내

- 위치 : 부산금정구 지하철2분,버스2분 거리
- 골프장옆, 법당.요사.주방50평, 산신각3평
- 대형마트 은행 병원 시장 전부 다 있음
- 오르막 없는 평지에 주차 공간 넉넉함
- 전월세 가능(보3천/월35만, 시설비無)
- 인연 닿는 스님께서 먼저 전월세로 살아 보신 후 양도도 가능 합니다.

010-7121-3030
010-3574-3303

사찰건물 안내

- 위치 : 서울 성북구 정릉동 등산로 접함
- 주차가능, 공기맑고 텃밭있음
- 건평 : 30평, 국유지 90평
- 보증금 5천만 / 월 50만

010-3885-8989

멋진 2층상가 안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 대지 : 총 217평
1층 : 상가 약 45평(방6개)
2층 : 주택 약 35평(방3개.거실. 화장실)잔디마당 및 조경좋음
- 가액 : 3억에서 5천 빼드립(조정가능)
-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사찰 안내

- 위치:경기 파주 지역 ●대지:90평
- 1층. 건평70평 중 50평. 황토방 편백
- 법당 2층 30평. 바로 법회 가능
- 서울역~파주지하철.교통편리.주차편리. 최상시설.시야 광활한 동향집(용도:사찰. 포교원. 교육. 명상센터. 쉼터등)
- 가액:4억 7천만원(조절가능)

010-2122-0075

별장같은 토굴

- 위치 : 경북지역 일월산자락 아담한 현대식 목조건물
- 앞마당에 계곡물 흐르고 스님 공부하시는데 아주 좋은 도량
- 대지500평.농지500평.건평 30평.법당은 토목공사 완료
- 가액 : 2억3천(가격 절충 가능)

010-5424-4969

사찰 안내

- 위치: 경남 창원시 마산근교
- 법당 : 38평 ●요사 : 65평
- 대지 : 1천평 ●임야 : 4천평
- 가액 : 11억

010-4547-4990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 4층건물 2층, 30평, 법당, 삼존불, 방3개, 식당, 화장실2개
- 보증금 1천만 / 월 60만
- 시설비 500만
- 스님 건강때문에 급매

010-3884-0122

포교원안내

- 위치 : 포항시 남구. 4층 건물 내 2층(45평). 시설 특A급
- 법당 : 칠보 삼존불(석가, 관음, 지장) 천수천안. 신중단. 영단. 수미단 3단
- 소불 : 550불. 법당, 요사, 공양간, 창고
- 촛대, 향로, 불기, 다기(전체 방자) 등 320개
- 보증금 1천만원 / 월 35만원
- 시설비 : 3천 5백만원

010-8424-0042

사찰·기도(터)안내

- 위치 :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주록리 148-2번지, 북여주IC. 동곤지암IC에서 10분거리 기도터로 좋은 대지.전답(650평)
- 토지 : 2148m²
- 건축물면적 : 135.49m²
- 가액 : 4억5천

010-9506-2549

사찰 안내

- 위치: 경남 하동군(지리산 청학동)
- 부동산 양도
1. 한옥: 건평 155평, 대지 1,180평 / 15억 5천만원.
2. 유스호스텔: 건평 230평, 대지 600평 / 9억원
3. 전답: 700평 / 평당 35만원
- 블로그: https://blog.naver.com/ree3101

010-3835-7137

사찰 안내

- 위치 : 거제시 중심부
- 대지 : 2103m² ●법당 / 요사 : 329.4m²
- 창고 / 기타 : 약 25평
- 대형 불상 및 석등, 조형물 다수 있음
- 주차장 넓고 경관 좋음
- 가액 : 6억 7천

011-9143-0098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마당 22평,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버스정류장 앞, 옥상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1,900만원
-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99만원

02-957-0824
010-7409-0490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 2층건물에 2층, 약 80평 쑥뜸방 약 20평 겸업, 고정수입 있음.
- 삼존불 봉안, 호신불, 108불
- 보증금 250만 / 월 35만
- 시설비 4000만
- 역학하시는 분이나 법사 환영

010-9422-1233

포교원할분

- 위치 : 서울 강서구 화곡동 / 2층 20평
- 근처 시장 건물주가 협조함
- 보증금 300 / 월세 50 주방 설치됨

010-5381-1419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상북면
- 대지 : 약 100평
- 건물 : 법당 30평. 스님방. 주방. 화장실 있음
- 산신각 : 3평(용왕당 별도 있음)
- 가액 : 6억 5천
- 대출 : 1억 7천

010-9042-7799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회원구 내서읍 (내서IC 3분거리)
- 대지 100평. 법당 25평
- 요사채. 스님친견실. 산신각 대형주차장
- 가액 : 2억 8천만원

010-5550-9725
010-4001-8476

토굴 안내

- 위치 : 밀양시 산외면 금곡4길 68-81 ●대지 660평. 남향. 요사채 포함 ●11동. 무건물. 법당 25평. 2017년 건축 ●현재사용 : 천평(약수물. 각종 유실수 다량) ●사륜구동차량 진입가능(주차장) ●가액 : 3억 5천

010-9203-1165

포교당 안내

- 위치: 부산시 부산진구 개금동
- 3층건물중 1층 대지32평 건평28평
- 건물: 법당 삼존불, 방3, 화장실(실내/외)
- 가액: 보500 월40, 시설1300
- 즉시입주, 몸만 오시면 됨

010-2786-2474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불교조계종대학림 02)511-1080

불교조계종(총무원) Tel 02)511-2026~7 | Fax 02)511-2028

포교원안내

- 위치 : 동대문구 신이문역 3분거리 삼존불,신중,산신,지장,칠성
- 법당 겸 거실,작은방1,주방,화장실, 창고2개,고정주차1대,3층건물 중 1층
- 보증금 : 천만원, 월50만원
- 시설비 500만원(즉시법회가능)
- 스님,무속인 혼자운영하기 참 좋은곳

010-5129-5275

토굴안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이서면 마을 안. 186평
- 조립식 법당. 15평
- 청동, 삼존불, 후불, 104위신중, 독성, 산신 탱화, 요사채, 냉방, 온히터, 앰프시설 완비, 주차시설 완비, 창고 등
- 보증금 1000만 / 월세 30만
- 시설비 2900만. 절충가능

010-9150-0029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287쪽 | 10,000원

구입문의 — 02)2004-8216 •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218쪽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292쪽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日노승, 인도불교 부흥 이끌다

30만 불가촉천민 개종시킨 사사이 슈레이 스님

색욕 강해 세 차례 자살 시도
인도 여행 중 '남인도 가라'는
용수 보살 계시 받고 남인도行
그곳서 불가촉천민 전도 결심
30만명 불법 전도하며 큰 반향
"나는 천민과 인도불교의 노예"

박영빈 객원기자

힌두교가 최대의 종교인 인도. 반세기 전엔 불과 수 십만 명이던 불교도가 이제는 약 1억 5천만 명으로 폭발적인 증가를 했다. 그러나 이러한 인도불교 부흥의 중심에 한 일본인 스님이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지난 11월 14일 일본의 '분슌 온라인'은 기이한 삶을 살며 인도불교 부흥에 힘써온 사사이 슈레이(84) 스님을 특별 보도했다.

슈레이 스님은 1935년 일본의 오카야마현에서 태어났다. 스스로를 "엄청난 호색한"으로 청년기를 회상한 스님은 "이상하게 이성에 대한 흥미가 강했다. 결국 이러한 색욕에 절망하여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다"고 고백했다. 스님은 "자살시도로 쓰러져 있던 것을 한 스님이 구해주신 것을 계기로 출가자가 됐다"며 출가 사정을 말했다.

이후 스님은 태국으로 유학을 떠났지만 "태국에서조차 치정관계에 놓였다. 출자가로서 수치심을 느껴 도망치듯 인도로 떠나 왔다. 이것이 32세 때의 일"이라며 인도로 온 계기를 설명했다.

인도로 건너온 스님은 옛 왕사성 유적이 있는 라즈기르에서 수행하며 일본으로 귀국을 준비했다. 그러던 중 신비한 꿈이 스님의 인생을 바꿨다. 스님은 "어느 날 밤 꿈에 용수 보살이 나타나 '그대는 속히 남인도의 나그푸르로 가라'는 말씀을 하셨다. 기이하다고 생각해 그곳으로 여행을 떠났다"고 전했다.

우연의 일치인지 나그푸르는 암베드카르 박사가 인도불교 부흥을 천명하고 최초의 대규모 집단 개종식을 봉행했던 곳. 슈레이 스님은 이곳에서 당시 인도불교의 상황을 알았다고 말했다. 스님은 "암베드카르 박사가 집단 개종한지 얼마 안 되 급사한 후 인도불교 부흥은 정체기로 접어들었다. 그래서 승려로서 인도불교 부흥을 반드시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인도 불교부흥 운동에 뛰어든 계기를 설명했다.



불가촉 천민들의 집단 개종식에서 전계사를 맡고 있는 사사이 슈레이 스님의 모습. 사진출처=분슌 온라인

스님의 포교활동은 순탄치 않았다. 공원에서 염불하는 스님에게 돌을 던지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스님의 일심불란한 모습에 차츰 사람들이 찾아왔다. 대부분 불가촉 천민들이었다.

스님은 카스트 제도라는 굴레로 절망에 빠진 불가촉천민들에게 "평등을 가르치는 불교라면, 인간의 존엄성을 되돌릴 수 있다"고 가르쳤다. 스님은 "개종만으론 생활환경이 변하지 않는다. 보시금을 모아 학교나 병원을 세우고, 상위 카스트로부터 차별 받은 이들을 모아 조직적인 항의를 이어나갔다"며 불가촉 천민들과 개종한 불교도들을 위해 진행해온 활동들을 말했다.

또 힌두교도가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다가야의 마하보디 사원을 불교도의 품으로 돌리기 위한 투쟁도 16년간 이어오고 있다. 최근 스님의 항소로 인도 최고재판소에서 재판도 시작됐다.

스님의 노력은 인도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스님은 지금까지 약 30만 명 이상의 불가촉 천민들을 불교로 개종시켰다. 스님은 네팔의 카트만두에서, 인도의 최남단 타밀나두까지, 개종을 원하는 이들에게 기꺼이 계를 주기 위해 달려갔다. 이러한 스님의 활동은 항상 순탄치는 않았다. 위기의식을 느낀 힌두교 과격파 신도들에 의한 세 차례의 독살 시도도 있었다. 비자가 다 된지도 모르고 활동하던 중 불법체류로 체포 된 적도 있었다.

스님은 "불가촉 천민들은 노예로부터 불교도가 됐다. 나는 그들의 노예, 인도불교의 노예다"라며 "죽는 순간까지 '싸우는 불교'로서 불가촉 천민과 소수자인 불교도의 권리향상 등 인도 불교를 위해 일하다 죽겠노라"고 결의를 보였다.

日천태종, '에이잔 기숙사' 폐지



출가자를 모집 · 양성하던 일본 천태종의 에이잔 기숙사. 2005년부터 이어진 장기 휴원 끝에 폐지가 결정됐다. 사진출처=교토신문

출가 꿈꾸는 청년 인재 교육
'취업적 출가' 지원 증가하자
2005년부터 장기휴원 들어가
"역할 다해… 교육 포기 아냐"

불교와 인연이 없지만, 출가를 꿈꾸는 젊은이들을 출가자로 양성하던 일본 천태종의 '에이잔 기숙사(叡山學寮)'가 폐지 됐다.

11월 15일 일본의 '교토신문'은 이 안타까운 소식을 보도했다. 폐지에 붙여 일본 천태종측은 "일정 역할을 다한 끝에 자연스럽게 폐지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1995년 일본 천태종은 불교와 인연이 없지만 출가자를 꿈꾸는 젊은이들을 공모, 지도하는 교육기관인 '에이잔 기숙사'를 개원했다. 2년제의 기숙사는 본산에서 교학과 수행을 배운 후 정식으로 구족계를 받는 시스템으로 운영됐다.

지원자들이 불교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종교적인 신심과 인성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했다, 당시 일본 천태종은 "승려의 세습화가 진행되면서 종단이 폐쇄적인 사회가 되는 것을 피하고, 새로운 바람을 환기하기 위함"이라고 개원 취지를 밝혔다.

개원 첫해에는 전국의 지원자가 쇄도해 정원을 꽉 채우는 등 사회적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첫 기수의 수료자들도 낙오자 없이 출가해 모두 각자 수행을 거듭하거나, 말사 주지로 취임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기숙사가 개원된 시기와 일본의 경제 불황이 겹치면서, 지원자들 가운데 안정적인 취직처로써 출가를 희망하고 있는 등의 문제도 발견됐다. 기숙사 공모에 따라 매년 일정 수의 지원자는 있었으나 종단이 바라는 인재상과의 차이가 점점 커졌다. 결국 지난 2005년 교육방식과 지도방법을 재검토하자는 의미에서 모집을 중단, 무기한 휴원에 들어갔다.

일본 천태종은 종단차원에서 운영위원회를 발족, 검토를 거듭한 끝에 올해 8월 하순 완전폐지로 결론을 매듭지었다.

운영위원회는 "경제 불황등 사회상황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신앙에 대한 생각과 사상도 크게 변했다"며 더 이상 기숙사를 운영하는 데 유효한 방법을 도출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일본 천태종 교학부장 모리타 겐신 스님은 "수료생들 가운데는 현재 천태종에서 가장 어려운 수행중 하나로 꼽히는 12년간의 칩거수행(籠山行)을 희망하는 이는 물론, 각지의 말사나 지방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에이잔 기숙사는 일정의 역할을 모두 다했다"며 "이번 폐지가 교육의 포기가 아닌,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印, 불교 연구·유적 재건 '박차'

불교 고고학 국제대회 열고
최신 발굴 · 연구 성과 공유
대규모 불교유산공원 완공도



인도 문화부는 '불교 고고학 국제 학술대회'를 열고 최신 연구들을 발표했다. 사진출처=더 힌두

인도에서 최근 불교를 재조명하는 활동이 활발하다.

인도의 유력언론지 '더 힌두'는 11월 16일 인도 문화부가 개최한 '불교 고고학 국제 학술대회'를 보도하며 중인도 안드라프라데시주에 불교문화유산공원 '붓다바남(Buddha-vanam)'이 완공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인도 텔랑가나주의 하이데라바드에서 열린 '불교 고고학 국제 학술대회'는 인도 문화고미술부 장관 슈리니바스 구드(Srinivas Goud)의 개회사로 시작했다.

이날 슈리니바스 장관은 "카스트, 종교, 차별이 인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오늘날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발전하고 있고, 인도처럼 인구 밀도가 높은 중국 또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는 여전히 뒤쳐져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평등'을 잊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유산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제 풍부한 불교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텔랑가나에서 불교의 역사가 이어질 것이다. 현제 국제적인 관심을 이끌어낼 불교문화유산공원을 건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슈리니바스 장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텔랑가나주를 흐르는 크리슈나 강 기슭, 붓다바남에 113ha에 걸친 불교유산공원이 건설 중이며 곧 완공을 앞두고 있다.

텔랑가나 문화재 관리국의 디나카르 바부(Dinakar Babu)씨는 "여기 텔랑가나에 사는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 불교를 따랐다. 우리는 현재 많은 지역들을 탐색하고, 조사 결과를 문서화하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느 때보다 현대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인도 고고학연구소는 이날 열린 학술대회에서 "불교의 가르침을 더욱 명확히 고증하기 위해선 경전적 증거보다는 고고학적 증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학술대회나에서 주목을 받은 발표는 고대 방글라데시 불교에 관한 연구였다.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에서 약 70km 떨어진 와리 바테슈와르(Wari-Bateshwar)지역에서 불교 유적이 발견한 학자 수피 모스타피저르 라흐만(Sufi Mostafizur Rahman)은 해당 유적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초기의 역사가들은 불교가 기원전 6세기에 방글라데시에 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정확한 증거가 없는 추측이었다"면서 "이번 연구 결과로 그보다 앞선 시기에 불교가 전파됐음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불교와 시크교 어떻게 통할까

티베트문헌도서관, 불교 · 시크교 첫 공동 연구

세계종교인 불교와 인도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시크교. 두 종교의 가르침을 비교하고 유사점을 찾은 연구 결과가 발표돼 화제다.

11월 16일 인도의 '더 타임즈 오브 인디아'와 '더 트리뷴'은 불교도와 시크교도가 공동 연구한 결과에 대해 특별 보도했다.

인도 다람살라에 소재한 티베트문헌도서관(LTWA)은 시크교의 창시자 구루 나낙(Guru Nanak)의 탄생 550주년을 기념해 불교와 시크교 두 종교의 유사점을 비교 연구한 결과를 출간했다.

시크교는 15세기 인도서 창시된 종교로, 신은 하나의 진리라고 주장하는 종교다. 전 세계에 2700만 신자가 있으며 이중 83%가 인도에 살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연구 결과물인 〈두 스승과 하나의 메시지: 부처님과 구루 나낙〉는 전자도서로 출판 됐으며, 향후 인쇄물로도 발간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연구는 시크교도인 사르빈더 카우르 길(Savinder Kaur Gill)과 티베트 불교학자인 쏘남왕모(Sonam Wangmo)의 공저이며, 두 종교의 최초 공동 연구라는 데서 큰 의의를 두고 있다.

연구소는 논리적인 분석을 중시하는 불교 철학을 바탕으로 시크교의 경전에 대한 철학적 해설을 중심 연구로 하고 있다.

김민재 객원기자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알갱이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회원 우대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부처님의 마음을 빚는 불상 불단 조성 전문업체
한국불상조성원
상담문의 010-3665-6696



정성과 신뢰로 짓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에서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불상제작 방법을 전수받아 한국 불상의 전통과 맥을 이어가고 색바램없이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는 기술적 자질을 보유하여 다양한 불상을 조성하며 전통적인 표현양식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상판매 뿐만 아니라 사찰에 관한 모든 필요한 것을 일체 컨설팅과 자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 대표 이 인 규 합장

불단, 수미단 | 닫집, 운각 | 특수불, 동불, 목불 | 단청개금, 순금개금 | 도금, FRP, 수지
소불, 대불, 모든 탱화 | 위패제작 | 건 축 | 맞춤 조성 가능 | 사찰 관련 컨설팅 및 자문

TEL 031-536-6696 | FAX 0504-398-6696

‘하루’ 삶 속에서 돌아보는 ‘나’



김성수의
글쓰기 명상과 자기상담

㉒ 작은 사유가 만드는 깊은 삶



21자 압축 일기

〈21자 압축 일기〉는 당신의 하루를 촌철살인(寸鐵殺人)으로 정리해보자는 의도로 설계했다. 결코 21자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약속이 대전제다. 어쩌면 당신은 이 약속 때문에 유혹당했을지도 모르겠다. 21자 일기라니. 이 정도야 가뿐하지 뭐! 암, 그렇지. 이렇게 간결해야 해! 만약 당신 마음 안에 이런 말이 있다면 두 가지 무의식이 드러난 셈이다. 하나는, 그동안 일기쓰기를 소홀히 했음을 실토한 셈이고 또 하나는, 그래도 좀 뭔가를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뜻이다.

TV나 온갖 모니터에서 터져 나오는 입말들이 이 시대처럼 번다한 때가 있었을까. 그런 점에서 내가 쓰는 문자는 한자한자가 귀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신 또한 누군가에게 직접 하지 못할 말을 글로 전한 적이 있을 것이다. 자신의 죽음을 극복하고 싶은 인간의 천부적 욕구 또한 문자의 특성과 궁합이 잘 맞는다. 문자는 당신이라는 존재의 물리적 사멸 이후에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문자는 유한 생명체인 ‘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가장 효과적 시스템이다. 특히, 일기쓰기는, 짧게는 자신의 하루를 성찰적 시각으로 씻어내는 방안이고, 길게는 자신의 죽음 너머를 응시하는 태도일 수 있다. 본의든 아니든, 〈안네의 일기〉는 2차 대전 중 15살 유대 소녀 ‘안네 프랭크’에 의해 쓰여진 이후 2009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지금도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일기는 개인의 하루 생을 글쓰기로 정리하고 다음 생을 준비하는 일이다. 일기 안에는 하루일에 대한 기억, 반성, 의미, 사유 등이 담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인간은 시간 당 900호흡을 하고, 평균 2만1천6백회 호흡한다. 단 몇 분만 호흡을 놓쳐도 절명 위기에 빠지는 인간으로서는, 하루 수천 번씩 의미심장한 사건을 겪는 셈이다. 일기를 쓰는 당신은 순도 높고 내밀한 개인사적 진술을 통해 세상과 생화학적 접촉의 결실을 생산한다. 일기를 쓴다는 사실은, 자신의 삶이라는 필터에 걸러진 사연이 당신의 내면에 착근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하루가 죽고, 당신은 다음 생애를 기약하는 잠에 빠져든다.

문제는 당신이 ‘일기따위’를 기록할 겨를이 없다는 점이다. 굳이 당신에게 ‘강제 일기’라도 강요한다면 다음과 같이 진술할지도 모른다. “무슨 일 했는지 모르게 하루 해가 뜨고 진다. 2만1천6백 호흡이라니! 과연 내가 숨을 쉬기라도 했단 말인가. 오늘 하루 단 한 차례 호흡도 기억나지 않는다. 사업장에 전화하고, 친구에게 문자하고, 돈 세고, 작업하는 동안, 호흡이라는 사건은 나에게 없었다. 일기에 적을만한 일은 없지 않지만, 사실은 내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일뿐이다. 그런 것들을 시시콜콜 적는다는 게 참, 하릴 없어 보인다.”

〈21자 압축 일기〉는 그런 당신을 위한 글쓰기이다. 지나치게 간단하다고? 그렇다면 가슴 뛰게 좋은 소식이다. 왜 좋은 소식인지는 당신이 더 잘 알 것이다. 당신이 장문의 일기를 쓴다 하여 말리거나 강제중지시키는 소동은 벌어지지 않을 테니 말이다. 그래도 여기서만큼은 21자 일기를 써보시기 바란다. ‘21자 일기’를 씀으로 해서 몇 가지 이득을 보게 된다. 이런 일기는 당신의 여섯 번째 손가락인, 모바일 폰의 메모장에도 정리 가능해서, 뜻밖에도 기동성 좋은 일기쓰기가 될 수 있다. 모바일 폰을 쓰듯이 언제 어디서든 쓸 수 있는 21자 일기쓰기의 방편들은 다양하다.

- 하루 중, 기억나는 사건의 헤드라인 적기.
-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사건 적기
- 자신을 주인공으로 시(詩)처럼 짧은 글쓰기
- 오늘 만난 타인을 주인공으로 시처럼 글쓰기
- 지금 이 순간의 기억이나 생각을 ‘요점만 간단히’ 정리하기
- 죽음을 앞둔 나를 상상하며, 21자 유언 쓰기

오늘의 매듭 안에 오늘의 삶이 담겨 있고 그것을 잘 확인했을 때, 오늘을 잘 산 것이다. 당신은 내일의 삶을 보장받지 않았다. 물론 지나간 날 또한 헤어진 연인처럼 아련한 그림자는 있을지언정,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은 아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착각한다. 자신의 삶이 영속과 일관된 흐름 안에 놓여 있는 것으로 느끼기 쉽다. 엇갈린 연인 중 어느 한 쪽이 심리적 매듭을 짓지 못했을 때를 생각해보라.

일기는 하루라는 시간의 매듭짓기다. 지지부진한 영속과 일관의 틀에서 벗어나 오늘 하루를 높은 의식에서 조망하고 매듭짓는 자로서, 명실공히 자기 삶의 리더임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21자 일기’를 쓰는 동안,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오늘 하루의 필름을 되돌리게 된다. 이 모든 순간 중에서

일기쓰기는 ‘다음’ 준비하는 일
‘감사’ 느끼면 불안 · 걱정 감소
자신의 사회적인 연결성 실감

단 21자로 압축할 만한 일은 무엇인가. 오늘 하루 중 가장 의미 있다고 여기는 한 순간을 형상화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오늘 하루, 당신 주위를 떠돌았던 말 중에 가장 의미 있는 ‘대화’를 적는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삶은 하나씩 매듭을 짓고 가는 일이다. 오늘을 잘 산다는 것은 확인이라는 매듭을 잘 지었음을 의미한다. 고기를 담은 망태의 끝지점, 호흡을 담은 풍선의 끝지점, 정성을 담은 보자기의 끝지점에는 매듭이 있다. 매듭은 예외없이 가두고, 담고, 정리하고, 풀어내는 역할을 한다.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의 시간을 예쁘게 매듭 짓는 일. 〈21자 압축일기〉다.

깨알감사 글쓰기

‘깨알감사 글쓰기’는 당신의 생애에서 깨알처럼 작은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일이다. 감사는 마음의 두 측면 중 어느 한 쪽을 선택하는 마음이다. 소위, 파충류의 뇌라고 하는 ‘싸움, 도주’ 반응처럼 당신이 겪는 모든 사안은 ‘감사 아니면 불만’의 영역이다. 누군가는 ‘무관심’도 있지 않냐고 하지만, ‘무관심’에 감사가 있을 리 없고, 모르는 것을 ‘무관심’이라고 분류할 수 없으니, 무관심은 곧 ‘불만’의 영역이다.

감사는 일종의 선택이다. 두 갈래 길 앞에 선 것처럼 원론적 심리작용이다. 가령, 당신이 길에서 강도를 만나 가진 것을 모두 빼앗겼다고 하자. 사건 직후 당신은 두 감정 중 하나를 반사적으로 선택한다. 하나는, 재수 없는 날이라며 퉤퉤 침뱉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강도를 만나 손끝 하나 다치지 않았으니 얼마나 다행이냐며 감사하는 마음이다.

당신은 하루 중에 이런 선택을 얼마나 자주 할까. 더워서 짜증나고, 혼자여서 외롭고, 돈 없어서 두렵고, 목감기로 따갑고, 동료의 말투에 놀라고, 하는 일을 겪을 때, 당신은 무의식 중에 불만 혹은, 감사라는 선택지를 받아든다. 많은 사람은 자신이 어떤 감정 선택을 거듭하는지조차 모른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감사’나 ‘불만’은 당신이 채택한 정서다. 그 두 감정 중 하나가 반복되면 감정습관이 되고, 감정습관이 다름 아닌 인연을 만드는 에너지 원이다. 보자. 나의 생애는 인연빼고 나면, 없다.

심리학자 마이크 베이어는 저서 〈베스트 셀프〉에서 ‘감사’의 이득을 열거한다. 감사를 하면, 불안, 걱정 등이 줄어든다. 우울감이 사라지고, 걱정이나 두려움도 현저히 줄어든다. 특히, 자살과 같은 극단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준다, 고 적는다.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그가 권하는 것이 ‘감사 목록 적기’이다. 감사 글쓰기는 긍정정서 근육강화이자 사회와의 연기적 알레고리를 실감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물 한잔을 앞에 두고, 이 물 한 잔이 나에게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존재가 움직였는지, 명상하는 수행처가 있다. 당신도 한번 해보시라. 당신 의식의 확장성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 오늘하루, 모든 일에서 감사 측면 찾아 적기
- 살아온 날에서 감사할 만한 사건의 머리글 적기
- 고마운 사람 이름 적어가기 (이름이 생각나지 않으면 인상이나 그를 만난 시공간)
- 자신의 몸 습관, 감정 습관 등에 숨어 있는 감사의 측면 찾아 적기
- 미운 사람, 부정적 관계에 있는 사람의 감사할 만한 측면 찾아 적기
-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사람과 사건의 고마운 측면 발견하고, 정리해주기
- 기억나는 부정적 사건을 간단히 적고, 그나마 다행이거나 고마운 측면 찾아 적기

‘감사’는 무조건 긍정적 측면만 드러내고 부정적 측면을 감추는 행위가 아니다. 그런 감사는 위험하다. 대학 강단에 서는 후배 G는 몇몇이서 만든 단체 톡방에서 감사의 말을 전해주는 역할을 도맡았다. 울림과 깊이가 남다른 불교 경전의 내용이나 성경 말씀, 아름다운 해석의 언술을 전해주었다. 단체 톡방 동문들은 매일 아침마다 전해오는 그의 글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했다. 어느날 G가 이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날도 G는 인생의 교훈과 감사의 글을 올렸었다. 나는 혼란에 빠졌지만, G에게 직접 근황을 묻지 못했다. 단체 톡방에 매일 올라오는 그의 글에서는 중대한 가정사의 기미를 포착할 수 없었다. 나는 끝내 그의 소식을 직접 들을 수 없었다. 그가 얼마전 생을 마감했기 때문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G가 만약, 자신이 겪고 있는 여러 격변을 사실 대로 드러내고, 그나마 남은 고마운 점, 긍정적인 점을 밝혔다면 어땠을까.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다. 나는 이혼하고 싶지 않다. 혼자 살게 되는 두려움, 타인의 폄훼나 실패한 중년의 추레함 따위를 보여주는 게 죽기보다 싫다. 그렇지만, 평생 연금이 있고, 아직 여행할 곳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긴 잠을 잘 수 있고, 아내가 싫어하는 숲속의 야영 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어 감사하다.’ 이 정도라도 자신의 고뇌를 밝히고, 감사거리를 발견했더라면.

긍정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 박사나 엘리자베스 티블리로스는 말하고 있다. ‘자신의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긍정이’라고. 당신을 둘러싼 조건의 부정성, 부정적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이라면, 그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힘은 당신에게 무엇이 될까. 위에서 언급한 마이크 베이어의 말을 빌자면, 감사는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연결성’을 실감함으로써 새로운 의욕을 갖게 한다. 감사는 새로운 감사거리를 찾고자하는 엔진과 에너지로 작용하는 것이다.

감사는 무엇보다 발견자의 것이다. 당신의 일거수 일투족에 감사의 마음을 적용하면, 모든 순간이 행운이나 긍정 아닌 것이 없다. 당신의 한 걸음에 대해, 다리를 다친 세상의 많은 사람을 떠올릴 수 있다면, 당신의 한 걸음은 감사의 대상이 된다. 이것이 감사의 발견법이고 삶의 연금술이다. 하나의 생명으로 태어나 연기적 생명체로서 당신의 일거수 일투족은 기적의 연결이다.

작고 미약하고 트미한 것의 발견. 당신의 삶에서 그런 발견이 자주 일어나기를 기원한다. 감사는 주도적 선택이자 ‘겸손’이라는 정신의 드러남이다. 시시콜콜 감사거리를 잘 찾아내는 사람은 주도성과 자신감, 자존감, 정서 탄력성이 좋을 수밖에 없다. 당신이 지금 감사하고 있다면, 당신의 마음은 해발 고도 제로(0)다. 그 바다의 밀물과 썰물처럼 조화로운 상태다.

〈마음과학연구소 대표〉

그림 족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레드)
42수진언 족자 (그린)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 진언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고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卍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중의 ‘못쟈못쟈’ 확대사진



42수진언 족자 중의 ‘여의수주 진언’ 확대사진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80,000원	
	사찰용 65×145cm 가정용 45×110cm	
색상	그린 · 레드	그린

특별증정 족자 구입시 10,000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대행 스님

우리가 평생을 사는 것보다 한 찰나의 한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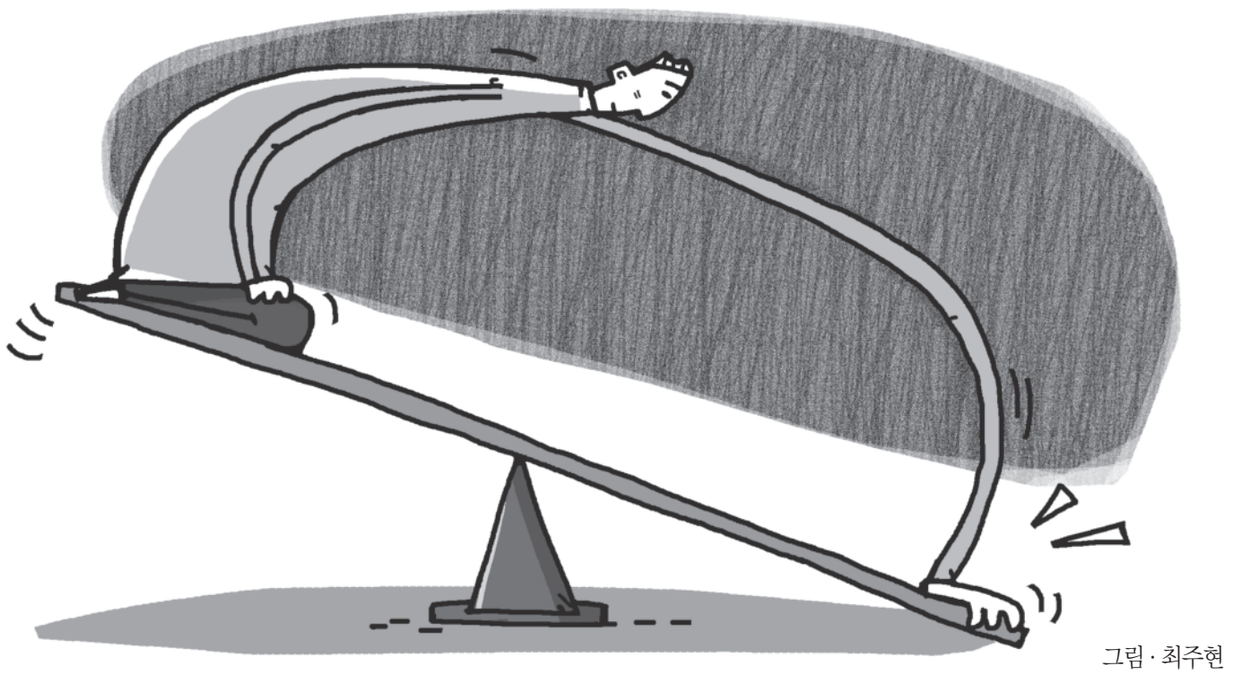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오늘도 영원한 오늘이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항상 한자리를 하고 돌아가면서도, 나날이 밤이 지나고 낮이 오면 또 오늘이라고 하는 가운데 이렇게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항상 얘기하듯이, 개개인이 이 공부를 안 한다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는 후회할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정신을 잡아먹히고 잡아먹고, 자기 자신들도 모르게 이렇게 먹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정신계의 발전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께 막대한 피해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짐승들은 보이는 데서 서로 잡아먹지만 사람들은 보이는 데서 육체를 잡아먹히는 게 아니라 정신을 잡아먹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육체도 먹히게 되죠.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곤충에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너무도 치열하게 살고 있죠. 어떤 때는 사실 쓴웃음을 웃지 않으면 안 되리만큼 그렇게 비참한 때도 있죠. '모른다면 차라리 괜찮을 것을….' 하는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먹고 입는 거는 스스로 따라오게 돼 있으니 넓게 마음을 쓰고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 부처님 도리는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광대하고 너무나 묘해서 누가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단 하나 '자기가 어디로부터 와서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잘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란 얘기죠.

찰나찰나 나투면서 돌아가는 이 한 생이 길다고 생각하면 길지만 짧다고 생각하면 아주 짧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되는가를 깊이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속에는 모두 자기가 산 대로, 산 차원대로 모습을 쓰고 다시 나올 것인데도 어떠한 모습을 쓰고 나올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가련하게 지금 발버둥이 치고 가는 길이죠. 하여튼 자기가 어떻게 살고 얼마나 진실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모가 나는 것도 둥글게 행할 수 있고 둥글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요다음 생에 나올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다음 생이래야 얼마 안 가면 다음 생입니다. 몸을 벗었다 하면 영혼은 거기에서 빠져나가니까요. 영혼이 빠져나가면 영혼이 있기 이전이 있는 까닭에, 우리가 깊이 생각 안 하면 안 되리만큼 돼 있죠. 그래서 '순간 몸을 벗으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될까?' 하고 한번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지금 금방 죽으면 그만이지 뭘 그래?" 한다면 할 말이 없죠. 하지만 영원토록 길은 돼 있고, 영원토록 벗어나지 못하는 이 길 속에서 헤매고 돌게 되죠.

우리는 물속에서 어떻게 어떻게 도를 닦아서 물 바깥으로 벗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고비가 또 있죠. 물주머니를 벗어나야 되고, 공기라는 이름하의 주머니 속에서 또 벗어나야 하고, 그 속에서 벗어나면 전체 속에서 또 벗어나야 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길다고, 아주 하염없이 기니까 우린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진 마세요. 한 찰나니까요. 한 찰나라는 건, 우리가 평생을 사는 거보다도 한 찰나의 한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 년 전, 몇천만 년 전의 한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 한 생각과 맞먹습니다. 둘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 생각이 중요하니까요.

우리의 몸체 하나를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몸체 하나가 우주라면, 우주 속에 별성들이 헤아릴 수 없이 살고 작용을 하고 돌아갑니다. 큰 거나 작은 거나 똑같으니까 내 한 몸을 가지고 한번 체험해 보시고 경험해 보십시오. 천차만별의 모습들, 생명들, 의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둘이 아니다' 하는 뜻에서 '공(空)이 색(色)이다, 색이 공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몸이 있어야 속에 생명들이 살고, 생명들이 살고 있어야 몸이 있듯이, 둘이 아닙니다. 생명들이 없다 해도 내 몸이 없을 것이고, 내 몸이 없다 하더라도 생명이 없을 것이고 그러니 그것이 어디 둘이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생명체들은 어디서 와서 그렇게 더불어 같이 살게 됐는가? 내가 인연들을 지어서 그렇게 형성시킨 겁니다. 내가 인연들을 짓고 내가 형성시키고 내가 지금 움죽거리고 가게끔 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를 하나 연구해서 만들었다면 그 기계를 누가 만지며 누가 작용하게 하는 겁니까? 기계 만든 사람들이 다 작용을 해서 움죽거리게 하죠. 그렇듯이 우리는 우리가 형성시킨 이 몸뚱이를 우리 자체가 끌고 가는 겁니다. 누가 끌어가고 끌어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자기를 형성시켜 놓고 바로 자기가 그 형성시킨 모습을 끌고 다니는 겁니다. 작용시키는 거죠. 그것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차원대로 거기에 다 부합을 시키는 거죠. 이건 자연의 진리입니다.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고 또는 우리 사는 법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거기에 딱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게끔 해 놓은 것입니다.

오신통 자체가 컴퓨터라고 내가 얘기했죠. 사람이 만든 컴퓨터가 아니라, 이건 자동적인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말과 행동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거기 다 수집이 돼서 입력이 돼 있는 것입니다. 뭐, 요만큼도 여축이 없이 질서 정연하게 입력이 돼 있는 겁니다. 누구의 탓도 할 수 없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 틈에 선지(善知)도 있지만 악행을 범하는 그러한 업식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한 국가에서 별 사람들이 다 살듯이 이 안에도 별의별 마음, 의식들을 가진 생명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자기가 망가뜨리는 것도 있고, 자기 집을 빈집을 만들어 가지고 갖은 영계를 다 불러들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수를 갚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끌어들여서 미치게 만들고, 요즘 가지각색의 병들도 그런 걸로 인해서 다 들어오죠. 그거를 이름해서 영계성이니 유전성이니 인과성이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차원대로 반드시 이 세상을 또 살아야 하니까, 이거는 곰곰이 생각 안 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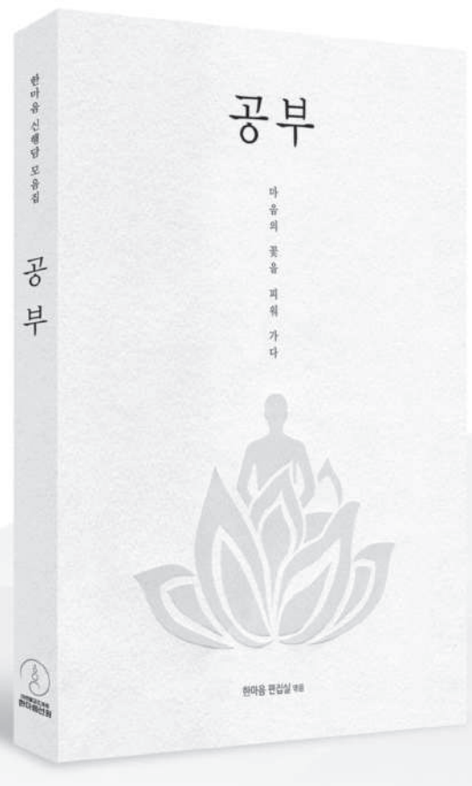
그런데 제가 정말 눈물 나도록 답답한 생각을 하게 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나는 이날까지 밤이나 낮이나 한 번도 내 개인을 생각한 예가 없습니다. 내가 개인으로서 어디 구경을 나간다든가, 내가 딴 사람들처럼 어디 좀 바람을 쐬러 다닌다거나 이런 점도 없습니다. 단 하나, 어떡하면 쉽게 여러분을 이끌어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 답답한 일이 많이 생기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은 그 업식 속에서 마음을 통해서 생각이 나는 거를, 자꾸 꼬리가 꼬리를 물게 오히려 꺼내 가지고 생각을 해요. 안 나는 생각도 일부러 말입니다. 일부러 생각을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나중에 끄트머리에는 커다랗게 만들어 가지고는 그것을 답답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는 것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도 가지고 다니는 게 없죠. 보는 것도 가지고 다니는 게 없고, 듣는 것도 가지고 다니는 게 없고, 만나는 것도 가지고 다니는 게 없고, 먹는 것도 가지고 다니는 게 없고, 다니는 것도 가지고 다니는 게 없죠. 다니면서 그냥 놓고 다니죠? 다니는 것을 끌어안고 다닙니까? 다니는 대로 뒷발자취를 떼어 놓고, 보고 만나는 것도 끌어안고 다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생각을 해 가지고, 오히려 생각 생각을 해 가지고 뭉쳐 놓고선 이걸 답답하다고 그런단 말입니다. 생각나면 나는 대로 놓으라고 했는데, 나는 대로 그냥 용광로에다 넣으면 자동적으로 재생이 돼서 나간다고 그렇게 해도 놓질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놓고 가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가니까 자기는 더불어 사는 인생이지 나라는 게 없다는 얘기죠. 자기 혼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생각해 보세요. 바깥으로 사는 거나 안으로 사는 거나, 안에서 일어나는 거나 그 모든 생명들이 누굽니까, 그게? 자기 몸뚱이 안의 자기 생명들이고 더불어 같이 살고 있고, 더불어 먹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혼자 만나는 겁니까, 어디? 더불어 같이 한마음으로서 그냥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만나는 거죠. 그러니 혼자 만났다고는 할 수 없죠. 혼자 먹었다고 할 수도 없고, 혼자 산다고 할 수도 없고, 혼자 벌었다고 할 수도 없고 혼자 들었다고 할 수도 없죠. 혼자 똥 눴다고 할 수도 없고, 혼자 잔다고 할 수도 없고, 매사 게 그렇게 더불어 같이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자기가 했다는 생각, 자기가 산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 A18면으로 계속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판매처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운주사 02-3672-7181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온라인 주문 현불샵 http://www.hyunbulshop.com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

이 부처님 법은 말 없는 말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 A17면에서 계속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산다고 하고, 내가 했다는 생각을 하고, 내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항상 남을 저주하고 상대방을 원망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내 몸뚱이 하나도 더불어 같이 사는 인생인데, 하물며 이 우주 천하가 다 더불어 같이 살지 어떻게 혼자 삽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놓으라고 놓으라고 하니까, 놓기는커녕 놓는 것까지 들고 있어요. 주인공을 찾으라니까 "주인공! 주인공!" 입으로만 부르는데, 진정코 말없이 통신이 되게 할 수는 없는지, 그것이 참 의문이고요. 그리고 어느 분은 " '주인공! 주인공!'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됩니다." 하는데 하, 참! 내가 항상 얘기하죠. "이름을 찾지 말고 형상을 찾지 마라. 이름도 형상도 네 이름 네 형상이다."라구요.

'일체제불의 마음' 노래하죠? 그거를 잘 생각해서 새겨 보세요. 저 형상은 바로 자기 형상이요, 저 마음은 자기 마음이요, 생명도 자기 생명이요, 모두가 둘이 아닌 까닭이죠. 그래서 법당에 들어오면 같이 하나로 몰아서 놓고 내가 예배 올리고, 나갈 때는 같이 몰아서 안고 예배 올리고 나간단 말입니다. 둘이 아닌 까닭이죠. 이리로 가도 둘이 아니요, 저리로 가도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 잘 생각하셔서 우리가 기필코…. 요즘 이름도 알 수 없으리만큼 병 증세가 많이 나오는데, 병 증세뿐만 아니죠. 가혹한 악행이나 풍기가 문란하고 옹졸한 뭐, 이런 모든 일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체가 지금…, 그렇게 안 해도 늠름하게 살 거를, 그렇게 할 줄 모르고 정신계는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한생각에 만 리를 뛸 수 있는데 이 몸으로 한 발짝을 떼어 놓는 게 그게 뛰는 겁니까? 만 발자국을 뛰는 거보다 한생각 하는 게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무(無)의 세계, 즉 정신세계를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니까 그렇지, 느껴 보세요!

이렇게 가까워요. 스위치를 누르기 이전이 불이 들어오기 이전이고, 스위치를 눌러 가지고 볼 때는 불이 들어온 현실세계예요. 그렇게 빠른 세상을 돌아가면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세계를 그렇게 무시하고 배척한다면 앞으로 우리 이 모습들이 어떻게 살아나갈 겁니까? 악행이나 다른 모든 것들의 원인이 자기 모습을 자기가 못 보고, 자기 분수를 자기가 지키지 못하고,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기 때문에 모두 생기는 결과라고 봅니다. 내가 한 마디만 더 하죠. 그리고 질문 받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나이가 적을 때 얘기죠. 일제시대 때에 일본 사람들 사는 거를, 그때도 그렇게 지켜보려고 지켜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고생을 하고 못살고 그러니까, 그 사람네들은 어떻게 사는가 그거를 보게 됐어요. 우리나라를 침입한 것은 잘못됐다 하지만 뭐를 하나 갖다 줬다면, 하다못해 성냥을 하나 갖다 줘도 그냥 빈 접시를 돌려주는 법이 없어요. 그걸 본 거예요. 빈 접시 주는 법이 없고, 자기 분수를 자기가 반드시 지켜서, 위로 충성할 줄도 알고 밑으로 다스릴 줄도 안다 이겁니다. 아, 그 정신력이라는 것은 투철해요, 아주! 남한테 미룰 생각을 안 하고요. 그리고 분수를 지킬 줄 아니까, 위에 있는 사람을 어떡하면 끌어내리고 내가 올라갈까 하는 생각이 없이, 자기가 맡은 바 소임을 아주 충실히 한단 말입니다. '자기는 그만큼밖에 못되니까 여기 이 자리의 소임을 맡은 거다. 또 나보다 훌륭하니까 윗자리를 맡은 거다.' 그렇게들 하는 거를 볼 때…. 또 요만한 애들도 장난감을 하나 줬다 하면 그 이튿날은 반드시 다른 장난감을 갖다 줘요.

이런 걸 보면서 '야 참, 무섭구나! 아주 철저하게 무섭게 다루어졌구나! 야, 이것이 어디에서 온 건가?' 하고 생각을 하고 그때는 몰랐는데, 그 후에 '아하, 이 법칙이 다 부처님한테서 간 거로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됐죠. 하여튼 부처님의 법을 아니 갖다 쓴 게 없어요. 행전을 각반으로 썼고, 우리 그때의 도포를 하오리로 변경해서 썼고, 우리 오조 가사를 사무라이 총받이로 만들었구요, 우리네 발우공양을 가져다가 자기들 공깃밥으로 변경했고요. 그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그렇게 충실히 받아들이게 된 것은 사명 대사나 서산대사의 그 묘한 광대무변한 법을 보고서 너무나 놀란 나머지 아주 그때서부터 다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인들은 그렇게 정신력이 투철한데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500년 역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남의 탓을 하기 이전에 내 집을 제대로 간수해야죠. 지금 무슨 병, 무슨 병이 들었느니, 나는 누구한테 당했느니 이런 소리하기 이전에, 내 집부터 잘 간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집부터 내가 자유스럽게 다뤄 놔야 그것을 남한테 뺏기지 않고, 내 정신을 뺏기지 않게 돼서 내 몸이 나빠지지 못하게 하지 않느냐, 내 가정을 지키지 않느냐, 내 국가를 지키지 않느냐, 내 국가 안의 국민을 지키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빈껍데기가 돼 가지고도 빈껍데기를 또 잡느라고 애쓰는 거죠.

이거 우리가 하루바삐 마음과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어떤 때 보면 어느 신도는 말없이 왔다가 말없이 그냥 나가요. 그래서 나는 빙긋이 웃죠. 왜냐하면 '허, 저 말없이 하는 거에 맛을 들였구나!' 하고요. 이 부처님 법은 말 없는 말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모두가 전달이 되죠. 일체 만물이 다요. 말로 하면 말이 늘어가서 봉변을 당하는 수도 있지만, 말 없이 말을 한다면 늘어 가지도 줄어 가지도 않아서 아주 정확하게 연결이 되죠. 이 도리를 하루 속히 체험하고 풀어 나가려면, 자기 뿌리를 자기가 아주 진짜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 선지식들이 "야, 네 나무는 네 뿌리를 찾아야 되는 거지 네 나무가 딴 나무에서 찾으면 되느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사숙고해서 한 번 더 다지고 또 다지고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계(五戒)를 저는요, "술 아주 먹지 마라. 도둑질 아주 하지 마라." 이러진 않았죠. 왜 그렇게 바꿨느냐 하면, 술을 먹어도 남한테 피해를 주지 말고, 내가 많이 먹어서 내 몸을, 여러 생명들이 사는 집을 망가뜨리지 말고 적당하게 먹어야 약주가 되지, 만약에 적당치 못하다면 망주가 되는 겁니다. 자기 몸에도 해로워서 결국은 빨리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나 죽었으면 좋겠는데 자기 가정까지 파괴가 돼요. 가족들까지 다 죽여요. 그러니 이렇게 나쁜 일이 어딨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마라." 한 것도 생각해 보세요. 내게 좀 여유가 있는 물건을 내가 딴 사람에게 줘도 도둑질입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이게 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남을 줘도 그게 도둑질해서 주는 거란 말입니다. 허허허…. 그런데, 내가 남을 줘도 도둑질인데, 이거는 도둑질이지만 도둑질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도둑질 아닌 도둑질이죠. 그러니까 함이 없이 하는 도리기 때문에 도둑질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일가친척들이 있는데 말을 잘해서 이쪽 집 거를 저쪽에다가 갖다 주는 수도 있죠. 그거는 말 도둑질을 해서 주는 거나 다름없는데요, 말 도둑질이라 하더라도 둘이 아닌 사랑으로써 맺어지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도둑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말을 잘못해서 연결이 돼서 싸움이 나게 하지 말고, 싸움이 나서 의절한 사람도 이쪽에다 말을 할 때는 저쪽 말을 잘해 주고, 저쪽에다 말을 할 때는 이쪽 말을 잘해 주고, 이렇게 한다면 다 잘못되지가 않는 것인데, 외려 이쪽 말을 저쪽에다가 안 좋게 해 주고, 저쪽에다 이쪽을 안 좋게 말을 해 주고 이러니까, 점점점점 더 응어리가 커져서 죄업이 자기한테 돌아오게 되죠. 그게 말로 해서 짓는 구업(口業)이죠, 구업! 입으로 짓고 입으로 받는다 이겁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니라." 하는 건, "둘이 아닌 까닭에 그 공한 자체도 공했느니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답답한 것마저도 공했기 때문에 답답한 것마저도 놓으면 아주 편안해지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꼭 어떠한 큰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조그만 일이나 큰 일이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조그만 일은 조그만 일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입이 딱 벌어지거든요. 인간으로선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그런 일이나 조그만 일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 **내가 산다, 내가 했다, 내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 **항상 남을 저주하고 상대방을 원망하게 됩니다.**
> **내 몸뚱이 하나도 더불어 같이 사는 인생인데**
> **하물며 이 우주천하가 다 더불어 같이 살지**
> **어떻게 혼자 삽니까?**

어떤 분이 오셔서 "은행에서 차압을 당해서 이제는 옴짝없이 다 뺏기게 됐으니 어떡합니까? 이젠 애들하고 거리로 나앉게 됐습니다."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귓속에다 대고 얘기해 줬죠. "당신만 알고, 당신 주인공이 나가서 일을 하게 만들어. 그럼 될 거야." 그랬어요. 그 사람 주인공이 나가서 일을 하는 거죠. 주인공이라면 원자 속에서 입자가 나가서, 그 입자가 나가는 걸 보살이라고 하죠, 얼른 쉽게 말해서. "부처님 한생각에 보살 천백억이 나가서 응신(應身)이 돼 주느니라." 이렇게. 그거를 얼른 알아듣기 쉽게 말하려니까 부처님 원자 안에서 입자가 나가서 모두 제각기 다 자기 소임을 해 준단 얘기죠. 그걸 거짓으로 생각을 해선 안 돼요. 지금 현실에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정신계로 들어가니까 심성과학이라고 해도 되죠. 심성을 꼭 넣어야 정신계하고 물질계하고 똑같이 중용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물질과학이 돼서 문제가 된 거지 심성과학이라면 어찌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병이 많이 오고 그러는 것도 이 모두가 주인이 없어서 그러는 거니까 내 집을 지키려면 주인을 둬야 내 집을 지키죠. 집을 비우고서 어디 나가려면 집 지키는 사람을 꼭 하나라도 놔두고 가죠. 여러분 그렇게 사시지 않아요?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은 또 '주인공! 너 집 좀 지켜 줘.' 하고선 나가는 사람도 있습디다, 있기는. 허허허…. 그랬더니 고스란히 그냥 있더래요.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이 개개인 집이 한 몸의 집인데, 집주인이 있어야 세균성, 영계성, 인과성, 업보성 이거를 다 막고 대치를 하죠. 그런데 주인이 없다면 대치를 못 하죠. 그래서 자기 뿌리를 자기가 믿어야 한다, 반드시 자기 뿌리에서만이 에너지가 흡수돼서 자기 나무에게 주어진다는 그 믿음을 진실히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그만 얘기하죠. 질문들 하십시오.

질문자1(남) 스님, 저희들이 좀 안됐다 한다든가 좀 뭐한 것을 봤을 때 생각을 내서 마음을 돌려주는 것과 생각이 나서 마음을 돌려주는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하여 주십시오.

큰스님 우리가요, 무슨 생각을 내기 이전에 벌써 뭐가 닥치면 그 닥치는 대로 자기가 그냥 보고 듣고 닥친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아는 거지, 무슨 생각을 내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질문자1(남) 예.

큰스님 그래서 닥쳐왔으니까 '아, 이것을 어떡하면 되지?' 하는 생각이 난 거죠, 그냥? 생각이 났으면 바로 그냥 '이렇게 오게 한 것도 너니까 해결하는 것도 너야.'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생각을 일부러 할 것도 없고 안 할 것도 없고,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내가 말없이 마음으로 하라고 그랬다고 해서 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도 또 하지 마세요. 사람이 환경에 따라서 말을 할 땐 말을 해야 하는데, 일부러 지어서 마음을 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야 그것이 함이 없이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천 마디 하고도 한 마디도 한 사이가 없는 사람이 있고, 한 마디를 하고도 그냥 수없이 많은 말을 한 게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분별하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냥 환경에 따라서 용도가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해서 그냥 거기다 돌려놓고 지켜보는 그런 멋있는 멋쟁이가 돼야죠.

질문자1(남) 예, 감사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4년 12월 4일 법형제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 주요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동시 판매중!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행 스님 법문의 정수가 담긴
2019년 최고의 결정판!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 초창기 법문의
핵심을 모아 한 권으로 엮은 책

삶의 지침이 될 지혜의 가르침들이
내 마음에 꽃이 되어 피어나다!

한마음선원 출판부 엮음 | 양장본 | 총 384면 | 책값 18,000원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04 무진향 031)470-3118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현불 논단

거리민주주의와 파시즘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민주주의 위기는 거리서 발생
내면의 파시즘 성향 발현 쉬워
군중 이분법적 사고, 증오 증가

타자 존중의 시민의식 선결과제
붓다의 연기법과 자비 속 해답이
'칠불쇠법'은 불교 민주주의 단초
붓다 가르침으로 시민의식 고양

거리에 민주주의가 넘쳐흐른다. 수많은 깃발과 함성 속에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조국 사태'로 인해 한동안 거리에 구호가 가득하더니 각종 단체의 함성이 뒤를 잇고 있다. 이번 주말도 서울 시내 교통통제가 많다는 보도다. 그리스의 민주주의를 우민정치로 격하시킨 플라톤이 이 장면을 보면 무엇이라고 할까. 아마도 놀라서 망연자실하지 않을까.

오늘날 민주주의는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가장 바람직한 정치 형태로 평가받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담론 또한 큰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위기의 제일 큰 원인은 '대의 민주주의'의 문제다. 즉, 대표자와 다수 시민 유권자 간의 의견이 일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다수의 이름을 빌린 소수자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절차적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 심의 민주주의 등 다양한 수식어가 붙은 민주주의가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개념 조작만 하면 누구나 들고 다닐 수 있는 '여행용 가방'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붓다 재세 시 마가다국의 왕이 밧지국을 침략하고자 하였다. 마가다국의 왕은 침략하기 전에 붓다의 의견을 구한다. "밧지국을 공격하면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붓다는 직답을 하는 대신 아난에게 오히려 질문한다. "아난아, 밧지국 사람들이 자주 모여 의논하여 정사를 결정한다고 들었느냐?"

"예, 부처님,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는 왕성하여 오래도록 안온할 것이니 빼앗지 못할 것이다."

붓다가 아난에게 던진 7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유명한 '칠불쇠법(七佛衰法)'이다. 이를 현대적 용어로 풀면 '민주주의를 하는 도덕적 문화국의 내용'이다. 이런 나라는 침범하여 정복할 수 없는 매우 강한 나라이다. 마가다 국왕은 결국 밧지국 침략을 포기하였다.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는 위기이다. 근대 민주주의 첫 시동은 프랑스혁명처럼 거리에서 나왔다. 그러나 의회 민주주의가 성립된 후 민주주의가 거리에 나온다면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 위기임을 나타내는 것이리라. '거리 민주주의'에는 파시즘의 세균이 침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글에서 말하는 파시즘은 정치 이념이 아니라 사람들의 잠재의식과 일상적 삶의 양식 속에 웅크리고 있는 파시즘적 성향이다. 군중 속에 서면 이분법적 사고 틀에 빠지기 쉽고, 대상을 단순하게 보게 만든다.

증오의 대상이 명확해지고 증오의 용어에 익숙해진다. 영웅이 등장하고 조작된 상징에 흔들린다. 그래서 히틀러와 무솔리니 같은 파시스트 정치인은 대중을 광장과 거리에 나오게 만든다. 이성을 철학의 중요 과제로 삼았던 칸트조차도 군중 속에 서면 이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했던가.

지금까지의 역사적 경험을 보면 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해서는 여러 전제조건을 요구한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민주시민의식이다. 이것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소프트웨어'이다. 민주시민의식의 기본 틀은 시민이 상대적 진리관을 가지면서, 타자를 존중하고 세상사에 책임감을 갖고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붓다의 가르침, 즉 연기법과 무아 그리고 자비사상이 바로 민주시민의식의 핵심이다. 붓다의 가르침을 민주시민의식의 형성에 연결하여 세간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세속제(世俗諦)화하고 이를 널리 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국 불교가 민주주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기자칼럼

베트남전 양민 학살과 한국군

신성민 취재부 부장

"1966년 12월 6일 베트남 광웅아이성 빈선현 빈호아사에 한국군이 왔다. 당시 소식을 들은 성인 남성들은 몸을 피했고, 마을에는 노인과 여성, 아이들이 남았다. 마을에 도착한 한국군은 남은 주민들을 끌어내 총을 쏴 죽이거나 우물에 사람을 던져 놓고 수류탄을 던져 죽였다."

이는 베트남전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가 한국 정부에 진상조사와 사실인정, 공식사과 등을 요구하며 제출한 청원서 내용에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베트남전 피해자들의 요구에 한국의 국방부는 보유한 자료에 민간인 학살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진상규명이 어렵다고 답했다.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은 비무장 민간인 9000여 명을 학살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한국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조사한 바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유감의 뜻을 전하긴 했지만,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는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베트남전 비무장 양민 학살에 대한 위령재와 참회 기도회를 여는 것은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해 9월 9일 베트남 양민 희생자 추모재를 베트남 불교 원오사와 함께 개최했다. 양국 스님들과 베트남 유학생 등이 200여 명은 한국군에 의해 희생된 양민들의 넋을 기렸다.

올해에도 이들을 기리는 행사를 베트남 현지에서 열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한국군에 의해 집단 희생된 하미·퐁니 퐁넛 마을을 직접 방문해 참회와 극락왕생 발원 순례기도회를 봉행했다.

세 차례 걸쳐 진행된 기도회에서는 피해자 증언도 이뤄졌다. "당시를 생생히 기억한다. 어머니, 언니, 동생과 친척이 모두 죽어서 남의 집 일을 도와주며 고아로 살았다. 바라는 것은 학살을 인정하고 미안하다는 소리 한 마디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응우옌티안 씨의 외침에 스님들은 참회의 절을 올렸다. 진심어린 사과에 응우옌티안 씨도 감사 인사를 건넸다.

양민 학살뿐만 아니라 전쟁 시 자행되는 수많은 전쟁 범죄에 대해 한국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38년의 일제강점기와 민족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을 모두 겪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도 위안부와 징용 노동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일본에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해 희생된 비무장 양민들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는 것은 모순된 행위다. 우리 스스로 역사 앞에 당당해지려면 제대로 진상을 조사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우리 옆에는 당장 과거사 앞에 당당하지 못한 일본이라는 '타산지석'의 모델이 있다.

"한국은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에 강력히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희생자에 대해서도 진상 규명과 진심어린 사죄가 필요하다"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장 혜찬 스님의 말을 정부와 한국사회는 귀담아야 한다.

사과와 참회는 스스로를 반성함으로써 더 나아지며 발전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는 사람에게도 국가에게도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다.

社說

해외교류 확대 계기되길

파키스탄 정부 국빈 초청으로 파키스탄을 방문한 조계종 대표단이 11월 17일 부처님 고행상의 한국 전시라는 뜻깊은 성과를 냈다. 1700년 전 마라난타 스님의 한반도 불교 전래 이후 파키스탄은 이슬람 국가로 한국불교에서 잊혀진 나라였지만 이번 방문을 통해 다시금 불교문화 교류의 장이 열렸다.

조계종 대표단의 귀국 후 고행상의 한국전시가 본격 추진된다. 많은 불자들에게 사진으로만 접하는 고행상 친견은 다시금 환희심을 자아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고행상과 함께 추가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인도 부다가야의 한국사찰 건립과 같은 파키스탄 내 불교사찰 건립이다. 이슬람 국가에서의 불교사찰 건립에 대한 긍정적 화답은 그동안 불교에 배타적으로만 알아왔던 이슬람에 대한 편견을 사라지게 한다.

그동안 한국불교계는 많은 불교국가와 정기적인 대회와 함께 성지순례를 골자로 한 민간교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기독교 국가, 혹은 이슬람 국가와의 불교문화를 골자로 한 교류는 개별적인 방문 외에는 한국불교계에서 사실상 전무했다. 이번 파키스탄 정부의 열린 자세는 많은 점을 시사한다.

종교로서 기독교, 이슬람 국가에 접근하기 보다는 문화교류로 종교간 간극을 좁히는 것이 우선이란 점이다. 채식을 중심으로 한 사찰음식, 그리고 불교음악과 무용 등 이웃종교가 국교인 나라에서도 얼마든지 거부감이 없이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단이 많다. 이미 독일 등 유럽에서는 고려불화가 한국전통미술의 최고봉으로 평가받고, 사찰음식 또한 한국전통음식의 일종으로 호평받고 있다.

파키스탄 국빈초청 방문 이후 조계종을 비롯한 한국불교계가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해외 불교문화교류의 새 장을 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불교문화 상식 알리는 창구 필요

조계종 포교원이 11월 21일 서울 북촌의 한 모임공간에서 흥미로운 자리를 마련했다. 바로 웹툰, 드라마 작가를 비롯해 일러스트레이터 등 문화산업 종사자들에게 불교콘텐츠 소재를 공유하는 자리를 연 것이다.

이날 자리에서는 마음챙김 명상부터 불교문화 강좌까지 작가들을 위해 맞춤형 진행이 진행됐다.

사전에 접수되고 함께 논의된 내용을 보면 기본적인 불교상식 조차 많은 작가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불교의 우주관과 세계관, 보살과 이웃종교의 신의 관계, 불교에서의 귀신의 개념 등 많은 부분이 잘못 알려져 있거나 혹은 일부만 알려져 있었다.

불교계는 그동안 불교의 많은 상식을 알리는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신도들에게도 다양한 불교상식을 접하는 것은 신행활동에서의 자연스러운 습득, 혹은 기초불교교리강좌 등을 제외하고는 매우 부족했다. 이런 상황에서 비불자인 많은 국민들이 불교문화, 불교상식을 알게 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었다.

조계종 포교원은 우리 문화산업 근간에서 일하는 작가, PD, 배우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불교문화를 알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뉴미디어 시대를 맞아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들에게도 불교문화를 접하게 하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앞으로의 시대는 미디어의 영향역이 더욱 강화되는 시기다. 뉴미디어 시대를 맞아 불교문화와 상식을 알려가는 창구가 지속적으로 열리고, 확대되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 남 지 사 : (051)512-1761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숙면이 보약입니다. 특허 제10-1337352호

1등 숯침대



숯침대의 **효능 효과**

① 부항과 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좌욕효과가 탁월합니다.
② 신체의 전자장을 조절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쾌적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③ 요통환자와 중풍,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되며, 손발이 차고 저리는 분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④ 숯에는 수많은 공기구멍이 있어 구멍 속으로 공기분자의 흐름에 진통을 일으켜 원적외선 방출합니다.
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여 피로해진 눈과 어깨를 보호, 전자파를 상쇄시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⑥ 강한 원적외선 복사열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므로 이불을 덮지 않아도 구들장처럼 뜨겁게 방안 구석구석의 공기를 데워줍니다.
⑦ 냄새 제거, 공기 정화, 습도 조절, 전기요금 절감, 뛰어난 영구 보존.



취급 품목
◆ 숯침대
◆ 숯카우치
◆ 좌훈기
◆ 족욕기

숯침대Q : ~~3,300,000~~ → 판매가 **2,200,000**
숯침대S : ~~2,200,000~~ → 판매가 **1,480,000**
카우치 : ~~2,670,000~~ → 판매가 **1,780,000**
평 상 : ~~2,220,000~~ → 판매가 **1,480,000**
보료Q : ~~2,190,000~~ → 판매가 **1,460,000**
보료S : ~~1,590,000~~ → 판매가 **1,060,000**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구입 및 문의 | 031-532-3277. 533-3722. **010-7171-2636. 010-3576-6802**

2019 소백산 용두리 **햇호두**

소백산 청정지역에서 직접 재배한 신품종 호두



1년의 결실인 소백한 용두리 호두는
농부의 정성과 청정자연을 머금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소백산 고랭지의 청북 예천 용두리는
품질과 맛 좋은 호두가 내기로 유명하여 옛부터 **호두골**이라 불렀습니다.

소백산 용두리 신품종 호두는 알이 크고 속살이 실하며 깨기가 쉽습니다.
토종호두보다 인기 많고 가격이 높은 이유입니다.
간혹 거뭇한 호두알은 겉껍질 색이 착색된 것입니다. 안심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고 향긋한 소백산 용두리 햇호두, 맛있게 드시고 늘 건강하세요!

"
수차례의 선별작업으로 속이 비거나 기준보다 작은 호두알은 걸러냈습니다.
그래도 기준 이하의 호두가 있을까봐 조금 더 넉넉히 담았습니다.

Walnut

호두의 효능



건과일 중 가장 강력한 **항산화** 기능
동맥경화, 피부노화방지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 60-70% 함유
심장질환 예방, **항암**, **당뇨**에 효과
하루 **7알** 권장
두뇌 **노화 예방**, **뼈 건강** 향상

호두 이야기



용두리 호두 농장의 하루는 일찍 시작됩니다.
듬직하게 자란 호두나무를 보면 뿌듯하답니다.
9월에 호두가 영글기 시작하면 호두를 털기 시작합니다. 호두둑! 떨어지는 호두비에 머리를 안 맞으려면 잘 피해야 한답니다.
건조까지 마친 소백산 용두리 호두는 선별작업을 거칩니다.
속이 비고 깨진 호두알을 골라 낸 후 드시게 편하게 포장을 한답니다.
벌어지지 않은 호두알은 숙성 후 탈피기에서 청피를 제거하고 세척합니다.

100% 국산 무농약

무농약 (NON PESTICIDE) 농림축산식품부
인증번호 제16300039호

소백산 호두골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제초제를 쓰지않은 청정호두

1kg 33,000원 (택배비포함)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 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休 Mandala

‘마음쉼터를 가다’

⑧ 삼청동 자애의집(자애통찰명상원)

자애로 살기와 알아차려 살기 삶은 구도의 과정

일상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의 명상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하지만 막상 어떻게 명상을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기 마련. 명상 관련 서적을 봐도 도무지 이해가 어렵다. 용기를 내어 명상단체를 찾아가도 제대로 지도해줄 스승 찾기가 힘들다.

이런 현대인들의 갈음에 한줄기 시원한 감로수를 선사하는 도심 속 명상 수행처가 있다. 바로 자애통찰명상원이 위치한 서울 삼청동 ‘자애의 집’ 이다.

서울 삼청동은 아기자기하고 독특한 인테리어 등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카페, 음식점이 즐비한 곳이다. 삼청동의 한 켠에는 조용한 가정집이 있다. 인왕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을 옆으로 삼청동 골목의 깊숙한 곳까지 가면 ‘자애의 집’ 이란 팻말이 길손을 반긴다.

자애통찰명상원이 위치한 ‘자애의 집’ 은 입구부터 예쁘게 꾸며진 가정집이란 느낌을 많이 준다. 아름답게 꾸며진 소품과 들꽃들로 장식된 현관, 조용히 사색하기 좋아 보이는 흔들의자 등이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한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만다라로 꾸며진 부처님상과 정갈한 장식 등 아늑한 분위기로 이미 명상을 시작한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다. 꽃잎과 나뭇잎 등이 자연스럽게 놓인 좁은 계단을 올라 다락방으로 오르면 2~30여 명이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

이 곳은 초기불교를 전공하고,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명상을 알려온 이른바 한국불교 명상 1세대로 꼽히는 김재성 능인불교대학원대학 교수와 천련화 전현자 보살이 함께 만든 수행공간이다.

11월 19일 기자가 찾은 ‘자애의집’ 에서는 자애통찰명상 심화과정이 한창이었다. 이 자리에는 10여 명의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다양한 연령대의 이들이 눈에 많이 띄었고 직장인들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서로 내력을 모르는 이들이 함께 수행을 시작한 시각은 오후 7시. 저마다 저녁식사를 하고 자애의 집에 모여 앉아 있는 이들이 수행을 통해 어떤 마음 상태를 얻을 것인지를 잠시 생각했다. 짧은 시간이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변해 있길 발원했다.

자애통찰로 초심자 마음 평화 이끌어

‘자애의 집’ 에 위치한 자애통찰명상원은 자애통찰명상이란 자애수행법과 위빠사나 수행법을 주요수행으로 함께 전하고 있다.

초기불교의 가르침은 ‘마음챙김’ 혹은 ‘알아차림’ 으로 통한다. 부처님이 전한 수많은 가르침은 바로 마음을 챙기는 마음공부법이다. 그 중 핵심은 결국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자신의 자애심을 다른 생명들에게도 함께 전하며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김재성 교수와 천련화 보살은 수행하는 이들의 마음 속 가장 선하면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발현시키는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고 있었다. 기본적인 명상 수행과 함께 몸사랑 명상과 먹기 명상, 음악을 활용한 명상 등 현대화된 방법까지 동원하여 긍정적인 마음을 개발한다.

‘몸, 이 몸은 20년, 30년, 50년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삶을 함께해온 귀한 몸, 고마운 몸입니다. 사랑어린 감정이 느껴졌다면 그 감정을 온 몸 구석구석에 보내 보십시오.’

B2면에 계속

INSIDE

B3 박지산의 정진의 길, 시코쿠를 걷다 — 45번 이와야지 가는 길
B4 책세상 — 원상 스님의 〈토굴가〉
B5 문화 — 북한산과 도봉을 듣다–이호신 생활산수전
B6 학술 — 불교입문서 간행 현황과 과제는

자애 명상

준비: 용서 구하기 – 용서 해주기

1. 자신에 대한 자애명상
'내 자신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2. 모든 존재에 대한 자애명상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3. 한정된 대상에 대한 자애명상
–고마운 사람, 존경하는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이나 집단
–사랑하는 사람
–중립적인 사람
–싫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

*한정된 대상을 향한 자애명상 시 죽은 사람을 제외하고 명상초보자는 이성을 향해 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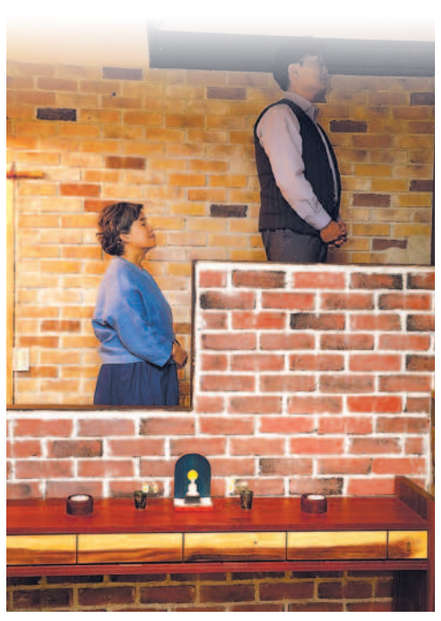
마음챙김 명상

1. 앉기 명상(좌선)
호흡에 따른 복부 움직임을 대상으로 관찰, 몸과 마음의 경험을 그대로 알아차림

2. 걷기 명상
보통걸음을 한걸음 알아차림과 한걸음을 '듦' '나아감' '놓음'을 알아차림. 걸으려는 의도를 포함하여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모든 경험을 알아차림.

3. 일상동작
일상의 모든 동작을 알아차림. 또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몸과 마음의 모든 현상을 알아차림

4. 생각
일상생활 및 명상도중 일어나는 마음의 생각, 느낌,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




심화 과정에서 마음챙김 명상을 전하는 천련화 보살의 모습.


부처님 만다라 등 독특한 불단이 눈길을 끈다.



삼청동 골목에 자리한 자애의 집. 자애의집으로 가는 길 오른쪽에는 작은 냇가가 있다. 단풍이 어우러진 삼청동 골목을 보는 맛도 제격이다.

마음의 평화 키우는 시간 제공해

한국명상 1세대 김재성 부부
삼청동 가정집 바꿔 명상처로
자연 어우러진 편안함 강조

사무량심, 사념처 수행 전해
8주 과정, 1000여 명 거쳐가
어린이 · 청소년 위한 과정개설
유튜브에 명상영상도 게재

'삼청동 자애의집'

B1면에서 계속

심화과정에 참여한 이들은 보통 기본수행과정을 거친 이들이기에 사무량심과 사념처 수행을 각자에 맞게 스스로 하지만 이번에는 초심자 과정에서 진행하는 '몸사랑 명상'을 기자를 위한 체험으로 20분 정도 수행했다.

다소 어둡게 조명을 낮추고 안내의 말처럼 누워 보았다. 삼청동의 조용한 바람 소리만이 들려오는 가운데 내 몸에 대한 집중이 시작됐다. 자신의 몸을 살펴보며 천련화 보살이 안내하는 대로 구석구석에 자애심을 보내자 마음이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이처럼 자애명상은 마음의 증오와 원한과 같은 감정을 다스리고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경험하게 한다.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부정적 정서도 가라앉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기키는 공간을 확보하게 된다.

이날 명상 수행에 참여한 이상준 씨는 증권사에서 일하는 이른바 '증권맨'이다. 이 씨는 "보통 금융업 종사자들은 감정에 휩싸이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기에 불교에서 말하는 평정심의 상태에서 판단해야 성공한다고 한다. 명상은 평정심을 유지하고, 또한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으로 사안을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마음의 변화에 대해 말했다.

자애심 발현 매순간 알아차림 강조

이러한 자애명상을 먼저 실습하고 나면 위빠사나를 진행하게 된다. 자애통찰명상원은 안정된 마음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관찰하게 됨이 위빠사나가 더 효과적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불교명상은 크게 사마타와 위빠사나로 나뉘는데 자애명상은 사마타 수행으로 하나의 대상에 깊은 마음의 집중을 얻게 한다. 사마타 수행은 마음이 모든 번뇌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나고 평온함을 느끼게 하며 여기서 많은 이들은 행복을 느낀다. 이를 바탕으로 위빠사나를 통해 이러한 몸과 마음의 현상이 끊임없이 변함을 통찰하게 한다. 사마타 수행과 위빠사나 수행이 서로 보완해가며 생활 속 마음챙김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자애통찰명상원 프로그램은 총 8주 과정으로 처음 4주간은 사마타 수행인 자애명상을 익히고, 나머지 4주간은 위빠사나 수행을 익힌다.

김재성 교수는 이에 대해 "위빠사나에는 원칙이 있다. 위빠사나의 원칙이란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경험은 그 무엇이든지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에, 있는 그대로 마음챙겨서(be mindful), 알아차리고(be aware), 관찰하는(observe) 것"이라며 "마음챙김을 지닐 때 위빠사나 지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날 취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카메라 소리와 발자국 소리 등도 알아차림의 한 방편이 된다는 천련화 보살의 안내가 이어졌다. 조용하게 삼매에 빠진 이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을까 우려됐다. 이러한 마음이 일어난 순간의 알아차림이 다시 잠시 마음을 정돈시켰다.

2012년부터 1000여 명 거쳐가

자애통찰명상원은 한국에서 명상수행을 전해온 김재성 교수에 의해 2010년 7월 종로의 한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됐다. 김재성 박사와 천련화 보살은 2012년 1월부터 삼청동 칠보사 인근의 2층 가정집을 고쳐 '자애의 집'을 개원했다.

'자애의 집'은 다른 대규모 명상수행처와 다른 가정집 특유의 편안한 분위기가 있다. 숙식은 할 수 없지만 이웃집에 수행하러 간다는 느낌으로 찾을 수 있는 곳이다. 많은 예산을 들여 지은 거대한 명상마을이나 명상원과 달리 직접 가꾸고 생활 속에서 수행을 하는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곳이다.

자애의집은 1층은 생활공간으로 일부 사용되는 듯 보였다. 김재성 교수 내외가 보는 불교관련 책들로 가득한 거실과 '해우소'라는 팻말이 앙증맞게 걸려있는 화장실이 있었다. 자신들이 사는 공간 한편을 다른 이들을 위한 명상수행처로 구성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다. 아무리 삼청동이지만 주택가 깊은 곳에 위치한 까닭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까 궁금증도 들었다. 주프로그램인 자기치유 과정은 지금까지 48기가 진행됐고, 매 기수당 10~20여 명이 참여해 지금까지 1000여 명이 거쳐갔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론과 실천, 현대화된 명상법 접합

자애통찰명상원을 이끄는 김재성 교수는 평소에 불교의 이론과 실천을 함께 닦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능인불교대학원대학에 재직하며 불교와 심리, 명상과 심리치료 등을 연구하고 지도하고 있다.

고등학교 때 불교를 접한 김 교수는 1991년 미얀마에서 수행을 하며 일종의 전환기를 맞았다. 서울대 대학원 석사논문을 초기불교에 대해 쓰며 미얀마 수행을 위해 양곤으로 간 김 교수는 우 빤디따 사야도의 지도를 받으며 3개월 우안거를 지냈다.

일본 유학 중이던 1995년부터 한국에서도 위빠사나 수행을 지도했으며, 2003년 우 자나카 사야도의 20일 집중수련 통역에서 자애명상에 근거한 위빠사나 지도를 접한 후 자애명상과 위빠사나를 함께 소개하게 됐다.

천련화 보살 또한 한국에서 간화선 수행을 하고 1990년대 미국에서 IMS와 고엥카센터 등 여러 명상센터서 MBSR전문가 과정을 통해 위빠사나와 자애명상을 익혀왔으며 미얀마 쉐우민센터 등에서 수행해 온 터라 자애통찰명상원 운영에 큰 힘이 되고 있다.

미국에서의 현대적인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과정을 개설하고 유튜브 등에도 명상관련 영상을 올리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천련화 보살은 "몸사랑 명상과 먹기 명상, 때로는 음악이나 시, 그리고 동영상 등 명상의 이해에 도움이 될만한 것들을 기본 과정에서 사용한다. 선치료 심리상담가로서 마음으로 인한 치유를 경험하고져함을 명상에 접목하는 부분이 기본과정에 넣은 부분이 있다"라고 밝게 웃으며 말했다.

조용히 좌선이 한창일 무렵 자애의 집을 뒤돌아 나섰다. 저녁 늦은 시간에도 많은 이들이 찾는 수행열기를 경험하며 저절로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고된 순례길 끝엔 부처님이…



박지산의
정진의 길, 시코쿠를 걷다
㉝ 45번 이와야지 가는 길

45번 사찰 이와야지(岩屋寺)는 시코쿠 88개소 가운데 가장 신비한 느낌을 자아내는 찰소다. 이와야지가 자리잡은 이와야산은 바위 여기저기가 움푹 파인 바위굴이 많은 데서 '바위집(이와야)'이란 이름이 붙었다. 특이한 바위 절벽 사이에 안기듯 자리 잡은 이와야지는 그 이름대로의 느낌이 물씬 풍긴다.

사찰의 연기 설화에는 코보 대사가 수행을 위한 장소를 찾던 중 이 산에서 수행하던 홋케선인(法華仙人)이라는 여성 수행자와 만나게 된다. 오랜 수행 끝에 얻은 신통력으로 산을 지키고 있던 홋케선인은 대사의 수행력과 덕망을 보고선 자신이 관리하던 산을 코보 대사에게 공양 올렸다.

이에 코보 대사는 홋케선인이 수행하던 자리에 사찰을 세우고 나무와 돌로 부동명왕을 한 구씩 조각하여 나무로 된 상은 본당의 본존으로 안치하고 석상은 오쿠노인의 바위굴에 비불로 모셔 돌산 전체를 본존으로 삼았다고 전한다. 그러다 보니 더욱 산 전체가 영험한 느낌이 든다.

깊은 산골에 있다 보니 이와야지를 순례하는 길도 도보 순례자들에게는 조금 버거운 길이다. 보통 다음 사찰로 계속에서 길이 이어지는 순례길이지만, 이와야지만큼은 편도 10km 가량의 길을 왕복하고서야 46번으로 향할 수 있다.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로는 44번 사찰의 뒷산을 넘어 45번으로 향하는 길이 옛날에 있었지만 산사태 등으로 무너진 지 오래고 지금은 그 길이 어딘지 조차 모른다고 한다. 결국 두 다리가 고생해야 한다.

44번 사찰을 참배하고 나와, 바로 옆으로 이어지는 길을 타고 고개 몇 개를 넘어 깊은 계곡 속을 향하는 순례길은 호젓하고 조용하지만 꽤나 외롭고 심심한 길이다. 새롭게 뚫린 차도를 따라 걷는다면 좀 편하게 걸을 수 있지만 옛날의 순례길을 택한다면 산 능선을 타고 올라야하는 가파른 길이 이어진다. 다만, 경치와 산세가 좋아 산을 좋아하는 순례자들은 일부러 옛날 길을 택해 걷곤 한다.

그러다보니 많은 도보 순례자들이 여러 방법을 사용한다. 보통 45번 사찰로 들어서는 초입이나 길 중간에 숙소를 잡고 짐을 맡겨둔 채 몸만 다녀오는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그래서 이런 숙소들 중엔 묵지 않아도 오셋타이로 잠시 짐을 맡아주는 곳도 있다. 또 어떤 순례자들은 이미 밟은 길을 밟고 싶지 않다며 이와야지에서 버스를 타고 나오기도 한다.

물론 노숙을 하는 방법도 있다. 45번으로 향하는 길 중간 몇 곳에 노숙하기 좋은 장소들이 있다. 나는 보통 44번 근처에서 노숙을 하고 새벽 일찍 일어나 다녀오는 방법을 택했다. 필자도 첫 번째 순례 때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근처 24시간 편의점에 부탁해 짐을 맡겨두고 몸만 다녀왔었다. 하지만, 역시 도보 순례자가 배낭이 없으니 뭔가 헛헛하고 안정감이 들지 않아 어색했다.

어느 도보 순례자는 이 이야기를 듣고는 "배낭의 무게로 주름 잡힌 어깨, 땀으로 누렇게 되고, 엉덩이에 시커멓게 때가 탄 백의야 말로 도보순례자의 상징이지"라며 크게 웃은 적이 있다.

심지어는 44번을 참배하지 않고 45번을 먼저 참배한 후, 길을 나오면서 44번을 참배하는 순례자들도 생각보다 많다. 한때 이를 두고 도보 순례자들 사이에서 "45번은 원래 44번 사찰의 오쿠노인(奥院)으로, 아무리 편의를 위해서지만 산내암자와 같은 45번을 먼저 참배하고 본사인 44번을 참배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는 이야기가 돈 적이 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순례자들 사이에선 꽤나 회자되었던 이야기로, 요컨대 45번 사찰의 정통성 내지는 위엄과 관련된 문제라 45번 측에서는 해당 이야기에 대해 강하게 부정했다. 후에 학자들이 나서고야 일단락 됐다.

코보 대사 감화된 홋케선인 위해
대사가 45번 사찰 이와야지 창건
옛 순례길은 고되지만 풍광 좋아
'44번 소속된 말사' 設 사실 아냐

일본불교의 혼란기였던 메이지 시대에 시코쿠 88개소 순례도 일시적으로 쇠퇴했는데, 이때 화재로 사세가 기운 45번 이와야지의 납경과 참배 안내를 44번 다이호지에서 일시적으로 맡은 적이 있었다. 이로 인해 마을 주민과 순례자들이 이와야지가 다이호지에 소속된 말사처럼 인식하게 된 것이 해당 이야기의 근거라는 것이다.

어찌 됐던, 45번 이와야지는 순례자들에게 힘들긴 해도 기억에 남는 사찰이다. 본존인 부동명왕께 기원하는 붉고 푸른 깃발이 빼곡하게 자리한 참배로를 따라 울창한 숲을 올라가다보면 어느 순간 거대한 바위벽이 나타난다. 그 웅장한 모습을 보노라면 힘겹게 걸어온 보람을 느낀다. 물론 그 바위벽 가까이 올라가야 다시 본당이란 사실이 조금 지치긴 한다.

또 이와야지는 약 120여 년 전 대화재로 단 두 곳의 전각을 제외한 모든 당우가 소실돼, 후대에 재건했다. 그러다보니 조금 특이한 구조를 취하는데, 먼저 대사당이 본당보다 크다는 점이 특색이다. 시코쿠 순례에서 각 사찰의 본당을 참배한 후 대사당을 참배하게 되는데 많은 순례자들이 전각 크기만을 보고 대사당을 본당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100여 년 전에 재건된 대사당은 그 규모도 거대하지만 서양건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유명하다. 외관과 구조는 전통적인 사찰 구조를 따르면서도 공포와 기둥의 장식에 서양건축의 요소를 채택해 일본의 근현대 건축에 독특한 예로 꼽힌다.



45번 사찰 이와야지의 대사당. 화재로 소실돼 재건됐다. 그러다보니 본당보다 당우가 크고, 서양건축 양식이 도입됐다.



아침안개가 자욱한 이와야지로 가는 길. 옛 길은 고되지만 풍광이 좋다.

이에 반면 본당은 바위벽에 바싹 붙은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은 코보 대사가 산 전체를 본존으로 삼았다는 이야기에서 근거한 것으로 바위와 하나가 되는 양식으로 지어졌다. 본당 옆으로는 사다리를 타고 바위굴로 올라 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연기설화 속의 홋케선인이 수행했던 자리라고 전한다. 가파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나무로 조성된 오륜탑(五輪塔)이 본당과 대사당을 바라보고 있다.

홋케선인이 수행한 동굴까지 모두 참배하고, 납경을 받고서 다시 산을 내려간다. 막 경내를 빠져나가려는데 순례자들이 계단을 내려가지 않고 지팡이로 세게 땅을 치고 있었다. 무슨 난리인가 싶어 어깨 너머로 쳐다보니 커다란 살무사 한 마리가 길을 가로지르고 있다.

아무리 사람들이 소리를 내고 땅을 울려도 아랑곳 않고 느릿느릿 기어가다 보니 모두들 오도가도 못 하고 있었다. 결국 5분 정도 기다리고서야 순례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시코쿠 순례길 중간에 곧잘 '살무사 주의'라는 표지판을 보긴 했지만, 직접 보는 건 또 처음이었다. 길을 내려오면서도 괜히 또 다른 살무사를 마주칠까 일부러 발을 크게 구른다.

오늘 참배할 사찰은 다 순례했으니 이제는 잠자리를 향해 갈 일만 남았다. 사실상 시간에 쫓길 것이 없으니 느긋하게 걷는다. 간혹 지나는 차를 제외하곤 인기척이 드문 길이다. 전반적으로 시코쿠 순례길은 시골이나 교외의 마을길을 지나치는 길이 많다보니 한적한 것도 있지만, 너무 한적해서 정말 사람이 사는 곳인지 의아한 경우도 많다. 특히 이런 산골을 지나칠 때는 누가 봐도 빈집인 경우도 많아 더욱 그렇다.

시코쿠에 거주하는 지인의 말로는 다른 곳들에 비해 시코쿠의 인구가 적은 것도 있고, 빈집들도 점점 나오고 있단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젊은 사람들은 떠나고 마을들은 더욱 조용해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나 순례길 옆으로 있던 오래된 여관들의 경우 후계자를 찾질 못해 그대로 폐업해 버리는 곳도 많은 현실이다.

실제 시코쿠 섬은 일본의 주요한 다른 섬들에 비해 이렇다 할 산업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섬 안을 일주하는 교통편도 미비하다. 심지어 아직 고속철도인 신칸센도 뚫리지 않았다. 조금 심하게 말해 발전이 덜 된 동네다.

이렇게 외진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15만 명의 사람이 시코쿠를 찾는 것은 오직, 88개소를 순례하는 '오헨로' 때문이다. 누군가는 농담으로 '깡촌이 먹고 살라고 대사님이 순례길을 만들어 두셨다' 고 하지만 코보 대사가 이곳 시코쿠에 순례길을 만드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물론 시코쿠가 당신의 고향인 까닭도 있겠지만 이런 외지고 힘든 곳이야 말로 수행으로서의 순례를 떠나온 이들에게 의미가 있어서라는 생각해 본다. 시코쿠 순례길을 뜻하는 단어 '헨로(遍路)'도 옛날에는 외진 가장자리를 뜻해 '헨로(邊路)'로 쓰던 예도 있으니 아마 틀린 생각은 아니니라.

고행을 통한 자아성찰은 순례에 오른 수행자들에겐 당연한 것이다. 옛날 원효 스님께서도 〈발심수행장〉에 "절하는 무릎이 얼음 같아도 불을 그리워 말며, 주린 배가 끓어질 듯해도 먹을 것을 구하는 생각을 말라"고 하시지 않았는가.

고달프고 힘든 순례길이라도 그 끝엔 부처님과 보살이 있고, 코보 대사의 자취가 남은 사찰들이 있다. 또 그곳에 남은 설화들과 가피들이 순례자의 신심을 북돋아 준다. 다시금 신심으로 가득 찬 순례길은 길 위의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시코쿠 순례길의 진정한 의미일 것이다.

〈자유기고가〉

종교법인 세계불교 법왕청
WORLD BUDDHIST DHARMA-KING CENTRAL GOVERNMENT
문화체육관광부 2013-82호. 고유번호 101-82-23205.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도메인 세계불교 법왕청.com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INTERNATIONAL BUDDHISM LEADER ASSOCIATION
문화체육관광부 2009-19호
고유번호 101-82-18115

국제 승려 구족계 금강계단 제5회 비구 수계 대법회
테라와다 상좌부 사사나 양곤 승가대학에서 단기 출가의식 직접체험
2020년 2월 16일 ~ 2월 22일

세계불교정상들의 모임
개최 예정으로 각국불교대표 및 승왕
(금강계단과 회의 일정 조율 때 친견계획중)
세계불교도들의 우꾸마라 법왕 (미얀마연방승가회 회장, 종정)
한국,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스리랑카,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사아, 중국, 대만, 일본, 말레이시아, 네팔, 몽골, 인도

종교법인 세계불교법왕청과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에서는 450여 종단의 모든 스님들에게 출가승으로 거듭나 10년, 20년, 30년, 40년의 법납의 스님들을 행자, 사미승의 마음으로 초발심으로 되돌아가 새롭게 발심하는 계기를 갖고자 큰 마음 큰 뜻으로 미얀마연방 공화국 종교성의 후원과 미얀마 연방승가회의 도움을 받아 三師 七證 대원로 큰스님들을 모시고 승가대 많은 스님들의 독경 속에 장엄하고 여법한 국제 금강계단을 마련하였습니다.
미얀마 국립 양곤 사사나 승가대학교와 연방승가회 정식 비구 계첩을 받게 됩니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023501-04-14758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국민은행 023501-04-214874 세계불교 법왕청
■신청기간 : 선착순 50명 * 제출서류 : 이력서1통, 사진1매, 여권사본
■서류제출 : 03158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68 (청진동6번지 신영빌딩 303호)
■문의전화 : 02-733-5665 / 010-3618-6061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21~11/26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낡은 옷을 벗어라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6	요가 디피카	B.K.S.아헹가/현천스님	선요가
2	지금 이대로 좋다	법륜스님	정토출판	7	사찰에는 도깨비도 살고 삼신할미도 산다	노승대	불광출판사
3	느낌, 축복인가 수렁인가(밝은 사람들 총서 14)	권석만 외 4인	운주사	8	아침이 힘든 당신에게(홍파 스님이 보내는 짧은 편지)	홍파스님	모과나무
4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김원수	청우당	9	당신의 마음에 답을 드립니다(목종스님 상담에세이)	목종스님	담앤북스
5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행스님 법어집)	대행스님	한마음선원	10	토굴가 (원상스님 산방 에세이)	원상스님	조계종출판사

30여년 수행 여정 오롯이 담아내



토굴가
원상 지음
조계종출판사 펴냄/1만 6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효의 사회화 운동'에 앞장서는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의 4대 대표이사 원상 스님〈사진〉이 그간 써온 글들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2020년에 30주년을 맞는 연꽃마을을 기념함과 동시에, 열아홉 살 출가해 34년째 수행 정진 중인 원상 스님의 지난 세월을 되새기는 의미를 담은 책이다.

저자인 원산 스님은 "제가 살아오면서 늘 판단을 잘못해 고생스럽게 사는데, 두 가지 판단은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첫째는 젊은 날 출가한 것이고, 둘째는 선방 수좌가 된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 책은 원상 스님이 일상서 겪은 일화들과 소소한 감상에서부터, 은사인 각현 스님의 뒤를 이어 연꽃마을 책임자로서 자비 사상을 계승 및 발전시키고자 하는 바람까지 모두 아우른 글 모음집이다.

원상 스님 화두는 '연꽃마을'

30년 전 덕산당 각현 스님은 "마을마다 연꽃마을, 마음마다 연꽃마음"이라는 구호로 전국을 누비면서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의 기틀을 만들어 당시엔 불모지나 다름없던 불교계 복지에 새 바람을 넣었다. 연꽃재단 굴지의 시설들은 전국 70여 개를 이루었고, 정부 평가서 상위 5퍼센트 안에 드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타의 모범이 되고 있다.



복지법인 연꽃마을 4대 대표이사
자비사상 계승 발전 바램 담아내
은사스님 기념관과 사리탑 기획중

현재 원상 스님이 이끄는 연꽃마을은, 5년 전 입적한 각현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법인 1호 시설이던 용인 전문요양원 옆 천혜의 요지에 법인사무처와 은사 스님 기념관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과 사리탑을 조성해 백년대계를 기획중이다. 이 책에는 원상 스님이 스승의 뜻을 잇고 재도약하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다.

열아홉 행자 마음과 수행서 얻은 깨달음

원상 스님은 어린 시절 어머니를 따라 처음 부처님을 믿게 되었다. 열아홉 살 때 집을 떠나 삭발염의(削髮染衣) 했고, 속리산 법주사 행자실 막내가 되어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에 섰다. 마음이 붕 떠서 보따리를 싸고 싶었을 때 자신을 위로해준 도반 행자님 덕분에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고, 어려운 고비를 넘어 사미십계를 받고 스님이 되었다. 그 순간순간들이 이 책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원상 스님은 정진 중에 사계절 변하는 풍경을 보고 선정(禪定)에 들던 순간들도 문장에 고스란히 아로새겼다.

"코가 매울 정도로 추운 겨울 새벽, 맑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과 초닷새 달을 바라보는 맛. 인적 드문 오솔길을, 걷는다는 생각마저 내려놓은 채 걷는 일. 열심히 정진하는 스님을 문밖에서 바라보는 것. (……) 밀짚모자에 걸망 하나 지고 길 위에 서 있는 사람, 작은 것에 안주하지 않고 홀로 길을 찾아 떠나는 사람, 고독하지만 다가가 젖고 싶은 새벽안개처럼 신비스러운 자태, 그 시절 나에게 아름다움이란 말없이 서 있는 수행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본문 中에서)

원상 스님이 도반들과 함께 수행을 이루어가는 모습들도 책 곳곳에 유쾌하게 그려진다. 또한 그가 스물아홉 살 때, 토굴에 들어가 살면서 두 해를 같이 보낸 팔십오 세 할머니와 아웅다웅하면서도 서로를 보살핀 사연, 즉 이 책의 표제작이기도 한 〈토굴가〉는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저자 원상 스님은?

1986년 속리산 법주사서 덕산당 각현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그해 가을 법주사서 혜정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받았다. 1989년에는 범어사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90년 법주사 강원 사교과를 마치고, 3년 후 중앙승가대학을 졸업했다. 1993년부터 2019년까지 마곡사,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 봉암사, 법주사, 대승사 외 33안거를 성만했다.

1994년 대한불교조계종 천안 은석사 주지, 2001년 대구 정법사 주지, 2012년 북한산 부황사 주지, 2017년 단양 미륵대흥사 주지를 역임했다. 특히 2017년에는 조계종 금성선원 원장과 그해 9월에는 조계종 전국 선원수좌회 총무분과 위원장에 임명돼 현재까지 맡고 있다. 2018년 8월 의료법인 연꽃마을 이사로 추대됐으며, 2019년 1월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대표이사, 2019년 2월 경기도 노인복지시설연합회 이사 및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장〉은 사견 물리치고 정견 밝혀"



마음을 어디에 둘꼬?
글 대혜 종고 선사, 역해 청림 지상 스님
맑은소리맑은나라 펴냄/ 1만8000원

〈서장〉 현대 감각으로 풀어내
주된 부분 앞으로 빼 과목 달아
다른 번역서 보다 주제 한눈에

간화선 수행 지침서 〈서장〉을 일반인이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현대적 감각으로 새롭게 풀어 해석한 〈마음을 어디에 둘꼬?〉가 출간됐다.

책 〈서장〉은 선사 대혜 종고 스님이 재가불자와 주고받은 편지로, 간화선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 있다.

〈임제록〉 〈벽암록〉 〈허당록〉 등과 함께 선불교의 칠부서(七部書)로 불린 참선 지도서이다.

〈서장〉은 "〈육조단경〉을 스승으로, 〈서장〉을 도반으로 삼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선방 수좌들의 중요 길잡이로 일컬어 진다. 수좌들은 옛 부터 "다른 모든 것은 다 버려도 걸망 속에 〈서장〉만은 짊어지고 다녔다"고 말할 정도로 수좌들에겐 절대적 지침서이다.

저자인 대혜 종고 선사는 원오 극근 선사의 법을 이었으며, 간화선이 선의 주류로 자리 잡게 만들었다. 아울러 임제종 선법 가운데 대혜선을 창시한 선사이기도 하다.

〈서장〉을 쉽게 풀이한 〈마음을 어디에 둘꼬?〉는 글의 주된 부분을 앞으로 빼내 과목을 달아 뒤 다른 번역서 보다 주제를 한눈에 금방 알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저자인 지상 스님은 지난 12월 책 〈서장〉을 풀어 냈지만, 스님들을 위한 전문 서적으로 일반인이 보기엔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이번 책은 일반인들이 손쉽게 접근하도록 돕기 위해 새롭게 출판됐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저자 지상 스님은?

지상 스님은 1986년 통도사서 출가해 통도사 강원서 대교과를 마쳤다. 스님은 송광사 구산 스님에게 받은 화두로 출가 전부터 간화선 수행을 이어왔으며 통도사 선원에서 정진했다. 은해사서 승가대학원(전통강사전문교육원)을 마치고 여천 무비 스님께 전강을 받았다. 부족한 한문을 보강하기 위해 북경수도사범대학을 졸업해 전통 강원과 현대교육의 흐름을 익혔다.

용화사 주지, 울산불교방송 본부장 소임을 살며 포교 활동도 펼쳤다.

안식 필요 때 오래된 언어 들여다보다



흔들리는 날엔
말리꽃 향기를 따라가라
재연 스님 지음/꼼지락 펴냄/1만 2천원

산스크리트 문학 '수바시따' 번역
인도 구전시 114편 다듬어 소개
인간 탄생, 질병과 죽음 등 내용

이 책은 고대 인도인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시 114편을 재연 스님과 시인 안도현이 번역하고 다듬어 냈다. 인간의 탄생과 노쇠, 질병과 죽음 등 숙명적인 부분부터 기쁨과 노여움, 슬픔, 즐거움 등 살면서 느끼는 다양한 정서를 다루며 '삶의 가치'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

짧은 글 속에는 재치와 익살, 조롱이 가득하며 거들먹거리는 자에게는 야유를, 미련하고 무지한 자에게는 냉소를, 가난한 이웃에게는 관심을, 지친 자에게는 위로를 바치는 문장이 번뜩거린다. 독자들은 이 책에 수록된 고대 인도인의 오래된 언어를 통해, 자신의 마음과 사회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갠지스강이 흐르는 인도 대륙에 사는 사람들과 한반도의 한강가에 사는 사람들은 피부색이며 생활 풍습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간의 생로병사를 보는 시각과 감정의 움직임은 눈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책은 인도 구전 산스크리트 문학의 한 장르인 '수바시따'를 번역한 것으로, 이 속에는 시대와 인종을 초월한 인간의 기쁨과 슬픔과 같은 보편적 정서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산스크리트어 수바시따는 '잘 설해진' '멋지게 쓴' '기발하게 만들어낸' 잠언을 뜻하는데, 이 가운데에는 고전문학 작품에 나오는 시와 저자 불명의 문학성 높은 걸작도 다수 포함돼 있다. 김주일 기자

▲저자 재연 스님은?

1953년 전북 김제서 태어나 19살에 선운사로 출가했다. 원광대 철학과 졸업 후 태국 왓벤짜마보핏 사원서 초기불교 경전을 공부했으며, 인도 푸나대 산스크리트 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지리산 실상사 주지, 선운사 초기불교 승가대학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은 책으로 어른을 위한 동화 〈빼빼〉, 산문집 〈입산〉 〈방랑시작〉이 있고 〈티벳의 사랑과 마법〉 〈죽어라! 그대 죽기 전에〉 〈싯타르타의 길〉 〈사성제〉 등을 번역했다

붓다의 가르침을 가장 원형에 가깝게 전하는 아함경!
한역 4부 아함의 온전하고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번역과 주석!
가까이 두고 하루에 단 한 줄만이라도 읽고 새겨야 할 소중한 가르침!
한산 김윤수 역주 『아함전서』 1~16 ★ 전집 구입시 별도 제작된 『전체 색인집』을 드립니다.

잡아함경(전5권)

1권~5권 3,270쪽 / 신국판 양장 / 케이스 / 세트가 150,000원

증일아함경(전4권)

1권~4권 2,252쪽 / 신국판 양장 / 케이스 / 세트가 120,000원

중아함경(전5권)

1권~5권 2,912쪽 / 신국판 양장 / 케이스 / 세트가 140,000원

장아함경(전2권)

1권, 2권 1,228쪽 / 신국판 양장 / 케이스 / 세트가 6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수묵진경으로 만난 山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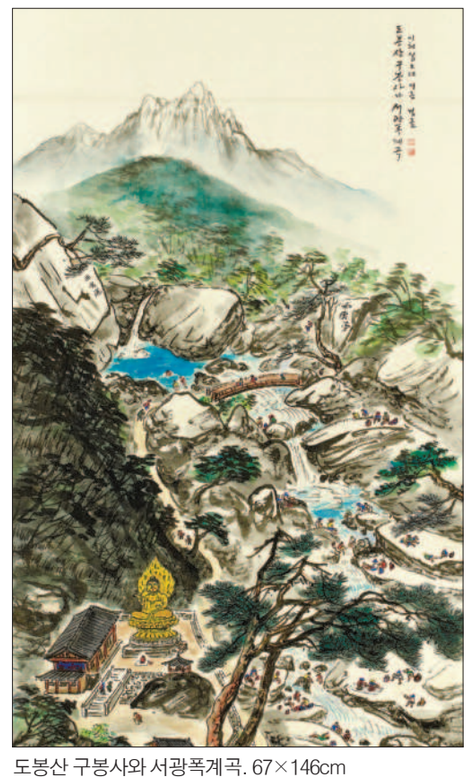
북한산과 도봉을 듣다–이호신 생활산수전

2020년 1월 31일까지 서울 JCC아트센터

구작과 신작 40여 점 수묵화 선봬
북한산 · 도봉산의 진면목 재구성
산수와 어우러진 도심 · 사찰 풍경
실경산수 · 생활산수 · 생활풍속도
진관사 · 망원사 등 10여 사찰풍경도



이호신 作, 삼각산 진관사. 198×133cm.


도봉산 구봉사와 서광폭계곡. 67×146cm

박재완 기자 waniholo@hanmail.net

북한산의 기경과 도봉산의 영봉을 수묵의 진경으로 만난다. 그 기경과 영봉의 수묵 속에는 부처님의 집들도 들어있다. 북한산과 도봉산에 깃든 사찰들을 한 폭의 수묵 속에서 만날 수 있다.

오랜 시간 우리의 풍경을 수묵으로 그려온 이호신(62) 화백이 11월 15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서울 JCC아트센터에서 초대개인전 '북한산과 도봉을 듣다-이호신 생활산수전' 을 개최한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그린 그림과 2019년 새로 그린 그림을 합친 150여 점 중에서 40여 점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생활산수' 를 표방한다. 관념으로 채색하지 않는 이 화백의 그림 속에는 행락객들의 모습과 원경 속 도시의 아파트가 산수와 어우러진다. 실경산수, 오늘의 삶이 녹아든 생활산수다.

이 화백은 오랫동안 전국의 산하와 마을, 사찰, 서원 등을 수묵으로 그려왔다. 우리의 풍광과 문화유산 그리고 그 속에 스며있는 '우리' 를 그려왔다. 그는 쉼 없이 진경으로서의 산을 화폭에 담아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북한산과 도봉산을 새롭게 보여준다. 가장 높은 곳에서 산세를 굽어보는 대관적 시선으로부터 풍경과 사찰의 조화, 근경의 바위와 폭포에 이르기까지, 전체와 부분이 어우러진 가운데 산의 일부로 자리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 을 그리고 있다.

안순모 JCC미술관장은 "이호신 화백이 그린 북한산과 도봉산을 처음 보았을 때의 감각이 선연합니다. 마치 직접 보는 듯 시원하게 시야가 트이는 작품에서, 직접 가도 보지 못할 아름다움을 진경으로 담아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고 했다.

이 화백은 이번 전시를 위해 북한산과 도봉산을 오르고 또 올랐다. 같은 곳을 계절을 달리해 반복적으로 오르고, 길을 달리해 오르며 서울의 진산인 북한산과 도봉산이 지닌 자연의 아름다움을 화첩에 옮기고 재구성하여 화폭에 담았다. 그림은 생활산수가 되어 오늘의 우리를 풍광 속으로 끌어들인다. 이 시대의 산수풍속도라고 할 수 있다.

그가 화폭에 농축시킨 북한산과 도봉산의 풍경들은 진경이면서 현실에서는 결코 만날 수 없는 이호신의 세계다. 눈으로 본 풍경이 아니라 묵은 안목으로 그려낸 그림이다. 수십 년간 인문정신 속에서 사생해온 이 화백은 이번 작품들 역시 자신의 인문안목으로 북한산과 도봉산의 진면목을 그려내고 있다.

"그가 화폭에 농축시킨 대관소시(大觀小視)의 기관(奇觀)을 보노라니 미상불 감탄을 넘어 경배의 마음마저 든다. 본다고 보는 것이 아니다. 그의 안목 앞에 처음 전모를 들킨 도봉의 영봉과 북한의 기경을 만나러 가자."

정민(한양대) 교수가 위와 같이 밝힌 이번 이 화백의 그림들은 3m의 대작부터 각각의 봉우리, 자연과 어우러진 우리 문화유산인 사찰과 탑 그리고 근경의 특징적인 북한산과 도봉산의 생태까지 다양하게 보여준다.

이번 전시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진관사, 망원사 등 10여 점의 사찰풍경들이다. 대부분 부감으로 그려진 사찰의 모습들 역시 산수와 어우러진다. 이 화백은 산과 하나가 된 사찰을 그리고 있다. 이 역시 진경들이지만 현실에서는 결코 만날 수 없는 그림들이다. 절은 산의 일부로 그려지고, 산은 절로 인해 풍경으로 완성된다.

현장에서 사생한 화첩을 통해 작품제작의 과정을 볼 수 있고, 영상을 통해 이호신 화백의 작가적 세계를 만나볼 수 있다.

이호신 화백은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미술을 전공했으며, 성균관대학교 미술과 강사를 역임했다. 국립중앙박물관, 이화여대박물관 등에서 실기 지도 및 특강을 했으며, 1989년부터 지금까지 20여 회의 개인전을 열었다. 환경부장관상(2003년)을 비롯해 다수 수상했으며, 〈화가의 시골편지〉, 〈가람진경〉 〈길에서 쓴 그림일기〉 등 다수 출간했다. (02)2138-7373.

전승전통등 경연대회 수상작 전시

11월 22일부터 12월 2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로비

조계종 연등회보존위원회는 11월 22일부터 12월 2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2019년 전승전통등 경연대회 선정작품 전시회' 를 개최한다.

아름다운 우리 등(燈)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전통등 제작 전승자를 육성하기 위해 진행된 전승전통등 경연대회는 어린이, 대학생, 일반 3개 부문으로 진행됐다. 어린이 부문 천진불상〈사진1〉은 박수빈(봉선사), 대학생 부문 최우수상〈사진2〉은 김진선(동덕여자대학교), 일반인 부문 최우수상〈사진3〉은 김명순(보원사) 씨가 수상했다.

전승전통등 경연대회는 사라져가고 있는 우리의 전통등 3종(연꽃등, 팔모등, 수박등)을 기본으로 다양하게 응용 제작되어 우리의 등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살린 작품들이 출품됐다. 어린이 부문은 9개 단체 114점, 대학생 부문은 10개 대한 141점, 일반 부문은 9개 단체 36점 등 총 291점이 접수됐으며, 각 부문별 5개 분야로 나누어 수상작을 선정했다. 연등회보존회는 "전통등 전승이라는 대회의 취지에 맞춰 각자의 창의성과 예술성이 담겨져 있으며,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주신 참가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전승전통등 경연대회를 계기로 다양한 지역, 다양한 계층에서 더욱 우리의 전통등을 만드는 문화가 널리 확산되기를 기원합니다"고 했다.


〈사진1〉


〈사진2〉


〈사진3〉

이와 함께 진행된 '제10회 전국 청소년 등 공모전' 의 수상작은 11월 29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전시된다. 박재완 기자

'불교합창아카데미' 제3기 수강생 모집

접수 11월 18일~2020년 2월 7일
발표 2020년 2월 17일 개별통보

조계종 불교음악원(원장 박범훈)이 불교합창아카데미 제3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접수 기간은 11월 18일부터 2020년 2월 7일까지며, 모집 인원은 80명이다. 조계종 총무원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를 다운로드하고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우편접수 또는 전화접수 가능) 제출처는 서울 봉은사 불교음악원이다. 면접은 2020년 2월 14일이며 합격자 발표는 2020년 2월 17일 개별 통보한다. 개강은 2020년 3월 4일이다.

불교합창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보다 전문적인 합창교육을 목표로 하는 불교합창아카데미는 불교합창에 관심 있는 스님과 불자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현재 각 사찰 소속 합창단을 우대한다. 교육을 이수하면 수료증이 수여되고 불교음악원 정회원 및 불음합창단 단원우대, 불교방송 및 불교행사 출연의 기회가 주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및 불교음악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02)3218-4866.

박재완 기자



“불교명상입문서, 외국 의존도 높다”

문진건 교수, 한국불교사硏 집중세미나서 지적

10년간 불교명상 입문서 살펴
108종 발간… 외국 저자 42%
‘불교명상’ 연구 인프라 부재해
학제 간 융합 연구 등 이뤄져야
철학 · 사학 · 예술 입문서 분석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불교명상 입문서는 총 108종이 발간됐으며, 이중 42%가 외국 저자의 번역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문진건 동방문화대학원대 불교문예학과 교수는 11월 16일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불교입문서 간행의 현황과 분석 그리고 대안’ 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25회 집중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불교명상 입문서 간행의 현황과 분석’ 을 발표한 문 교수는 국내에서 ‘명상(meditation)’ 이라는 용어를 언제부터 사용했는지를 먼저 살폈다.

문 교수에 따르면 문헌상 명상이라는 용어가 나타난 것은 1930년대 국내에 출간된 일본어 서적에서였다. 1950~60년대에도 명상이라는 말이 확인되지만 수행보다는 사색에 가까운 의미였다. 한국불교계는 1980년대가 돼야 ‘명상’ 이라는 용어를 수행법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지만 그 빈도는 적었다. ‘명상’ 이 불교 전반에 걸친 수행법을 대표하는 용어로 사용된 것은 2000년대 이후다.

이에 문 교수는 “불교의 수행법에 명상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지 않았다가 서양 불교 연구와 심리치료의 명상프로그램 도입이 증가하면서 국내 불교학계가 서양의 방식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직 ‘불교명상’ 에 대한 명확한 입문 교과서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밝힌 문 교수는 초보자를 위한 참고서적을 입문서로 간주하고 현황을 조사했다. 그는 국립중앙도서관과 교보문고 웹사이트를 통해 자료를 수집했다. 기간은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약 10년 간이다.

이를 통해 집계된 불교명상 입문서는 총 108권이었다. 기간별로는 2008년 5권에 불과했던 불교명상 입문서 종수는 2012 · 2013년 각각 18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감소 추세로 접어들며 2017년에는 3권의 발간 종수를 보여준다. 하지만 2018년에는 다시 12권으로 종수가 증가해 회복세를 보였다.

문 교수는 “2012년 종수의 증가를 보인 명상 분야는 초기불교였고, 2013년에는 명상 일반이었다”면서 “이는 위빠사나와 사마타와 같은 초기불교 명상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글 트렌드 분석에 따른 2000년대 중반까지는 간화선 검색 빈도가 높았으나 2005년부터는 위빠사나와 사마타 검색이 급증했다. 2011년 힐링 열풍이 불면서 ‘불교수행법’ 검색보다 ‘명상’ 검색 빈도가 높아졌다”면서 “2012, 2013년 초기불교 명상에 대한 입문서 종수의 급격한 증가는 일반 대중의 ‘명상’ 에 대한 관심 증가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자 분석을 통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문 교수에 따르면 108권의 불교명상 입문서 중 외국인 저자는 총 45인으로 전체 42%에 달한다. 내국인 저자 62인 중 34인이 승려로 내국인 저자 중 55%를 차지했다. 재가 저자 28인 중 전공자는 6인이었고, 비전공자는 16인이었다.

이에 대해 문 교수는 “지난 10년간 발간된 불교명상 입문서의 42%가 외국 번역물이었던 것을 보면 국내 불교학자들의 불교명상에 대한 관심은 낮은 편이며 연구도 부족하다”면서 “불교명상이 국내에서 학문으로 확립되기 위해서는 불교명상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돼야 하는데 국내에는 이를 통합적으로 연구하는 학자가 드물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상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불교명상의 관심은 멀어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불교명상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국내 불교학계는 학제 간 융합연구와 같은 적극적 연구 인프라 구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세미나에서는 △불교사학 입문서 간행의 현황과 분석(이성운, 동방문화대학원대) △불교철학 입문서 간행의 현황과 분석(고영섭, 동국대) △불교예술 입문서 간행의 현황과 분석(백도수, 능인불교대학원대)이 발표됐다.

논평자로는 이자랑(동국대 불교학술원), 김종인(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박영란(동국대), 신광희(한국예술종합학교) 박사가 참여했다.

대행선연구원 제6회 계절발표회

12월 14일 안양본원서… ‘대행 선사와 앎’ 주제로

‘한마음 주인공 관법’ 이라는 생활선 수행으로 중생 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앎에 대한 인식을 살피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권탄준)은 12월 14일 오후 1시30분부터 안양본원 3층에서 제6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대행선 관련 연구논문 1편과 불교학 연구 논문 1편이 각각 발표된다. 대행선 관련 연구로는 김영래 고려대 교수가 ‘대행선사에 있어서 지식(앎)의 문제 : 한마음인식론 시론’ 을 발표한다.

불교학 부문에서는 공만식 동국대 교수가 ‘아귀도의 음식적 규정성과 여성의 관계에 대한 고찰’ 을 발표할 예정이다.

논평자로는 박기열(동국대), 이상호(대행선연구원), 심준보(금강대), 이석환(대행선연구원)이 참여한다.

대행선연구원은 “대행 선사의 선사상과 교화행을 연구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매년 학술대회와 4번의 계절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면서 “선학, 불교학 관련 중견학자들을 초청해 발표하는 이번 계절발표회에 불자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탄허학 정립 위한 논의 이뤄진다

한국불교학회 11월 29일 추계학술대회

한암 · 탄허 스님의 유지를 계승하고 탄허학 정립을 위한 학술대회가 열린다.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성철)는 탄허불교문화재단과 금강선원 , 한암문도회 및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와 공동으로 11월 29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탄허학 정립을 위한 외연의 확장’ 을 주제로 추계특별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화엄학과 정역학의 비교종교학적 고찰- 한국학의 새 지평과 탄허학의 확충(문광 스님, 동국대) △청대의 학문 특징과 탄허의 원융론적 가치(자현, 중앙승가대) △탄허 스님의 유가적 경세사상(이원석, 동국대) △탄허 노장학 천의(서대원, 충북대) △탄허택성의 선 이해 관점 - 삼분법 사유 틀의 시사점과 한계(조영미, 동국대) 등이 발표된다.

세미나에 앞서는 제1회 한암 · 탄허 학술상 시상식도 열릴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법련사와 월인석보 상관관계 살핀다

오는 12월 1일 법련사서

승보종찰 송광사 서울분원 법련사(주지 진경)가 법련사와 〈월인석보〉 관계를 조명하는 특강이 열린다.

법련사는 12월 1일 오전 11시 30분 대웅보전에서 ‘법련사와 월인석보’ 주제로 일요법회 불일인문학 특강을 연다.

강사로는 정진원 동국대 연구교수가 나선다.

법련사 신도인 정진원 교수는 특강에서 경복궁 내불당 역할을 하고 있는 법련사 위치와 창건 공덕주 법련화 보살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조선시대 대장경의 시작 〈월인석보〉에 대한 강의도 진행된다.

특강은 정진원 교수가 2017년 4월부터 현재까지 ‘월인석보’ 인문학 강좌와 사보 ‘법련’ 지에 연재한 내용을 간행한 〈월인석보, 훈민정음에 날개를 달다〉의 고불식을 겸하는 자리다. (02)733-5322

신성민 기자

신규 지정 국보 · 보물 100점 전시된다

문화재청 · 국박, 19일 MOU
3년간 지정 국보 · 보물 대상
내년 4월 특별전 개최 계획



배기동 국립중앙박물관장(사진 왼쪽)과 정재숙 문화재청장(사진 오른쪽)이 11월 19상호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새롭게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 국보와 보물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과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은 11월 19일 문화유산 조사 · 연구 · 전시 등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협약을 체결했다.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은 상호협약을 통해 △문화재의 조사 · 연구 · 보존 · 관리 등 정보 공유 △국가지정문화재의 공동 전시 △소장유물의 열람 · 대여 · 전시 활용 △문화재의 사회 가치 확산 등에 대한 협력 등이다.

두 기관은 첫 번째 협력 사업으로 내년 특별전 ‘신규 지정 국보 · 보물’ (가제)을 공동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새롭게 국보로 승격되거나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를 전시하는 이번 특별전은 약 40여 개 기관과 사찰, 개인이 소장한 국보 · 보물 100여 건 등 사상 최대 수량의 국가지정문화재가 한자리에서 공개된다.

이번 특별전에 전시되는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보 제151호 조선왕조실록, 제325호 기사계첩, 제327호 부여 왕흥사지 출토 사리기, 보물 제1973호 신윤복 필 미인도, 보물 제2000호 김홍도 필 삼공불환도 등 우리나라의 대표 명품 문화재다.

특히, 그동안 국민이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개인 또는 사찰이 소장한 국가지정문화재도 다수 공개될 예정이다. 3년간 신규 지정된 보물 제2007호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 등 대형 불화와 국보 제323호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보물 제1942호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 등 건조물 문화재도 영상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특별전은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장 유물의 열람과 정보 공유, 장기대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협조해 누구나 우리 문화재를 접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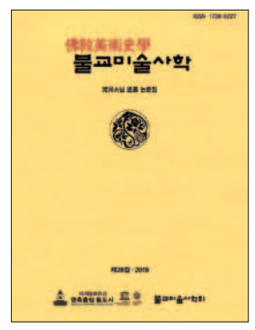
성보博 기틀 만든 범하 스님 그리다

불교미술사학회, 〈불교미술사학〉 추모논총으로 발간

한국불교 성보박물관의 기틀을 만든 범하 스님을 추모하기 위한 논총이 발간됐다.

불교미술사학회(학회장 송천)는 “학회의 전문 학술논문집 〈불교미술사학〉 제28집을 통도사성보박물관 신축 개관 20주년을 맞아 초대 박물관장과 불교미술사학회장을 역임한 범하 스님을 추모하는 논문집으로 발간했다”고 11월 19일 밝혔다.

국내 최고 불교문화재 전문가로 통했던 범하 스님은 1961년 통도사에서 법인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며 사문의 길을 걸었다. 1987년부터 2013년까지 통도사성보박물관장을 지내면서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 초대 관장과 성보문화재연구원 이사장, 문화재청 동산분과 문화재위원을 역임하는 등 불교문화재 전문가이자 학승으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추모논총인 〈불교미술사학〉 제28집은 평소 스님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던 김종규(한국박물관협회 명예회장) 등 3인의 추도사와 건축 5편, 조각 7편, 회화 · 사경 11편, 공예 4편, 불교민속 1편, 기획논문 2편 등 각계 전문가들의 학술논고 총 30편이 실려 있어 향후 불교미술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성민 기자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의 난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 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 02)2004-8216

한국불교 BTN 대표이사 서성우

박재완의 PhotoEssay



어쩔 수 없는 시간

덜어내고 내려놓는 시간
눈앞에 설법은 넘친다
바람결에 나무들이 흩어지고
법당의 단청도 한 겹 벗는다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
그 속에 어쩔 수 없는 것들
오늘, 또 한 번
어쩔 수 없는 것이 되어 간다



삼중 스님의 남기고 싶은 인연

㊺ 인질극 벌인 탈주범 지강헌

'유전무죄 무전유죄' 외친 탈주범 지강헌

서울올림픽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1988년 10월 8일, 지금은 없어진 영등포교도소서 공주교도소로 이감되던 미결수들이 호송버스서 난동을 일으켜 교도관들로부터 실탄이 장전된 총기까지 탈취해 달아나는 역대급 탈주극이 벌어졌다.

이들이 미리 호송 과정서 탈주 계획을 모의하면서 수갑을 풀기 위해 준비 해둔 특수 도구는 호송차량 탑승전 소지품 검사 과정에서 전혀 적발되지 않았다. 특히 이들은 5공 시절 제정된 보호감호제도를 골자로 하는 '사회보호법' 을 적용받아 꽤 긴 기간을 교도소에서 지내야 할 상황이다보니, 매우 강한 탈주 의욕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다 숫적 열세까지 겹치니 무장한 교도관들로서도 속수무책이었다.

당시 호송 버스에 타고 있던 미결수 25명 중, 탈주자는 '불안한 도피 생활' 을 거부한 13명을 뺀 12명이었다. 이들중 7명은 탈주 초기에 검거 및 자수했으나, 나머지 5명중 4명은 서울 도처에서 은신하다가 1주일만인 10월 15일 밤 서대문구 북가좌동의 한 주택가에 침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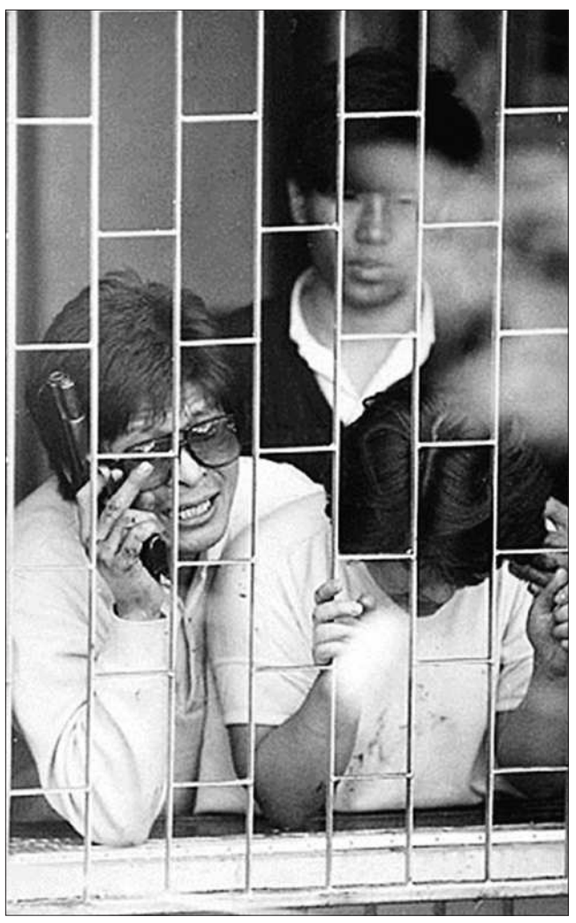
탈주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다음날 늦은 새벽 몰래 집을 빠져 나간 가장으로부터 신고받은 경찰은 집주위를 포위한다. 하지만 탈주범들은 남은 가족들을 앞세워 인질극에 돌입한다.

탈주범들 영등포 교도소 출신
TV 인질극 중계 보다 현장으로
"성직자 책임 크다"는 말 죄책감

20대 초반인 나머지 3명과 달리 당시 35세 최연장자인 지강헌은 자신들의 주장을 TV로 생중계 할 것을 요구하는 등 최초로 인질극이 전국 방방곡곡에 방송 전파를 탔다. 지강헌은 수많은 카메라와 마이크앞에서 자신들의 억울함과 사회에 대한 울분을 거침없이 내뱉기도 했다.

결국 이들은 권총 자살과 경찰이 쏜 총탄에 모두 죽음을 맞는다. 그들이 주장했던 한마디는 훗날 크게 국민들에게 울림을 줬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 일요일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모티브로 2006년에는 '홀리데이' 라는 제목으로 영화화 되기도 했다. 비지스의 '홀리데이' 란 음악도 우리 귀에 친숙하다.

나는 당시 지강헌이 수감됐던 영등포 교도소 교화위원으로 있었지만, 지강헌을 몰랐다. 부산서 법회를 마치고 서울 방배동 자비사에 도착해, 뉴스를 보기 위해 TV를 켜니 방송서 인질극 장면이 나왔다. 깜짝 놀랐다. 재소자 포교에 열정을 불태울 때라 유심히 지켜보다



1988년 10월 16일 탈주한 지강헌 등 4명이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의 한 주택가에 침입해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장면.

내 생명 던진 강렬한 짧은 만남
2006년 사건 모티브로 영화화
우리 사회 죄 앞에서 평등해야

가 갑자기 죄책감이 밀려왔다.

내가 교화하던 교도소서 탈옥하다보니, 그들의 탈주가 나 같은 교화위원들이 교화를 잘못한 책임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TV를 보다가 가만 있어서는 안되겠다 싶어 내가 경찰서에 전화를 했다. 경찰은 인질범들의 어머니, 애인 등 가족과 지인을 급히 수배해 동원해도 설득이 안 돼 난감해 하고 있었다.

내가 한번 자수를 권유해 보겠다고 하자, 경찰서에서는 절로 차를 보내 주었다. 사이렌을 울리며 인질극 현장이 있는 북가좌동의 한 가정집으로 달려갔다. 집 주변에는 수많은 인파들이 밀려 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나는 그 집 장독대서 탈주자 주범인 지강헌과 만났다. 경찰은 나에게 지강헌을 심리적으로 자극하면 총을 맞을지 모른다고 조심하라며 나의 안전을 신신 당부했다.

나는 그를 보자마자 "지강헌!"이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지강헌은 "삼중이 구먼!"하고 맞받으면서 너희 성직자들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에 대한 책임이 크다"고 외쳤다.

이번 사건의 책임이 삼중이 너에게도 있다며 원망하는 목소리로 모두 죽여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입으로는 맨날 좋은 말만하지만, 평소 우리 같이 힘들고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을 잘 챙겼으면 이런일이 안일어났을 것 아닌가라며 원망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뒤에 있는 경찰들은 지강헌의 목소리가 점점 격앙되자 이제 그만 됐으니 내려오라고 계속 종용했다. 나는 젊은 혈기에 권총에 장전된 총알 하나라도 나를 쏘느라고 소비하면, 인질들에게 더 쏠 탄알이 없질 않을까 해서 집으로 뛰어들려고 했지만, 경찰들이 강력히 제지해서 발길을 돌렸다.

그리고 집 아래 설치된 수사본부에서 4시간 이상을 지켜보며, 결국 시신으로 집을 나오는 그들과 마주했다.

그러면서 저들을 죽음으로 몰아 넣은 사람은 바로 나고, 우리 사회가 아닌가 라는 강한 죄책감에 한동안 괴로워 했던 기억이 난다. 지금 돌이켜 보니 30년 전 이맘때이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내 생명을 던진 강렬한 만남이라서 그런지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또렷하다. 비록 죄수들이지만 죽어가면서까지 그들이 외쳐댔던 '유전무죄 무전유죄' . 30년이 지난 지금 과연 우리 사회가 죄 앞에서 많이 공평해 졌을까?

정리=김주일 기자

BTN 불국토상조 는 장례포교사

회원가입 문의 : 1577-7675

장엄번 제단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기 위해 대성인로왕보살과 극락도사아미타불 장엄번으로 제단 장엄

스님 시다림



입관 및 성복례를 하는 동안 스님께서 직접 장엄염불로 영가가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모십니다.

지장경 수의



영가의 극락왕생을 위해 지장경이 새겨진 불경수의와 지장보살상 위패를 제공합니다.

불국토상조는 BTN불교TV가 영가의 극락왕생을 인도하기 위해 설립한 불교전문 장례포교사로서 불자들을 위한 전문화된 장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불국토상조 "우량업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회계감사를 통해 2018년 6월29일 우량업체 발표. 상조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 법정 자본금 요건(15억원)을 충족한 회계지표 상위업체 공개명단에 불국토상조가 포함됨

중요정보 고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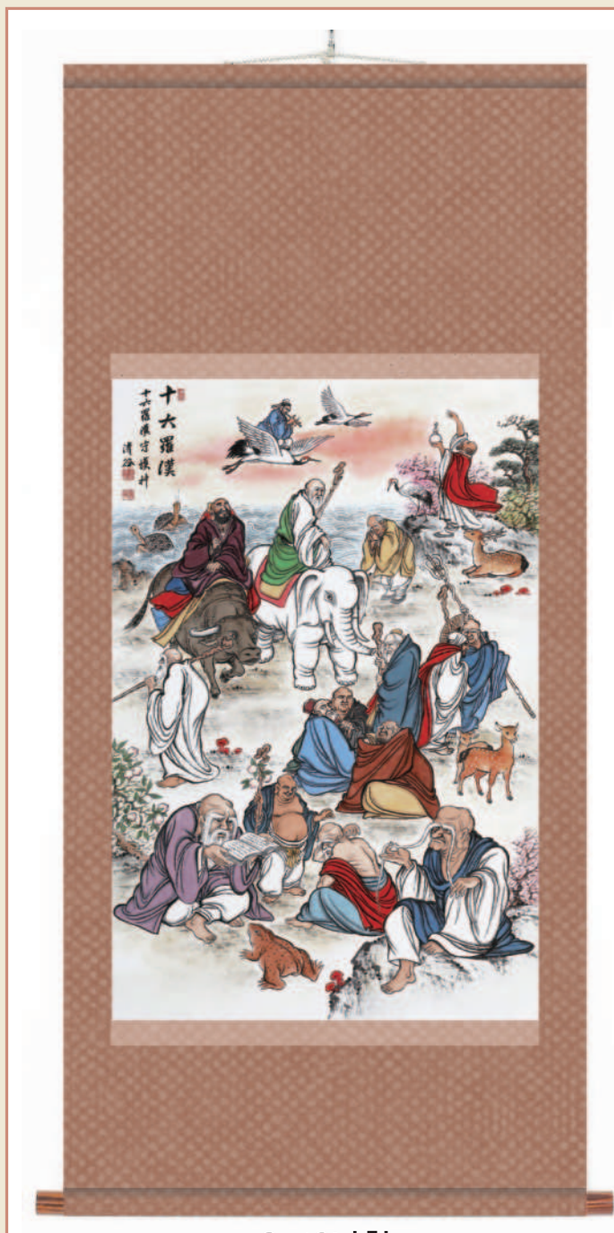
대표이사 : 구본일 / 홈페이지 : www.btnlife.co.kr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97 4층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번호 : 서울-2011-제68호 / 할부거래법 및 공정거래위원회 규정을 준수하며, 해약 환급금은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따라 환급이 가능하고, 고객 불입금을 국민은행에 안전하게 예치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 총고객환급의무액 10,286,290,000원 / 상조관련자산 14,001,360,000원 / 공인회계사(삼덕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았습니다.

"복과 지혜를 구하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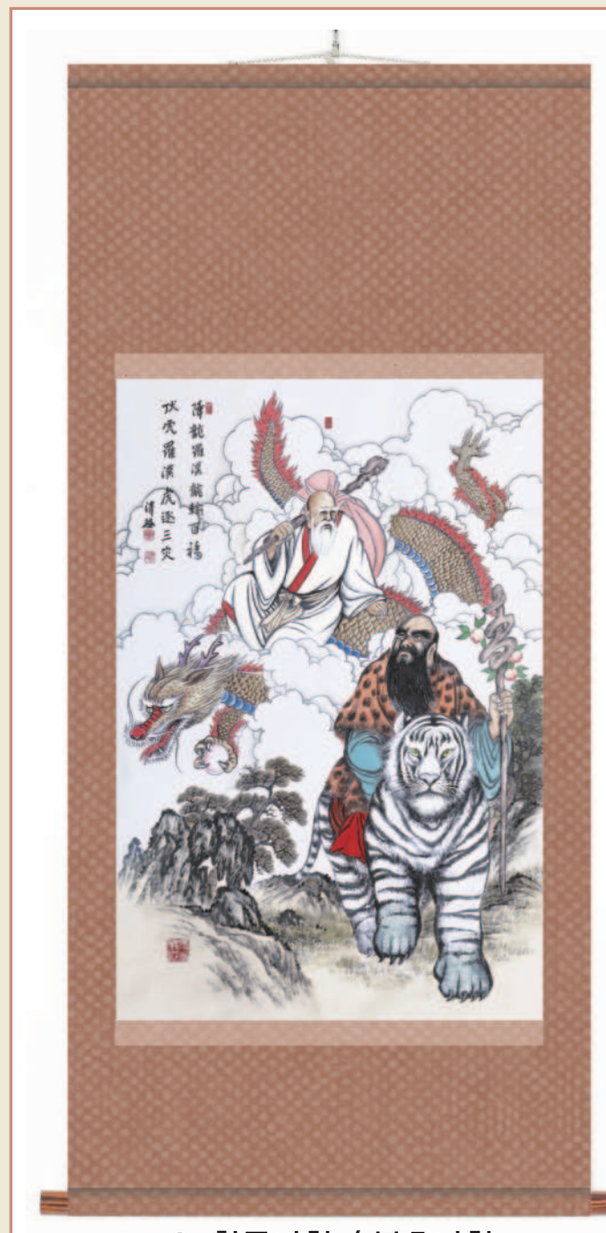
달마도와 포대화상도, 나한도, 동자승 등 수많은 불교그림들을 그려온 청곡 이한동 화백님의 작품을 집안에 모셔두면 그림에서 발산하는 기운은 가정을 평화롭게 하고 가족의 건강과 어려운 일들을 순조롭게 풀어줄 것이며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1. 관세음보살



2. 16나한



3. 황룡나한 / 복호나한

길이 110㎝ 폭 54㎝ 가격 100,000원이며 두점이상 구입시 90,000원 나한도를 구입하시는 분에게는 16나한이나 18나한도의 설명서를 드립니다.

一切衆生皆有佛性 (일체중생개유)

1. 불성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자비와 방생은 불자라면 누구나 지녀야 할 기본성품이며 관세음보살께서 방생하는 모습은 사부대중 모두에게 귀감이 될 것이다.

2. 나한은 아라한의 준말이며 그 중에서도 16나한은 가장 대표적인 나한이다. 나한은 해탈과 신통력을 두루 통달하였고 더 이상 열반에 들지 않고 영생을 누리며 많은 권속나한들과 함께 세상의 여러곳에 거처하며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들의 복전이 되어 줄 것이다.

3. 황룡나한과 북호나한은 16나한과 함께 18나한으로 그려지기도 하며 황금색룡을 타고 다니며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에게 복을 전해주는 황룡나한과 들어온 복을 지켜주고 삼재를 소멸하여 중생에게 수호신이 되어주는 복호나한 두분나한을 모셔두면 집안이 만사형통하여 하시는 사업과 자녀의 진학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이다.



수강생 모집

청곡 이한동 화백님의 그림을 배우고 싶으신 분은 현불샵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거리라고 하는 서울 인사동에 미술 교육관을 개설하여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주2일 월8일 동안 그림강의를 합니다. 수강료는 월10만원이며 그림 내용은 산수화, 풍속화, 달마도, 동자승 등을 지도하며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TEL.02)2004-821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